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1월 30일(음력 10월 29일) 수요일 (주간) 제 554 호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제작사
031)792-6288/794-4055

인터넷포교 '주목'

각 종단·단체 "내년 인프라·콘텐츠 확보 주력"

내년도 불교계는 인터넷포교에 상당한 공력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각 종단과 단체들이 단순히 사이트를 개설하고 기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포교전략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멀티미디어 · 블로그 · 커뮤니티를 통해 다각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본격적인 인터넷포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터넷포교에 대한 '주목'은 그동안 전산망 구축과 네트워크 연결, 관련DB구축을 통해 인프라를 완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봄부터 영문 중문 러시아어를 서비스해온 불교포탈 부다피아를 운영하는 현대불교신문사, 내년 1월 '국제사이트'를 오픈하는 조계종 및 종단산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포교사단과 태고종, 천태종, 불교방송 등이 적극적인 콘텐츠 생산과 서비스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다.

부다피아는 내년부터 영문 웹빌더 서비스로 전세계가 공유하는 사이트로 다각화하며, 회원에게 e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계종은 △사이버 선수행 △간화선과 한국불교의 선맥 등을 다국어로 서비스하는 '국제사이트'를 통해 세계 네티즌과 교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전국의 전통사찰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화사업단을 통해 '정부예산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저작권 등록사업'을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생산을 넘어 지적재산권까지 확보해 인터넷포교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포교사단도 사이트 리뉴얼과 함께 내부적으로 인터넷포교시스템을 완비했다. 웹진을 게재하고 블로그 ·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을 인터넷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포탈사이트에 잘못 등록된 불교정보를 바로잡는 '불교바른정보사업단'을 발족해 대외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불교바른정보사업단 홈페이지(www.pogyosa.or.kr)는 7개 포털사이트와 연동돼, 불교관련 질문들이 실시간으로 링크된다.

태고종은 내년에 종단전산화시스템을 마련하고 연초에 여러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넷포교자문단 '21세기 선교방편연구소'를 발족할 계획이다.

천태종은 내년부터 홈페이지에서 영상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현재 방송인력을 채용하고 자체 스튜디오를 건립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남문화재연구원은 전국 전래불교설화 1660편을 수집해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었으며, 불교방송도 '산사의 소리'를 디지털콘텐츠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신도회는 포털사이트에 제공되는 인물정보서비스에 중앙신도회 임원 DB를 제작, 등재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청년회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후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계획을 세우는 등 관련 인프라망 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인터넷포교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저작권을 확보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동국대 '새로운 100년 창조' 선포

동국대(총장 홍기삼)가 11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100년 창조(New Centennial Dongguk)'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 태우주택회장 구자선씨 등 동문들이 약 92억원의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글 · 사진=조용수 기자

'佛畵匠' 중요무형문화재 118호로 지정

기능보유자 석정 스님 · 임석환씨 예고


석정 스님


구해 스님


임석환씨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1월 4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화장(佛畵匠)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에 지정하고, 기능보유자로 석정 스님(<한국의 불화> 편집위원장)과 임석환(수산전통불교미술원 원장)씨로 인정 예고했다. 불화장은 불화 제작기술로 그간 단청장 보유자에 의해 전승돼왔으나, 종목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분리됐다.

구해 스님 영산재 기능보유자 지정

문화재청은 구해 스님(前 봉원사 주지)을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기능보유자로 지정했다.

'불교와 사회 포럼' 창립세미나 성료

300여명 참여 '열띤 토론'

'불교와 사회 포럼'(공동대표 이평래 · 김광삼 · 김규칠 · 김용표 · 성태용)의 첫 공식행사인 창립세미나가 1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조성택 고려대 교수, 박세일 서울대 교수, 노부호 서강대 교수 등 사회현안에 불교적인 접근을 시도한 발제자와 논평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13면

불교와 사회 포럼은 불자 지성인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금년에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불교평론> 창간호부터 23권까지의 내용을 수록한 CD와 1년 무료구독권을 증정한다. 홈페이지(forum.buddhapia.com)에서 회원가입 할 수 있다.(02)2004-8233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이와같이 들었다
-다문제일 아난다
도법 스님
11월 30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황우석 박사 흔들기 중단하라"

불교계 단체 '황박사 외호' 선언, 지지모임 결성

'난자 매매' 문제로 윤리적 논란에 휩싸인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불교계 안팎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조계종 서울광역신도회와 불교인권위를 비롯한 12개 단체로 구성된 '황우석 박사를 위한 한국재가불자들의 모임(이하 재가모임)'은 11월 25일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우석 박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재가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황우석 박사의 연구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일부 시민 · 종교단체, 특정 언론의 잘못된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정종교 교리에 따른 잣대가 아닌 보편 타당한 기준에 따라 난자제공과 줄기세포 연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우석 교수를 적극적으로 외호할 것"이라고 선언한 재가모임은 ▲학계, 법조계, 종교계로 구성된 줄기세포연구윤리위 구성 ▲줄기세포 연구 지원본부 창립 ▲황우석 박사의 세계줄기세포 허브 소장 복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홈페이지(www.laybuddhist.net)에 황우석 박사 지지 배너를 마련해 불자들의 격려 메시지를 받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과 장향숙 의원 등은 12월 발족을 목표로 황우석 박사 지지 국회의원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선택 의원은 "논란이 조속히 종식되고, 황우석 교수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지모임 결성배경을 설명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조계종 '간화선 기본수행프로그램' 내년 3월 선보여

일반인 대상 10품으로 구성 11주 과정
자가 점검표 · 인터넷 카페 등도 운영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간화선을 재가불자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조계종은 스승이 제자에게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왔던 간화선 수행법을 재가불자 눈높이에 맞춘 '간화선 기본수행프로그램'으로 개발, 내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조계종이 재가자를 대상으로 보급하는 '간화선 기본수행프로그램'은 총 1품~10품으로 구성돼 매주 1차례씩 11주간 진행된다.

1~4품에서는 정견확립을 위해 불교기초교리와 간화선에 대한 기초이론을 중점적으로 배운다. 4~10품에서는 간화선을 이해하고 화두 참구의 요령을 습득한 뒤 직접 실참수행에 임하게 된다. 이 과정동안 재가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참선을 하며 1일 수행과제를 이행하고 자가점검표를 통해 개인의 수행정도를 체크할 수 있다.

또 수업시간 내에 해소하지 못한 궁금증은 인터넷 '간화선 기본수행카페(www.buddhism.or.kr/_seon/)'에 접속해 질문할 수 있다. 포교원은 수행카페를 통해 참가자들의 수행과정도 서로 공유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 11주째에는 1박 2일간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회향마당을 갖는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15만원.

봉은사 불광사 조계사 등이 운영사찰로 검토되고 있으며 자세한 장소와 일정 등 세부진행계획은 내년 1월에 발표된다. 포교원은 또 1박2일 · 5박6일용 단기 프로그램과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계층별 프로그램 등도 개발중에 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은 "전국 선원장스님들의 감수 아래 지난해 3월부터 1년 8개월간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며 "간화선 중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은비 기자

'할'



그림 · 조태호

범행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Daewon Buddhist Academic Institute
2006년 전학기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모집과정
● 입문과정 (서울 · 부산) : 불교입문과정 주.야간반 각00명 [주1회출석,6개월과정]
● 대학과정 (서울 · 부산) :
◇ 불교학과 : 주간, 야간 각100명 [주2회출석 / 주간 오후2시, 야간 오후7시]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주간, 야간 각100명 [주2회출석 / 주간 오후2시, 야간 오후7시]
● 대학원 과정 : 서울,부산 야간반 30 명 [주2회 출석 / 야간 오후7시]
● 통신과정 : 00명 [대학원은 제외]

강의시간 ● 주간/오후2시부터 4시40분까지 ● 야간/ 오후7시부터 9시40분까지

지원자격
● 입문과정 : 불교기본 교육을 받고 싶은 초심자
● 대학과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
● 대학원 과정 : 불교교양대학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포교사 자격소지자 우대]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학업계획서 및 졸업증명서 각1부(대학원 과정만 해당)

전형일정
● 원서교부 : 2005년 12월 1일 - 2006년 2월 20일
● 원서접수 : 2005년 12월 1일 - 2006년 2월 20일
● 입문, 대학, 대학원전형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06년 2월 21일 (개별통보)
● 입학식 및 오리앤테이션 : 서울 / 2006년 2월 26일(일) 오전11시 3층 큰법당
부산 / 2006년 3월 5일(일) 오전11시 2층 큰법당

전형료 및 수업료
● 전형료 : 입문과정 1만원 / 대학과정 2만원 / 대학원과정 5만원
● 수업료 : 입문과정 10만원[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 학기당 : 대학과정 : 30만원[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대학원과정 : 40만원[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 수업료는 입학식전에 완불하셔야 입학하실수 있습니다.(카드결제 가능)
1학기에 한하여 학사이전기념으로 입학생 전원 20%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전형료 및 수업료 납부
● 서울 : 국민은행 098-01-0244-009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 부산 : 기업은행 252-028746-01-017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 : 서울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2) 706-1570,1 / 754-1613 / 773-9171
● 부산 : 부산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51)583-7700 / 583-7811~ 2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 해드립니다.

문 의
● 서울대원불교대학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2층 ☎ 02)706-1570, 1571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 02)754-1613/773-9171 / 팩스 02)771-6796
● 부산대원불교대학 : 부산 금정구 장전1동 382-2 ☎ 051)583-7700/583-7811 ~ 1



대중불교운동을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www.idaewon.or.kr
www.buddhaschool.or.kr

수행환경·유물 보존 강화 길 열려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 시행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무분별한 개발 규제

■보존위원회 설치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

■지정취소제도 도입 실질적 가치 상실한 경우

전통사찰의 수행환경 보존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1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제도 도입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 △전통사찰 지정취소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뼈대로 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역사문화보존구역은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사찰 주변지역을 지정·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을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 지역에서 건설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통사찰 인근에서의 무분별한 개발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전통사찰 및 그 주변지역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설치된다. 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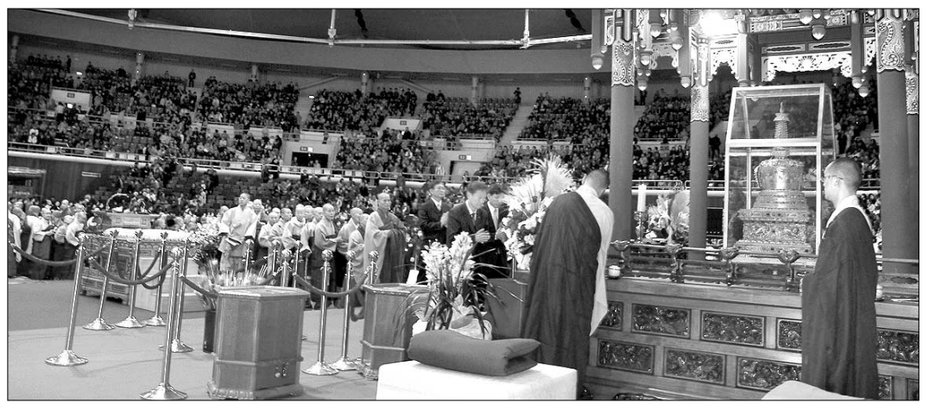
전통사찰 지정취소 제도는 전통사찰이 실질적으로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전통사찰 지정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당해 전통사찰의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은 2006년 1월 경 공포되며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또 7월까지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성안, 입법예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

조계종 기획국장 성묵 스님은 "그동안 종단에서 추진해왔던 불교관련 국가법령 개정작업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법령을 종단의 요청사항대로 개정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라며 "전통사찰 경내지는 물론 사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공공목적 개발(도로, 철도, 석사개발), 위락단지 조성, 항락업소 설치 등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전통사찰 주변 수행환경보존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11월22일 서울 올림픽경기장 특설법당에서 열린 지관 스님 초청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친견법회에는 3천여 대중이 동참했다.

수도권 3천여 불자 '불지사리' 친견법회

지관 스님 초청 법문…태고종도 28일 법회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초청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친견법회가 11월 22일 서울 올림픽 제2경기장 특설법당에서 봉행됐다. 천수경 독경, 육법공양, 삼귀의, 반야심경 순으로 진행된 친견법회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봉은사 한마음선원 능인선원 구룡사 도선사 조계사 신도 등 3000여 명이 동참했다.

지관 스님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함으로써 삼악도를 벗어나고 탐진치로 말미암은 업장을 소멸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법문했다.

한편, 태고종은 11월 28일 서울 올림픽 특설법당에서 불지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데 이어 12월 12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차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김원우·강유신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종책자문위원장 정휴 스님 지관 스님, 특보단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1월 21일 종책자문위원장에 정휴(중앙종회의원), 종책특보에 종상(경주 불국사 주지)·현응(합천 해인사 주지)사정특보에 장윤(중앙종회의원), 기획특보에 보광(동국대 교수), 사회특보에 정념(양양 낙산사 주지)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에 현고(前 총무부장), 문화국장에 혜조, 호법부 상임감찰에 종덕, 조사과장에 각천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남동우 기자

종책모임 '미래 승가회' 발족 금강·보림·화엄회 일부

조계종 '야권'이라 할 종책모임 금강회와 보림회와 화엄회 일부 등 22명은 11월 22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모임을 열고 통합모임 '미래를 여는 승가회(이하 미래 승가회)'를 발족키로 합의했다.

임시공동대표는 보선 장주 설송, 총무간사는 지현 이암, 재무간사는 정안, 종책위원은 무이 지현 정안 혜림 효림 이암 정호 도완 정도 스님이 각각 선임됐다. 대변인은 지현 스님. 미래 승가회는 전현직 본사주지스님을 포함한 모든 승가를 망라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출가연령 50세 이하 내년 가을부터 적용

최근 조계종 169차 중앙종회에서 개정된 행자교육원 입교연령 상향조정은 2006년 가을 제31기 행자교육원 입교대상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11월 22일 열린 2005 제3차 전국교구본사 교무국장회의에서 본사 행사등록 업무변경 공지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31기 행자교육원 입교를 희망하는 예비행자는 2006년 3월 10일까지 각 교구본사에 관련서류를 접수해야한다.

제30기 행자교육원은 2006년 2월 15일~3월 9일 23일간 열기로 했으며, 장소 등 자세한 운영 세부사항은 24일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원은 이날 올해 본말사 주지연수에 총 1037명의 스님이 이수했다고 밝혔으며, 2006년 중진 주지연수는 가, 나권역(직할수도권 강원 충청 제주)-중앙승가대, 다, 라권역(경상 전라)-동국대 경주캠퍼스, 중진주지(승랍 30년이상 전임본사주지 등)-천안 증권연수원 등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32개 종헌종법 제·개정 연내 초안 작성키로

조계종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중원)는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심의대상인 32개 제·개정 종헌종법에 대해 중원 정휴 학담 스님이 올 12월 20일까지 초안을 만든 뒤 내년 1월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3월 임시종회에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주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법규위원회는 22일 제34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천제 스님을 선출했다. 또 충주 천왕선원 창건주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보류' 결정을 내렸다.

남동우 기자

"종단 부동산 효율적 활용"

진각종 KB부동산 신탁과 업무제휴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사진 왼쪽)와 KB부동산신탁 심형구 사장이 업무협정 조인식 후 악수하고 있다.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지향해온 진각종이 보다 폭넓은 포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컨설팅 작업에 나섰다.

진각종은 11월 24일 통리원장실에서 KB부동산신탁과 업무협조 양해각서(MOU) 체결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에따라 KB부동산신탁은 104개 심인당과 18개 유치원, 12개 복지관, 1개 연수원, 1개 농림법인등 진각종 기관의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뒤 최적 이용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진각종은 결과물을 보고 개발 관리 처분등 부동산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부동산 활용에 따른 부처님 삼보정재는 모두 교화 포교 교육 복지 부문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원우 기자

예술 한마당…인류행복 기원

제9회 천태예술제 세종문화회관서 성료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을 기원하는 제9회 천태예술제가 11월 1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됐다.

예술제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총무원장 운덕 스님 등 천태종 스님들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 정태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사부대중 30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태전통범패보존연구회, 중국 항주 불학원, KBS국악관현악단, L.M.B 중창단, 서영숙 무용단, 천태연합합창단 및 성우 유강진씨 등 800여명이 무대에 올랐다.

행사 1부에서는 종송, 복청게, 천수바라, 도량작법 등 우리 전통불교의식과 중국항주불학원 10명의 스님들이 시연한 중국전통불교의식, 서영숙 무용단의 육법공양무용 '연화'가 각각 공연됐다.

행사 2부에서는 '교성곡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가 장엄하게 공연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김원우 기자

일승종, 3년만에 종단협 재가입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11월 2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대한불교 일승종(총무원장 혜정)의 재가입을 승인했다. 이로써 종단협 소속 종단은 26개로 늘어났다.

1968년 창종된 일승종은 <묘법연화경>을 소의경전으로 삼는 종단으로 2002년 정기회비와 사업비 체납 등을 이유로 종단협에서 제명됐다.

일승종 총무원장 혜정 스님은 "종단협 재가입을 계기로 40년 전통 종단의 위상을 찾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단협은 이날 회의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추대하고 조계종 총무부장 자승, 사회부장 지원 스님을 새 이사로선임했다.

강유신 기자

신(新)개념의 전문지도자를 양성하는 - 원광디지털대학교

당신의나이+4년= 새로운 미래

인생의 재설계를 위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The Economist 2002년 6월호 표지 글)

전통깊은 차향(茶香)세상을 향기롭게 바꾼다
차(茶)문화경영학과

21c 차문화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최초 4년제 학과
• 중국절강수인대학 등 차관련 학교 및 단체와 활발한 교류활동
• 차관련업체(제다,찻집,차도구전문점등)와 산학협력을 통한 체험교육 강화
• 전국 50여개 다례원과 연계 교육 실시
• 전통차(茶)예절지도사,선명상지도사 자격증 등 취득 가능

21c e-세상에 부는 디지털 한복바람
한국복식과학학과

한국최초, 세계최초 인터넷 교육으로 新 한복인을 키운다.
• 인터넷수업, 실습센터 보충수업을 통한 Multi-Way 교육시스템
• 한국복식,미학,공예학 분야등을 균형있게 학습
• 지역별 학과협력실습센터
- 김혜순 한복 / 하늘물빛 / 월간한복 / 민속한복학원 / 다모 한복 / 윤정 한복 / 웨딩한복사랑 / 최경희 패션 전문 교육원 등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전통공연예술의 연희자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전통공연예술학과

전통공연예술 전반을 손쉽고 깊이 있게 공부하며 4년제 대학교 학위 취득 가능
• 전통타악, 전통무용, 전통성악 등 전공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교과목을 수강하는 전인교육
• 전국 30여개 교육센터와 연계한 삼박자교육시스템
• 타학과에 개설된 다양한 교과과목 이수가능
• 사물놀이 지도사, 전통생활문화지도사 자격증 등 취득 가능

특전
- 학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정규4년제 대학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 일반대학교의 1/3수준의 저렴한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혜택
- 각 지역별 교육센터를 통한 학습활동 지원 및 졸업 후 대학원 진학 가능
- 학자금 융자 가능 및 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등공제 혜택
- 재학생 병역연기 혜택

인터넷으로 수업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정규 4년제 대학교
200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학과, 요가·명상학과
공무원행정학부: 경찰학과, 공무원행정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약물재활복지학과(신설)
문화예술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茶)문화경영학과
경영학부: 얼굴경영학과(신설), 부동산경영학과
게임학부: 게임학과

□ 원서접수기간 : 2005년 12월 1일(목) ~ 2005년 12월 15일(목)
• 기간내 접수하시면 입학금 (200,000원) 면제혜택을 드립니다.
• 원서접수 전형료(30,000원)는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 입학상담 : 080-285-2854 / 1588-2854
□ 홈페이지 : www.wdu.ac.kr
□ 지원자격, 세부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상담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인터넷 검색창에서 원광디지털대학교 검색 를 쳐보세요

“청계천 복원 하나님이 이루신 것”

이명박 서울시장 또 망언…불교계 우려 확산

지난해 5월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최근 “청계천 복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말해 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시장은 11월 11일 한 개신교 행사에 참석해 “청계천 복원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에 청계천 준공식을 할 때 먼저 목사님을 모시고 준공예배를 드렸다”고 발언했다. 9월 12일에는 “청계천 복원은 보이지 않은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시장이 이러한 편향 발언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13일 한 토론회에 나가 “나는 서울시장이지만 교회 장로이기도 하다. 교회 행사에 참석해서 그런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 이하 종평위)는 11월 22일 논평을 발표하고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 특정 종교적 발언을 해 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평위는 “청계천 복원이 ‘특정 종교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명박 시장이 종교지도자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며 “이명박 서울시장이 특정 종교에 울타리 지워진 서울시장이 아닌 서울시민과 온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시장으로 온전히 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이사장도 “봉헌 발언으로 이미 많은 시민들이 많은 정신적 피해를 본 상황에서 그런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에 이명박 시장은 진실로 참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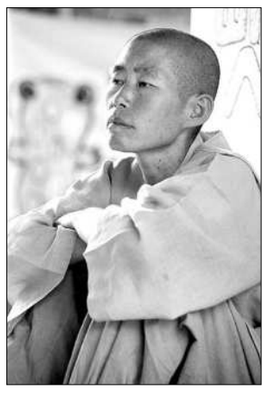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김기현 변호사는 “특정 종교행사에 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보다 명확하게 정교분리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지율 스님은 어디에?

11월30일 천성산 조사 마무리…두달째 소식 두절

천성산 환경조사가 11월 30일 공식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사진)의 행방이 두달째 확인되지 않고 있어 주위의 우려가 높다.



지율 스님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9월 중순.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에서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9월 6~21일 부산 민주공원 전시실에서 진행한 ‘초록의 공명과 생명의 숨소리’ 전시회가 사실상의 마지막 공식일정이었다. 이후 스님은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동생 조경자씨에게 모두 맡긴 채 종적을 감췄다.

조경자씨는 “가끔 스님과 통화를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 계신지는 모른다”며 “음식물을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지율 스님은 11월 24일 천성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저의 건강은 악화되어 있고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처럼 저는 폭풍우치는 바닷가에 서있는 곧 무너져 버릴 판잣집이 틀림없지만 아름다움과 생기를 잃어가는 천성산의 아픔을 놓을 수 없다”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8월 30일부터 정부와 천성산 대책위가 함께 진행한 천성산 환경조사가 11월 30일 종료된다. 구조지질분야를 비롯해 △지하수 △생태계 △암반공학 △지구물리탐사 등 5개 부문에 걸쳐 실시된 공동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묶여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남기명 토목처장은 “공동조사 종료 후에는 천성산에서의 발파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관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활기찬미래연구소 개소
노인문화 창출·권익보호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는 11월 24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노인취업문제 등을 집중 연구하게 될 ‘활기찬 미래연구소’를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정성욱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 운영 사찰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활기찬 미래연구소가 사회복지실천현장과 학문을 연계해 노인복지의 실천적 연구를 분야별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김강진 기자

동대 일산불교병원
고양 상의와 의료협약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원장 이석현)은 고양 상공회의소와 진료 의료기관 협약을 11월 18일 체결했다.

고양 상공회의소 박종기 회장은 “지역 상공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 협약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고, 이석현 의무원장은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앞으로 고양시를 대표하는 유관기관인 상공회의소 소속 직원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조용수 기자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불자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여성연구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11월 24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 5주년 기념식행사에 열 예정이다. 또 한국여성불교를 해외에 알리는 ‘불교여성학연구소’를 설립을 위한 연구기금조성사업도 2007년부터 진행한다.

김인숙 원장은 “그간 불교여성개발원은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여성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비중있는 활동을 벌

2010년까지 여성인재 집중양성

불교여성개발원 10년비전 발표

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비전’을 발표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발표한 ‘2010비전’ 3대 주요사업목표는 불교여성아카데미 창립, 행복한가정지원센터 설립, 불교여성학연구소 개설 등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10년까지 200명의 여성불자 인재양성을 목표로 2007년 불교여성아카데미를 창립하고, 기존의 ‘행복한 혼인준비교실’을 강화한 ‘행복한가정지원센터’를 2006년

여왔다”며 “앞으로 여성불자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이웃종교, 더 나아가 불교국가들과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개발원 산하 교도소교화팀 윤순옥 팀장 외 6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교도소교화팀은 ‘교도소 교화활동 사례집’을 출간했다.

이은비 기자

김의정 조계종 중신회장 취임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제22·23대 회장 이·취임식을 겸한 불기 2549년 임원대회를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해인사와 해인관광호텔에서 개최했다.

200여명의 전국의 신도회 임원이 참석한 임원대회는 제22·23대 회장이 취임식에 이어 신도회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 및 종합 토론, 해인사 비로자나불 친견, 무생계 수계법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제23대 회장단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중앙신도회의 지난 과정을 반추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자리.

중앙신도회 제23대 김의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선 활동 기반이 될 신도회관 건립에 전력을 다하고, 종단의 발전과 신도대중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 등 중앙신도회의 존재 이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김의정 회장 등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유에 대해 충실하겠다”며 발전기금 3억원을 쾌척했다.

백창기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천년고찰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지난 6년간의 중앙신도회 소임을 마무리하게 되어 감회가 무량하며, 신심 깊고 활동을 많이 하는 김의정 회장이 신도회의 직무를 맡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대원불교대학, 불교진흥원으로 학사 이전

대원불교대학이 서울 마포구 (재)대한불교진흥원 다보빌딩으로의 학사이전을 예고하면서 제2의 개교를 선언했다.

대원불교대학 후원이사회 위원장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과 김범준 상임법사 등은 11월 21일 불교진흥원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남산에 위치하고 있는 대원불교대학은 그 동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불자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내년 3월학기부터 불교진흥원 문화센터 건물로 불교대학을 옮겨 모든 강의를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대원불교대학은 이전에 맞춰 내년 3월 학기부터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를 개설해 불교상담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불교와 접합된 상담 기법,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의 교과과정을 준비 중이다. 학교 발전을 위한 준비작업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대원불교대학이 이번에 새로 구성한 후원회(위원장 송석구)는 교수 및 교계 인사, 기업인 등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사이전 기념 동문 초청 리셉션’ 등을 통해 대원불교대학의 이전을 알리고 힘을 집결한다는 방침이다. (02)754-1613 김강진 기자

“조계종 선거 직선제 도입을”

청정선거본부 해산성명서 주장

조계종 32대 총무원장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요구해왔던 청정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공동본부장 김의정 등, 이하 청정선거정착 운동본부)가 11월 21일 공식 해산하며 직선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청정선거정착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32대 총무원장 선거는 상대적으로 청정하게 진행됐다고 자평한다”면서도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청정선거정착 운동본부는 이어 △후보난립 방지대책과 후보자 검증장치 마련 △선거공영제 실현 △각급 종무기관의 선거 중립 명시화 등을 주장했다.

청정선거정착 운동본부는 또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혼란을 초래한 세민, 장주, 도공, 월서 스님은 참회하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철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오른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11월 21일 영등포장애복지관 착공 현장에서 첫 삽을 뜨고 있다.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착공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11월 21일 서울 영등포 보현의 집(원장 지거) 건설 부지에서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착공식을 거행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관이 조속히 건립 돼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몸과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직영의 12번째 장애인복지관으로 대지 645평, 건평 1173평에 이르는 대규모 장애인복지관이다.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립될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체력단련실, 사회재활실 등을 비롯해 컴퓨터교육실, 의무조기교육실 등의 교육시설과 취업정보실, 직업적응훈련실 등의 장애인 취업 정보 센터 운영에 역점을 두게 된다.

한편 이날 건립 기공식은 영등포 보현의집 증·개축식과 함께 진행됐다. 노숙자 중간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보현의 집은 이날 증축식을 통해 1개 층을 약 220평 규모로 증축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2층 건물은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김강진 기자

더불어 사는 밝은 세상을 위한 송년대음악회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저무는 한 해를 회향하고, 새로운 해의 도약을 지혜와 희망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송년대음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무허 큰스님께 자비로운 감로법문을 청함으로써 지난 한해를 마무리하는 향상의 기틀로 삼고저 합니다.

불타(佛陀)의 위신력 깊은 신행생활로 미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두를 위하여 신년 자축의 뜻으로 유명 연예인들의 축하공연도 준비하였습니다.

두루 함께 동참하시어 뜻 깊은 시간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2005년 12월
광덕사선원 · 석가사 · 불교방송 합장

송년대음악회

• 일 시 : 2005년 12월 10일(토요일)
• 장 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송년음악회 : 오후 6시(리셉션: 오후 5시 20분)



사회자 : 이상벽
오프닝 음악 - 불교방송전속관현악단
1. 구해스님(무형문화재) – 천수바라춤
'천수바라춤'은 <천수경>중 '신묘장구대다라니' 진언을 염송하며 추는 춤으로 불법을 수호하고 악귀를 물리쳐서 도량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춤으로 양손에서 바라를 휘감아 돌리는 춤사위는 장엄함을 연출한다.
2. 도신스님 - 귀거래사, 아름다운 강산, 무상
3. 김란영 - 살랑살랑, 가인
4. 소프라노 김원정(명성황후 히로인)–
'명성황후' 주제곡, Memory, 그리운 금강산
5. LMB Singers(불교 전문 성악 중창단)
바람부는 산사, Love me tender, 어디로 가야하나
6. 김종환 - 둘이 하나되어, 사랑을 위하여, 백년의 약속
7. 장윤정 - 꽃, 짠짜라, 어머나
8. 난타 - 타악퍼포먼스
클로징 음악 – 불교방송전속관현악단

송년 법어 – 광덕사 조실 무허 큰스님

주최 광덕사선원(충북 단양)
주관 석가사 · 불교방송
후원 아리랑TV, 불교TV, 뉴질랜드 대사관, 스리랑카 대사관
행사 방송일시 BBS 불교방송 – 2005년 12월 18일(일요일), 저녁 8시 ~ 9시
불교TV – 2005년 12월중 4회 방영,
아리랑TV – 2005년 12월중 방영예정

※ 입장권 선착순 배부처(무료) : 석가사
행사당일 입장권 없이는 입장불가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관리동 186-5 ☎ 02)354-1141



교통편 안내
시내버스 : 702, 752, 7019, 7712, 7717, 7719, 7722, 7730 (은평구청앞 하차)
좌석버스 : 7022(수협앞), 9701, 9705 (은평구청앞 하차)
마을버스 : 7740(문화예술회관앞 하차)
셔틀버스 : 진관외동 체육센터
지 하 철 : 3호선 녹번역(5번출구), 6호선 역촌역(3번출구)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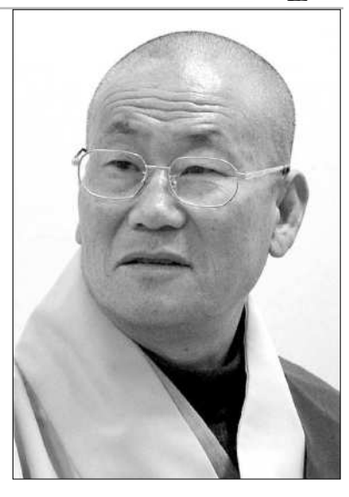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8강 :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 천안제일 아나율

강사 : 호진 스님(前 동국대 교수)

공동주최 : 광주 동구불교협의회– 현대불교

일시 : 2005.11.23 / 장소 : 광주 KT정보센터



‘마음의 눈’ 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11월 23일 광주 KT정보센터에서 열린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여덟번째 강의에서 호진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천안제일 아나율(阿那律, Aniruddha) 존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불교의 인과응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나율 존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사촌동생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에서 법을 설하고 길을 떠나자 가빌라 성에 있던 500명의 왕자와 청년들이 부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때 사촌동생 아나율도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 제자가 된 아나율은 진지하게 수행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법자리에만 오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부처님이 하루는 아나율에게 묻습니다.

“아나율아, 너는 국가의 법이 무서워 출가를 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도적이 무서워서 출가했느냐?”

의도된 행위에 윤리요소 있어야 인과 성립

자기운명은 철저히 자기가 만들고 푸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출가했느냐?”

“저는 인간의 영원한 문제인 생로병사를 이겨내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아나율아, 너는 그런 굳은 신심으로 출가했다면서 왜 설법 때마다 조느냐?”

“부처님, 앞으로 다시는 졸지 않겠습니다. 내 몸이 썩어 문드러진다 해도 졸지 않겠습니다.”

이때부터 아나율은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합니다. 결국 눈에 병이 나자 부처님이 의사 지바에게 치료토록 합니다. 지바가 진찰을 하고보니 아나율의 눈은 잠을 자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치료약이 없으니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율은 ‘부처님께 맹세했다’며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합니다. 결국 아나율의 눈은 멀어 버립니다. 그러나 육안이 완전히 멀어버린 대신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바로 천안통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도를 깨치면 숙명통, 천이통, 천안통 등 신통력이 생깁니다. 아나율이 천안제일이라 불리는 것은 현재를 통찰하는 신통력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고 강가에서 화장을 하는데 불이 붙지 않습니다.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습니다. 그때 아나율 존자가 말하기를 “부처님을 돌보는 신들이 가섭 존자를 기다리며 불을 붙이지 않게 하고 있으니 가섭 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때 가섭 존자는 제자 500명과 다른 곳에서 교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일주일만에 가섭 존자가 도착하고 불이 붙어 다비를 하게 됩니다. 아나율 존자의 천안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이 멀거나 장애를 가지면 전생에 무슨 업이 있어서 그러겠지 하며 인과를 생각합니다.

불교의 인과응보를 통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을 뜬 아나율 존자의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응보는 불교 용어입니다. 선이나 악으로 지은 행위에 따라 결과가 나온다는 것으로 현재의 모습은 전생의 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어느 종교도 불교이외에 전생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자들 가운데 인과법칙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과는 틀림없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로부터 감나무에 감을 몇 개 남겨둡니다. 지나가는 새들이 겨울에 먹으라는 배려에서입니다. 지나가던 까마귀가 먹으려다 그만 감을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때 나무 밑에 있던 개미를 덮쳐 개미가 죽어버립니다. 개미는 다음 세상에 돼지가 되고 까마귀는 죽은 뒤에 뱀이 됩니다. 돼지가 칡뿌리를 먹으려고 땅을 파다 바위를 굴려 아래에 있던 뱀이 죽습니다. 까마귀가 개미를 죽이고, 그 과보로 개미가 까마귀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인과가 틀림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까마귀가 개미를 죽이고, 다시 개미가 까마귀를 죽이고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인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주어지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불교에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업(業)을 뜻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은 꼭 업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이지 보통의 행동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업을 직업과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의 업은 행위입니다.

업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상 행동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야겠다’는 의도적 행위여야 합니다. 꿈속에 행동을 하거나, 밤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벌레를 밟아 죽이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잠결에 모기를 탁 친 것은 의도적인 살생은 아닙니다. ‘윙윙’하며 신경을 쓰이게 하는 모기를 보고 계속해서 죽여야지 할 때 의도된 행위가 됩니다.

또한 의도된 행위라고 해서 모두 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과 악이라는 의도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은 의도적인 행위이지만 그것은 윤리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선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업이 되기 위해서는 의도된 행위에 윤리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진짜 결과가 나옵니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업이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라도 조건이 빠지면 무기업이 됩니다. 기록이 안 되는 업입니다. 업은 업인데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업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은 선업, 악업, 무기업 세 가지가 있으며 무기업을 빼고 흔히 선업, 악업으로 나눕니다.

이처럼 두 가지 요소가 이루어 졌을 때 인과의 법칙이 성립됩니다.

업을 지으면 틀림없이 결과가 나옵니다. 씨앗을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씨앗이 자라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거름을 다르게 주어도 결과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추 씨앗과 가지 씨앗을 심으면 고추 씨앗에서는 고추가 나오고 가지 씨앗에서는 가지가 나옵니다. 조금 더 좋은 고추, 아니면 나쁜 가지가 나올 수는 있지만 고추 씨앗에서 가지가 나오거나 가지 씨앗에서 고추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장과정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 속에서 벌써 고추, 가지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법칙입니다.

이처럼 내가 업을 지었으면 아무리 옆에서 간섭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하느님도 내가 지은 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은 업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각각 토끼를 한 마리씩 죽였습니다. 똑같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토끼를 죽이고 난 뒤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업이 다르게 됩니다. 업이 다르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토끼를 죽이고 난 뒤에 한 마리 죽이나, 두 마리 죽이나 죽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더 죽여 버리자며 자꾸 나쁜 짓을 하면 업이 더 크게 불어나고, 토끼를 죽였는데 방생을 해서 다른 짐승을 살려주면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의 상쇄작용이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 움큼의 소금을 작은 그릇에 넣어 녹이면 짜서 먹지 못합니다. 똑같은 양의 소금을 큰 독에 물을 넣고 녹이면 그 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양의 소금이지만 물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자기운명은 자기 이외에 책임질 존재가 없습니다. 지옥중생이 되느냐 천상의 존재가 되느냐, 부처가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운명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푸는 것입니다.

질의응답

문 :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 풍요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다리 밑 거적때기 위에 누워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출발부터 불평등합니다. 함께 잘 살수는 없는가요?

답 : 불교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자기 탓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이런 집에 낳아 고생시킵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복을 짓지 못했으니 내 밑으로 왔지” 합니다. 복을 지었기 때문에 부잣집이라는 좋은 집에 태어나고,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를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5시간 일할 때 자기는 10시간 공부하고 일해서 개선시켜야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전생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간섭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반성하고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노력해서 이번 생에 내 인생을 바꾸고, 다음 생에 더 잘되도록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오로지 ‘나의 노력과 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보시하고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하든 운명을 바꿔야 합니다. 윤회와 업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기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책임과 함께 항상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교를 숙명론이나 운명론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정리 · 사진=이준엽 기자

2006학년도 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요강

1. 모집과정 및 인원

과 정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석,박사) - 역경(석,박사) - 실천불교(석,박사)(포교사회) - 불교문화재학(석사)	석사과정00명 박사과정 0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전공(석사)	

※ 불교문화재학전공은 졸업후 학예사(3급)자격증 취득 가능

2.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박사과정은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취득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대한불교 종단협의회에서 인정한 타 종단 승려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학부과정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5. 11. 28(월) ~ 12. 9(금) 17:00까지
2) 전 형 일 : 2005. 12. 14(수) 12 : 00 (박사과정) / 14:00(석사과정)
3) 합격자 발표 : 2005. 12. 19(월) 11 : 00
4) 등록 기간 : 2005. 12. 20(화) ~ 12. 30(금)

4. 전형방법
- 석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선발
- 박사과정 : 논술(A4용지 1매내외)

5.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1부.
3) 석사과정: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박사과정: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1부.
4) 석사과정:대학성적증명서/박사과정:대학원성적증명서(백분율 성적 기재분)1부.
5) 승적증명서 (3개월 이내) 1부. (최종수계일 기입 요)
6)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타 종단 스님)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칼라사진 5매 제출(가사 수한 사진 3×4㎝)
※ 대학/대학원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 후, 2006. 2. 28(월)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야 함.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됨.

6.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 무료
2) 전형료 : 박사과정 50,000원 / 석사과정 40,000원

7. 사정원칙
1)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하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 사정회에서 결정함. 입시위원 : 대학원 위원회

8.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 전화 : 031)980-7862 / FAX : 031)980-7863
- 특전 : 1) 조계종 소속 승려(구족계수지자)는 장학금혜택이 있음.
2) 각종 교내 · 외 장학금 지급
3) 전공별 대학원 연구실 제공

중 앙 승 가 대 학 교 대 학 원

제36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www.burec.org

『찬바람 씽씽, 신나는 우리절』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부처님의 진리를 보다 다양하게 교화시킬 수 있도록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각 사찰의 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실기를 강습하고자 합니다. 특히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교사 및 법사님, 스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였으며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교육내용 또한 집중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포교에 관심있으신 불자님들께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일 시 : 불기 2549(2005)년 12월 11일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장 소 : 구룡사(서울 양재동 소재)
[교통편 안내] 지하철 3호선 양재역
(5번 출구 100m정도 직진 육교 밑 셔틀버스 승하차
일반버스 4312, 406번 마을버스 09, 18, 21, 23번)
■ 교육내용 : 레크리에이션 댄스
법당에서 인형극을..
달마야 놀자
풍선을 이용한 법당 꾸미기
신 찬불가와 율동
■ 참 가 비 : 일반 35,000원, 회원 30,000원, 도서벽지및 군종 10,000원
■ 준 비 물 : 필기구
■ 접 수 : 전화 및 인터넷 접수
불교레크리에이션회 홈페이지 www.burec.org
온라인 구좌 국민은행 006-01-0801-770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농 협 053-02-177171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문 의 :02)738-7860(代), 02)739-4967, FAX 02)738-7863(본회 사무국)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불 교 레 크 리 에 이 션 협 회

56년 전통 살아났다

포항불교학생회 19일 재창립



11월 19일 포항불교학생회 재창립 법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문 닫은지 3년만에 50여명 법회 열어
지역 신행단체·교사 불자회 지원 약속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돈이요!" "사랑이요!"

11월 19일 포항시 포교당 죽림사(주지 종문)에서 열린 불교학생회 창립 법회. 죽림사 주지 종문 스님의 질문에 학생들의 명쾌한 답과 웃음이 터져 나왔다. 포항불교학생회가 문을 닫은 지 3년 만에 다시 열린 학생법회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포항불교학생회의 맥을 잇는 자리여서 지역 신행단체 및 교사불자회의 관심이 높았다.

1948년 6월에 창립해 죽림사를 중심으로 56년간 전통을 이어오던 포항불교학생회는 지난 2002년 문을 닫았다.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 불교학생회 활동이 학교별 불교동아리 활동과 사찰별 활동으로 흩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흩어진 학생회 활동마저 열악한 지원 속에서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이자 학생들이 다시 포교당 죽림사의 문을 두드리면서 학생법회가 재창립하게 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청소년포교가 열악한 상황에서 포항불교학생회의 맥을 잇는 죽림사 불교학생회가 재창립되자 포항불교계는 기쁨과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토요일 저녁 7시, 늦은 시간인데도 유성여고, 세화여고, 장성 고등학교 청소년 불자 50여명이 죽림사 신행회실을 가득 메웠다. 포항불교학생회의 재건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을 쏟았던 교사불자회원도 법회를 지원하기 위해 참석했다.

법문에 나선 종문 스님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설했다. 스님은 "실체가 없는 순간의 행복과 불행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의 눈으로 세상의 변화를 보고 실체 없음을 깨달아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또 경전에 나온 웰빙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몸짱이 되는 비결(?)도 소개했다.

법문에 이어진 다과시간, 포항불교학생회 58대 회장에 선출된 김지현(유성여고 2년) 학생은 "중요한 때 회장을 맡게 돼 부담스럽지만 선생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 불교학생회가 번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항교사불자회 김숙자(경주교육청 상담실전문상담 순회교사)회장은 "오늘의 창립법회는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죽림사 불교학생회 지도교사를 맡게 된 황옥주 교사는 "입시경쟁으로 황폐해진 학생들에게 매주 주말 사찰에서의 참선, 다도, 부처님 말씀 등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도 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종문 스님은 "포항불교학생회를 재건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동안 실시해온 문화재 답사 등이 결실을 맺었다"며 "3년간의 공백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054)247-4688

글·사진/포항=배지선 기자

사부대중 1080명 화합의 한마당

포항불교계 12월 3일 1080정진 대법회 개최

1인 10800원 나눔기금 모금도

포항불교사암연합회(회장 난승)가 12월 3일 오후3시 포항실내체육관에서 1080정진 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10~80세 사부대중 1080명이 모여 1080배 정진을 하고 이웃을 위해 1인당 10,800원의 기금을 모금하는 행사도 열린다.

1080정진대법회는 지난해 12월 15일에 열린 범불교도대회 영상물 상영에 이어 천수경독송 후 108배, 참회서원문 낭독 후 108배, 인욕바라밀의 증득과 불우이웃의 고통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한끼 굶기 체험 후 108배 정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함께하면 희망이 보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매일 1080초 동안 선정에 들며, 해마다 1080시간(하루 3시간씩) 이타행을 행하자는 1080캠페인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더불어 살아가는 참뜻 나누는 전시"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큰스님선서화展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등 대덕 스님들의 선서화 120여점과 설봉스님의 도자기 작품, 천마재활원 원생들이 만든 다구 2백점 등 수많은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인 전시회가 열렸다.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국제신문 4층 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큰 스님들의 작품 외에도 금니사경 병풍과 선화, 선서화와 정만 스님, 유정 스님, 석공 스님, 지현 스님 등이 평소 아끼던 소장품을 일반에 공개했다.

4백여 점에 이르는 작품 수만큼이나 이번 전시회의 의의도 남다르다. 수익금 전액이 복지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17일 열린 전시 개막식은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이사장 흥교 스님,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등 3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여 스님(부산 금정복지관장)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한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기증해주신 많은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해인사, 목조 비로자나불 12월 10일 학술강연회 열어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목조 부처님으로 판명된 해인사 목조 비로자나불의 역사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학술강연회가 12월 10일 오후 2시 법보종찰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린다.

'9세기 해인사 목조 비로자나불의 역사성과 예술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 강연회에는 문헌학, 역사, 양식사, 재질사 등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화여대 강우방 교수는 조형적 특징과 양식사적 위치에 대해 발제하고, 동국대 김상현 교수는 명문 내용으로 본 신라왕실과 해인사의 관계 및 조성배경에 대한 연구내용을 발표한다. (055)934-3000

배지선 기자

'맑고향기롭게' 우수상 수상 대구자원봉사대축제서

대구 불교시민단체인 (사)맑고향기롭게 대구지부가 대구시가 주최한 제4회 대구자원봉사대축제에서 우수상 수상단체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사랑과 나눔으로 대구를 아름답게!'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총 135개의 자원봉사 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제4회 대구자원봉사대축제' 심사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소리로 듣는 녹음 도서를 제작·보급한 (사)맑고향기롭게 대구지부를 우수상에 선정했다고 11월 18일 발표했다.

(사)맑고향기롭게 대구지부는 1996년 창립 이래로 1천 여 명의 회원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소리로 듣는 녹음 도서를 제작·보급하는 소리 봉사 외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 떡 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시민을 위한 수요문화 무료강좌도 열고 있다.

배지선 기자

대구정법회 거사림회 창립40돌

대구의 대표적 거사림 신행단체인 정법회거사림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해 대승원 설호 스님과 지역신행단체장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 거사림 법당에서 기념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서 정법회 거사림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행사비용을 절감해 불우이웃돕기에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 학업과 신행활동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50만원을, 소년소녀 가장 2명에게 성금 20만원씩을 전달했다.

배지선 기자

통도사 영축선원 개원1주년



기도와 교리 공부를 병행하며 도심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통도사 부산포교원 영축선원(주지 반산)이 개원 1주년을 맞아 11월 24일 원산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초청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반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를 바르게 배워서 이웃과 자녀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곧 진정한 포교의 출발인 만큼 그 기초를 다지는 도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고 외우더라도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할 수 없다. 한구절의 경전을 읽고 외우더라도 그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불자가 되도록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축선원은 영축불교대학과 대승경전반, 참선대학 등을 운영하며 법화경, 육조단경, 천수경, 선어록반 등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을 일주일 내내 운영하고 있다.(051)752-0108

천미희 기자

함안 봉암사 20년 불사회향



경남 함안 봉암사(주지 만각)는 11월 19일 20년 동안 이어져왔던 불사를 회향했다(사진).

1886년 5층 석탑 불사를 시작으로 대웅전, 종각 불사를 진행해온 법화종 봉암사는 이날 법화종 종정 성파 스님, 총무원장 혜륜 스님, 진석규 함안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종각 낙성식 및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만각 스님은 "도량 불사를 마무리하면서 회향의 참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며 "여러 불자님들과 더욱 정진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는 도량으로 불사 공덕을 사회에 회향하겠다"고 말했다.

1943년 성신 스님이 창건한 봉암사는 1973년 철효 스님이 조탑 불사를 시작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입적하자 현 주지 만각 스님이 5층 석탑 불사를 완공했으며 1994년 대웅전 완공에 이어 2000년 종각불사를 시작해 2005년 2월에 종각 불사를 마무리했다.

1천여평 대지에 연 건평 8백평 규모의 불사를 회향한 봉암사는 초하루 법회와 지장법회를 중심으로 지역 불심 가꾸기와 지역내 불교 위상 높이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미얀마 우 자띨라 스님 태종사 방문



미얀마 마하시 법사협회 회장 우 자띨라 사야도 스님이 부산 태종사(주지 진용)를 방문했다(사진).

11월 20~21일 양일간 공식 일정을 가진 우 자띨라 사야도 스님은 태종사에서 위빠사나 집중 수행을 하고 있는 대중들을 위한 문답 법회를 열고 21일에는 태종사 대중들이 공양 올리는 음식을 받아 공양하는 탁발 공양 의식을 가졌다.

우 자띨라 사야도 스님은 1966년 양곤 마하시 사사나 센터에서 마하시 선사의 지도 아래 수행에 전념한 후 현재는 미얀마 마하시 법사 협회 회장을 지내며 미얀마 위빠사나를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불자 성악가 정성민씨 독창회

부산지역 사찰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는 불자 성악가 정성민씨의 독창회가 11월 21일 금정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독창회는 정성민씨가 지휘를 맡고 있는 홍법사(주지 심산)에서 주최한 행사로 찬불가를 중심으로 무대가 꾸며져 주목을 받았다. 불자 성악가가 개인 독창회를 열면서 찬불가 중심으로 무대를 꾸미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가곡과 찬불가의 밤'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독창회에서는 대행 스님 작사 '선종관문 알아보세' 광덕 스님 작사 '님의 숨결' 등 찬불가 가곡 민요 등이 공연됐다.

천미희 기자

佛
眞如聖地巡禮
www.sact.co.kr
02) 2076-9511~3
※해외여행 안내원 모집
(영어,중국어,일어 능통자 우대)

成道齋日(음 12월 8일)을 맞아 떠나는
부처님의고향 "인도" 불교 성지순례
호텔식 식사, 특급 및 일급 호텔 숙박
▪4인이상 월,목,일요일 항시 출발 가능(참가비용+5만원) ▪항공:인도항공 ▪차량:승용차 혹은 밴

1,990,000 9일 초특가
▸12/8,15,22,29 1/5,12,19,26
•여정 : 델리(1)-쉬라바스티(1)-룸비니-쿠쉬나가르(1)-파트나(1)-라즈기르-부드가야(1)-바라나시(1)-샤르나트-바라나시(1)-아그라-델리

2,190,000 11일 초특가
▸12/11,18,25 1/1,8,15,22,29
•여정 : 델리(1)-쉬라바스티(1)-룸비니(1)-쿠쉬나가르(1)-바이샬리-파트나(1)-라지기르-부드가야(1)-바라나시(2)-샤르나트-아그라(1)-델리

*특전 : 금강경 설법지 기원 정사, 부처님의 고향 카필라바스투의 쉬라버스티, 탄생지 룸비니, 최초의 불교 대학 나란다 대학, 열반지 쿠쉬나가르, 성도지 부드가야 마하보디 사원, 최초의 사찰 죽림 정사, 초전 법륜지 샤르니트, 아그라 및 델리 관광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15:30 출발/21:15 귀국)
日本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 한국인 위령탑 추모법회
*오키나와의 1월 날씨는 제주도의 4월 날씨와 같은 봄 날씨(벚꽃개화시기)

999,000 4일 단3회
▸1/4,11,18
•여정 : 인천-오키나와(3)-인천
•특전 :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 한국인 위령탑 추모법회
오키나와 사찰 순례
장수마을 오기미손, 오키나와 전통 민속촌, 류큐성, 수리성, 오키나와 월드, 동남 식물 낙원, 해양 박물관, 미공군기지, 나기진조 성터 방문

전세계 할인항공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캐나다 일본항공(JAL) CX(케세이퍼시픽)
일본/중국/동남아/미주
유럽/호주/뉴질랜드
TEL:2076-9535

日本 북해도 불교 문화탐방
699,000 4일
출발일 ▸12/5,14
*여정 : 인천-치토세-노보리베츠(1)-무로란-토야(1)-오타루-삿포로-죠잔케(1)-삿포로-인천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전 : 아이누민속촌,지옥계곡,쇼와신산,곰목장,분화구,토야호수유람선,후키다시약숫물,무로란 만케지사찰,삿포로 동본원사 사찰
*온천호텔 4인1실 기준 (2인1실/1인 6만원 추가)

日本 남큐슈,가고시마,미야자키
729,000 4일
출발일 ▸12/11,18,25
*여정 : 인천-가고시마 이브스키(1)-미야자키(1)-기리시마(1)-가고시마-인천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전 : 특급 온천 호텔 사용, 이브스키 검은 모래 찜질, 기리시마 유황온천욕, 훼리편으로 사쿠라지마 활화산 관광, 아리무라 용암 전망대, 사무라이 마을, 괴물뱀장어 관광

中國 서안 북경 불교 문화 탐방
849,000 5일
출발일 ▸12/10,17,24
서안 법문사 지하궁,병마용/북경 영광사 및 벽운사
*여정 : 인천-북경(2)-서안(2)-인천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적립 OK)
*특전
- 서안 법문사 지하궁,병마용,진시황릉,화청지
- 북경 영광사 및 불아사리탑 순례
- 벽운사 및 오백나한당 순례
- 북경:만리장성,명13릉,천안문 광장,자금성 천안공원,이화원 등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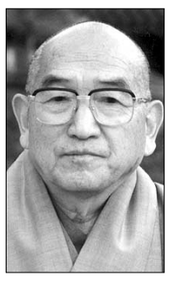
中國 상해/소주/항주 불교 문화탐방
599,000 4일
출발일 ▸12/6,13,20
*여정 : 인천-상해(1)-소주-항주(1)-상해(1)-인천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전 : 옥불사,홍구공원,정산사,용화사,서커스 관람,영은사,한산사,졸정원,발맛사지 체험,서호 유람,동방명주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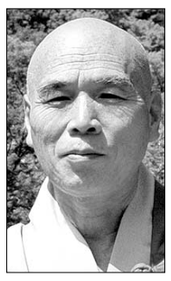
中國 성도/낙산, 티벳 성지순례
1,599,000 8일
출발일 ▸12/13,20,27
신비의 땅 티벳을 순례하는 희귀 체험
*여정 : 인천-성도(1)-라싸(1)-시가체(1)-장체(1)-라싸(2)-낙산-성도(1)-인천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적립 OK)
*특전 : 낙산대불 유람선 이용 관광, 라싸(노부린카,색랍사,철봉사,포촬라궁,대소사, 팔각가 순례.) 시가체(자스룬부스 순례), 장체(백거사,암또흐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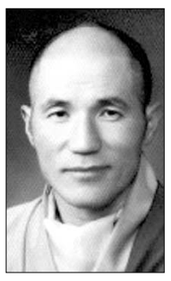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불교 문화탐방
999,000 5일
출발일 ▸12/9,16,23
*여정 : 인천-씨엠립(3)-기내-인천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전 : 앙코르와트, 툴루오스 유적지,반띠아이스 레이 사원, 바프온 사원, 타프틈 사원, 톤레삽 호수
*특급호텔 숙박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4번지 고려빌딩 715호 / www.sact.co.kr / 관광사업등록 종로구청 제26002-1999-000045호
공통사항:15명 이상 출발, 1급이상 호텔 이용, 1억원 배상 여행자 보험, 관광진흥 기금, 전쟁 보험료, 유류할증료 포함, 국적 항공사 이용(마일리지 적립) / 가이드 및 운전기사, 인솔 안내원 팁 불포함.
〈 여행 불편 신고 전화 : 02-2076-9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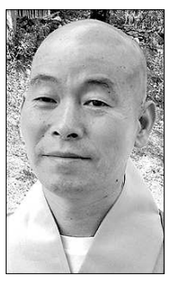

보성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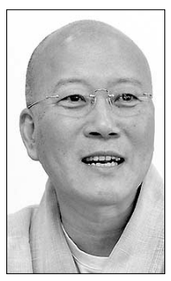

법흥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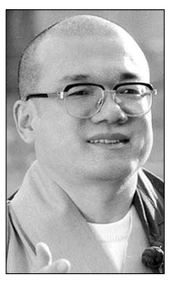

통광 스님


현묵 스님


성관 스님


지현 스님


수불 스님


지광 스님

“반야 지혜 체득하길”

순천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 12월 2일부터 8차례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조)는 사자루에서 12월 2일부터 2006년 1월 19일까지 49일간 오전 11시 경내 사자루에서 ‘금강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생활 속의 수행을 강조하며 공부하는 재가불자가 되도록 송광사는, 동안거 정진 중에 대중법회를 마련해 수행하고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회를 마련한 것. 송광사가 안거정진 기간중 대중법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금강산림법회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12월 2일)의 입제 법문에 이어 수불(안국선원장, 8일), 법흥(송광사 회주, 15일), 현묵(송광사 유나, 23일), 성관(수원포교당 주지, 29일), 지현(부산 관음사 주지, 2006년 1월5일), 지광(능인선원장 12일), 통광(칠불사 주지. 19일) 스님이 <금강경>을 주제로 법문한다.

송광사는 산림법회 기간동안 <금강경> 강의와 함께 매일 영가천도 기도를 봉행하며 유주무주 선망부모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생활에 얽매여 동안거 정진에 동참하지 못한 재가불자들에게 공부하는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 이번 법회를 마련했다”며 “제방의 큰스님들이 설하는 금강경 강독을 통해 신심을 돈독히 하고 반야 지혜를 체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061)755-0108

이준엽 기자

부처님 법음 이웃과 함께 나눠요

서울 석가사, 12월 10일 은평문화예술회관서

영산재, 도예展 등 행사 다채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의 음악회가 열린다.

단양 광덕사선원의 서울 포교당인 석가사(주지 일각)와 불교방송(사장 이성언)은 12월 10일 오후 6시 서울 녹번동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더불어 사는, 밝은 세상을 위한 송년대음악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날 음악회는 불은(佛恩)을 이웃에게 회향한다는 취지로 열려 의미를 더한다.

법고로 막을 올리는 음악회는 광덕사선원 조실 무허 스님의 송년법어, 데이비드테일러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축사, 등에 이어 이상벽 씨의 사회로 본격적인 음악의 향연을 선보인다. 인기가수 장윤정, 김종환을 비롯해 난타, L.M.B.싱어스, 소프라노 김원정 씨 등이 초청됐다. 또 영산재 기능보유자 구해 스님의 천수바라 재현, 도신 스님의 찬불가 공연 등 불교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공연장 밖에서는 도예가 하경혜 작품초대전 ‘흙사람’ 전시회가 열려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석가사와 단양 광덕사선원, 불교방송 등에서 배부하는 무료입장권을 소지해야 한다. (02)354-1141

박봉영 기자

서산 마애삼존불 보호각 철거된다

내년 6월까지 안전진단 거쳐 보존대책 수립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이 41년만에 햇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서산시는 문화재청에 요청한 마애삼존불 보호각 개방과 진입로 보수 등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마애삼존불 보호각 철거 등 주변정비에 나선다고 11월 22일 밝혔다.

1965년 풍화와 훼손을 막기 위해 설치됐던 보호각은 최근 문화재연구소 조사결과 내부와 외부 온도와 습도차를 유발하고 통풍을 막아 마애삼존불의 변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시는 올해 안으로 지붕과 기둥만 남기고 보호각 벽면을 모두 해체할 방침이며, 마애삼존불 진입로 정비와 함께 내년 6월까지 안전진단을 끝내고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법당 및 불교대학 개교식 봉행

명상상담아카데미 광주전남지구



명상상담 아카데미 광주전남지구(지도법사 인경)는 지난 11월 18일 광주 백운동 목우선원에서 법당개원 및 불교대학 개교식을 봉행했다(사진).

불교대학 첫 강의에 앞서 개원식에서 지도법사 인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은 훌륭한 심리치료인이며 가르침은 심리학의 정수이다”며 “갈수록 정신이 황폐해가는 현대인에게 불교명상 상담은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감로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 명상상담 아카데미는 명상전문 수련과정과 불교대학, 명상요가 등의 강좌를 개설했고 50여명이 등록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 양림사 청동불상 도난

신라 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불상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월 18일, 광주 양림사 주지 덕수 스님은 “이날 새벽,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사라져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불상은 지난달 조계종 문화재 발굴조사단 실측조사에서 “높이 50cm, 청동으로 제작되었으며 보기 드물게 상품상생 수인을 하고 있어 문화재 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준엽 기자

스님 42명, 교정교화 과정 수료

지난 9월 경기대 대학원 제3기 교정교화 전문화과정에 입학했던 42여 명의 대전 · 충청지역 스님들이 3개월 간의 교육을 마치고 11월 25일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졸업과 동시에 범죄예방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스님들은 재소자 교화 외에 지역의 범죄예방 활동에도 나서게 된다.

특히 42명 가운데 교정교화 활동을 하지 않았던 30명의 스님들은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교도소와 소년원 등에서 곧바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옥천사암련, 대덕연구단지 견학



옥천사암련 스님들이 대전과 충남북 지역 개신교 가톨릭 종교인들이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 초청으로 11월 22일 대덕연구단지 개발특구 첨단과학기술현장을 둘러보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사진).

옥천사암련 회장 지원 스님과 총무 혜철 스님 등 옥천사암련 스님 5명은 22명의 개신교 천주교 성직자들과 함께 한국에너지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을 견학하면서 특구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키로 하는 한편, 지역에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역에 알리는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가평 백련사

가족 중심의 신행 도량



백련사는 체계적인 신도교육과 지역불교 참여를 통해 가평불교의 중심축으로 성장했다. 주지 승원 스님(앞줄 가운데)과 백련사 불교대학 3기생들이 졸업식후 찍은 모습.

잣나무가 거대한 숲을 이뤄 잣골로 불리는 가평군 상면 축령산 자락.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이 곳에 자리 잡은 백련사(주지 승원)는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을 주는 탁 트인 경관과 침엽수림이 한껏 내뿜는 특유의 내음을 품었다. 청정도량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만하다.

창건 8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백련사는 가평불교를 이끌어가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불교대학과 경전 강좌 등 체계적인 신도교육을 통해 빠르게 기반을 다졌고, 인근 군부대 법회 지원 등 지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사암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백련사는 이 같은 자연조건을 살린 수행 · 기도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대웅전 뒤편, 도량 앞쪽으로 각각 지어질 선방과 생활관이 그 곳. 대지 8000평 가운데 2000평에 지어질 선방과 생활관은 이미 산지전용 허가를 내놓은 상태로, 이르면 내년부터 건립불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선방은 여느 사찰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운영방식을 취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스님뿐만 아니라 재가불자와 수행을 원하는 가족 단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는 점이다. 또한 스님들의 경우 3개월 안거가 아닌 일주일 또는 보름 안거로 운영된다. 사찰 운영이나 포교활동 등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해 안거에 들 수 없는 스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백련사는 가족 중심의 신행이 이뤄지고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사찰을 지향한다. 이를 염두에 둔 주지 스님의 배려가 도량 곳곳에서 배어난다.

경전 강좌, 군 법회 지원 등 지역활동에 적극적

일반인 사용토록 선방, 부도전 등 불사 계획

요즘 백련사는 이 같은 자연조건을 살린 수행 · 기도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대웅전 뒤편, 도량 앞쪽으로 각각 지어질 선방과 생활관이 그 곳. 대지 8000평 가운데 2000평에 지어질 선방과 생활관은 이미 산지전용 허가를 내놓은 상태로, 이르면 내년부터 건립불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선방은 여느 사찰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운영방식을 취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스님뿐만 아니라 재가불자와 수행을 원하는 가족 단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는 점이다. 또한 스님들의 경우 3개월 안거가 아닌 일주일 또는 보름 안거로 운영된다. 사찰 운영이나 포교활동 등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해 안거에 들 수 없는 스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백련사는 가족 중심의 신행이 이뤄지고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사찰을 지향한다. 이를 염두에 둔 주지 스님의 배려가 도량 곳곳에서 배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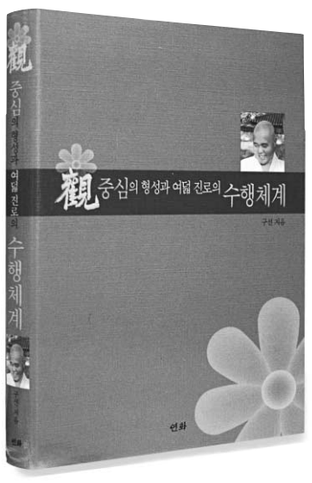
가족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부도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1기당 1가족을 봉안하는 가족부도전은 가족 대대로 사용할 수 있고, 20~30명을 한 부도에 안치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백련사에서 수계를 받거나 백련사를 원찰로 삼은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가족납골을 절에 봉안함으로써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고, 후손들도 절에 다닐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이 주지 승원 스님의 생각이다.

이 외에도 승원 스님은 가평군 사암연합회 결성과 서울 도심 포교당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031)585-3855

박봉영 기자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한 경계에 집착하면 그 최가 수미산 같고,
한 경계를 저버리면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이러할 때 그 한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그로써 나와 경계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맛볼 수 있다.
수행자라면 한 경계를 통해 여덟 진로의 수행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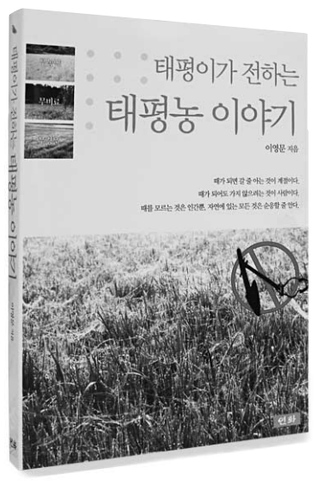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수레바퀴에 비유된다.
바퀴의 살이 하나만 빠져도 바퀴 전체가 찌그러지듯이,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구선 지음 / 312쪽 / 값 18,000원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는 필자가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이며, 또한 팔 년 동안 후인들을 지도하면서 얻어진 결과들이다. 때문에 누구라도 닦아서 체득할 수 있는 법들이다. 수행자가 비록 자성의 공(空)함을 인식했더라도 이처럼 여덟 가지 진로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제도하는 것과 주변 경계와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여덟 가지 일로서 원만해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깨달음만을 추구하고 그 이외의 삶들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따가운 질책을 가한다. 특히 수행한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또 다른 존재와 원만하게 어우러지지 못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한다. 한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경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맛볼 수 있다고 말한다. 목전에 처해진 한 경계를 그냥 도외시 하지말고 그를 통해 여덟 진로로 자기를 발전시켜 갈 것을 주장한다.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때가 되어 갈 줄 아는 것이 계절이고
때가 되어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르는 것은 인간 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응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도 외딴 곳 별학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꾼 이영문이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히 농사짓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영문 지음 / 368쪽 / 값 10,000원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섬이라는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상대학교 농대 교수)

도서출판 연화 TEL 02)302-8145, 054)682-7770 / FAX 054)682-8155 http://www.kwan.or.kr

문화·복지 포교로 불심 지핀다



춘천 포교 1번지 삼운사는 교육·복지·포교·신행 등을 통해 춘천불교를 이끌어가고 있다. 사진은 강원지역 최고의 시설과 경쟁률을 자랑하는 삼운사 유치원 원아들의 율동 모습.

강원 춘천·철원·홍천

춘천, 신행단체 잇따라 결성
철원, 심원사 불자교육 앞장
홍천, 사암련-신도회 화합 주도

춘천

강원도청 소재지이자 호반의 도시 춘천. 춘천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세가 강한 곳이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불교는 이렇다할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을 정도로 불교 불모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1980년대부터 꾸준히 성장해 온 춘천불교는 이제 어느 정도 제 색깔을 내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운사 석왕사 봉덕사가 있다.

1980년대 춘천불교를 주도했던 사찰은 봉덕사다. 1971년 봉덕사를 창건한 조계종 비구니 원로인 각림스님은 80년대부터 포교에 뛰어들었으며, 제자이자 현 주지인 혜욱 스님이 그 뒤를 이어 춘천불교문화원을 열어 각종 문화프로그램과 신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불을 지폈다.

이어 1991년 강원불교대학으로 신도교육과 포교에 나선 석왕사가 초중고 법회와 복지활동 등을 병행하면서 90년대 춘천포교를 주도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삼운사가 교육·포교·복지·신행 등 종합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춘천불교를 리드하고 있다.

춘천 포교 1번지로 자리잡은 삼운사는 춘천노인종합복지관, 강원도노인학대예방센터, 춘천노인인력지원기관 등 3개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복지에 나서는 한편, 어린이·학생·청년·합창단·가족 법회 등을 운영하고 24시간 사찰을 개방해 신행문화를 확산시켰다.

그리고 지난해 춘천금강불교대학을 개설해 신도교육에 나서면서 명실상부한 종합도량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입학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삼운사 유치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새싹포교를 주도하고 있다.

석왕사의 활동도 여전히 활발하다. 강원도 최초의 불교대학인 석왕사 강원불교대학은 춘천불교 재가리더 대부분이 강원불교대학 출신일 정도로 춘천불교인재의 산실로 자리 잡았으며, 룸비니유치원과 각종 복지 및 사회활동을 통해 불교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봉덕사는 산사음악회와 퇴계연꽃어린이집으로, 부흥사는 복지와 방송포교로, 보타사는 납골당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지역 신행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경찰청·시청 불자회와 거사림회인 불이회, 춘천불교청년회 등이 정기법회 등을 통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암연합회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대불련과 고등학생불교회 활동이 회원 부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춘천불교가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철원

인구 5만명의 철원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최전방 지역이다. 당연히 군부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지역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작농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것 말고 뚜렷한 특징은 없다.

철원불교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특징이 없다. 사찰수는 15곳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다할 활동도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심원사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군법당인 청원사가 심원사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군 포교에 적극 나서면서 새 활로를 열고 있다. 여기에다 도피안사가 불사를 마치고 포교와 복지에 뛰어들 계획이어서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철원불교의 중심인 심원사는 3년 전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해 기복적 성향이 강한 지역불자 교육에 나서는 한편, 봄·여름 가을 세 차례에 걸쳐 각각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봉행하는 등 국내 최고의 지장도량 이미지를 갖춘 기도처로서 지역불교를 이끌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민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사중 스님과 사찰 직원들이 지역민들과 배드민턴 경기 등을 하며 거리 좁히기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불교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시설을 건립해 본격적인 포교에 나설 계획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년 전 창립된 사암연합회가 이름뿐이라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사찰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어 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철원불교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홍천

홍천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사찰 수는 40여 곳이며, 전통사찰인 수타사와 아미타 도량인 연화사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홍천불교의 특징은 다른 지역과 달리 사암연합회가 독특한 형태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30여 회원사찰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돌아가며 군부대법회도 열고 있다. 여기에 지역 신도회가 참여해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갖추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홍천불교는 통일시대가 열릴 경우 홍천이 한반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이를 대비한 준비를 차분히 해가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어린이·군·노인 전방위 포교

도후 스님 (철원 심원사 주지 · 불교방송 이사장)



철원불교의 리더. 도후 스님은 심원사를 철원의 대표사찰로 확고히 자리매김 시킨 한편, 군 포교 등 활발한 포교활동을 통해 철원불교 모습을 바꾸어놓았다.

또한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해 정법신행을 뿌리내리는데 진력하면서, 경로잔치 등을 통해 지역민에게 친근한 불교 이미지를 심고 있다.

각종 불사를 통해 심원사 사격을 갖추어놓은 한편, 연천의 옛 심원사 터에 법당(원심원사)을 짓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 복원불사에도 주력하고 있다. 후학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등 불교인재양성에도 적극적이다.

노인요양원과 어린이집 운영을 계획 중이다.

현재 불교방송 이사장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사단법인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으로서 종단과 불교 언론 및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돌 직접 나르며 11년간 불사

도견 스님 (철원 도피안사 주지)

11년 전, 절 모습만 남아있던 도피안사 주지로 부임해 법당, 설법전, 종각, 금강문 등의 불사를 통해 사격을 갖추어놓았다. 돌을 나르는 등 직접 불사에 참여, 도피안사 곳곳에는 도견 스님의 땀이 묻어 있다.



앞으로도 석조지장보살, 천불전, 일주문, 전통찻집 등을 건립해 도피안사를 명실상부한 기도도량이자 생활도량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불사가 마무리되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복지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사찰자립경영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며, 개인전을 열었을 정도로 사진에도 일가견이 있다.

불교대학·유치원 운영

백운 스님 (춘천 석왕사 주지 · 태고종 강원교구종무원장)



백운 스님은 춘천불교의 역사로 통한다. 1972년 석왕사에 온 이래 33년간 활동하면서 춘천불교의 입지를 다진 일등공신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불교 불모지였던 춘천에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대학과 불교유치원을 열었는가 하면, 10년 전 템플스테이와 같은 '산사의 하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포교로 춘천불교 발전에 공을 세웠다. 또 8년간 춘천사암연합회장을 맡아 지역 화합에도 기여했다.

25년째 춘천교도소 종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춘천소년원 종교위원, 강원 경찰청 경승으로서 활발한 지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태고종 교무부장을 맡고 있다.

지역불교 발전 핵심동력

법선 스님 (춘천 부흥사 주지)



법선 스님은 20여 년간 사암련 소임을 맡아 발로 뛰며 춘천불교 발전에 땀을 쏟았다. 지역 신행단체, 군경, 대학, 복지계 등 법선 스님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사회활동을 통한 포교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소신으로 춘천교도소 교화위원, 춘천소년원 선도위원, 춘천경찰서 경승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춘천사암련 사무총장, 태고종 강원교구 포교원장, 강원불교연합회 간사 등을 맡아 불교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춘천불교방송 운영위원이자, '마음의 창을 열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방송포교에도 주력하고 있다.

아미타불 성지 조성 헌신

화담 스님 (홍천 연화사 주지)



11년 동안 동양 최대의 아미타불과 대규모의 법당 불사로 연화사를 아미타 기도도량으로 일궈냈다. 또한 활발한 지역 포교 활동으로 홍천불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각종 축하연때 지역민들에게 회관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독거노인과 불우 청소년 돕기에도 적극적이다. 신도들에게는 생활불교와 실천행을 강조한다.

화담 스님은 연화사를 아미타 부처님 성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아래 일주문 불사 등 마무리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총화종 중앙종회의장으로서 종단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복지관 3곳 운영 활동 왕성

월도 스님 (춘천 삼운사 주지 · 춘천노인종합복지관장)



춘천의 스님들로부터 '춘천불교의 보배'로 불리는 춘천불교의 인재. 열린 마인드와 추진력, 그리고 친화력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하고 활발한 포교활동으로 삼운사를 춘천불교 1번지로 자리매김 시켰다.

월도 스님은 '종교를 위한 삶보다는 삶을 위한 종교'가 돼야 한다는 신념아래 생활불교·실천불교를 강조한다. 춘천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복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춘천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강원도사암연합회 부회장, 강원 경찰청 경승, 춘천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맡고 있으며, 천태종 총무국장과 성남 화성사 주지를 겸하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불교계 최초 산사음악회 열어

혜욱 스님 (춘천 봉덕사 주지)

월도 스님과 함께 춘천불교의 인재로 꼽히는 혜욱 스님. 비구니스님으로 포교에 대한 재능과 열정은 누구보다도 강하다. 실력과 온화함을 갖추고 있어 신도들과 지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1986년 춘천불교문화원을 열고 10년간 활동하며 문화포교의 지평을 열었다. 1996년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산사음악회를 연 장본인이기도 하다. 강원도 최초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열기도 했다.

복지·포교·문화 등 각 분야의 젊은 스님들을 초빙해 젊은 세대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강연회를 열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복지시설·불우이웃 지원

진철 스님 (춘천 보타사 주지)



진철 스님은 1986년 보타사 주지 소임을 맡아 불사를 시작, 사격을 갖추고 복지시설과 불우이웃,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통해 포교에 나서고 있다. 지금도 불우아동을 키우고 있을 정도로 아이사랑이 남다르다. 올 5월에는 납골당 '연지원'을 건립했으며, 중국 개원사와 자매결연하고 교류에 나섰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비를 지원해 불자인재로 키우고 싶다는 발원을 하고 있다.

蓮

최고급 천연 연꽃 미백기능성 화장품 蓮

흙탕물에서 고운꽃을 피워내는 우수한 정화능력과 중금속에 대한 저항이 놀라운 연꽃에서 정제추출한 연꽃 추출물은
피부에 대한 보습효과가 매우 우수하며 지속사용시 피부의 탄력을 증대시켜 활기차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게 합니다.
여기에 천연월귤나무에서 추출되는 미백성분인 알부틴을 함유시켜 피부를 맑고 희게 유지시키는 기능성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피부 항상성에 대한 최선의 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옛부터 연꽃향은 정신을 맑게 하고 안정되게 해준다하여 정진(精進)하시는 분들이 늘 가까이 하였다고 합니다.

연<련>


- 50g -

최고급 천연 연꽃 미백기능성화장품 蓮
– 식품의약안정청 미백 기능성 허가
– 날듯 말듯한 은은한 연꽃향
– 천연 식물성이므로 모든 피부타입에 적합
– 피부에 보습과 영양을 주어 생기있는 피부유지



순식물성 천연연꽃 미인비누
– 연꽃에센스오일이 첨가된 순식물성 천연 연꽃 비누
– 연꽃향이 아주 좋으며 뛰어난 보습효과가 있음
– 세안시 당기는 감이 없고 피부보호막이 형성하여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주어 생기있는 피부를 느끼게 해줌
– 알레르기나 민감한 피부에도 좋음

※스님, 불자님, 공부하는 학생, 진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 등을 위해 만든 최고급 천연 연꽃미백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구성 천연 연꽃 미백기능성화장품 蓮 1개 + 순식물성 천연연꽃 미인비누 2개
종류 여성용, 남성용
가격 ~~78,000~~ → 48,000원 (출시기념)

문의전화 (02)420-4460 (농협) 128-02-202744 김화경
제조원 : (주)스킨케어 판매원 : 연꽃미인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대는

이 무슨 물건인가

선원장, 禪의 원류를 찾다

– 중국 선종 초조에서 8조까지

7조 남악회양 : 신룡 스님 (설악산 백담사 무금선원장)

복엄사 · 마경대



'천하법원'이란 현판아래 '6조 고찰' '7조도량'이란 주련이 걸린 복엄사 산문.

길은 사유(思惟)의 계단이다.

어떤 길 위에 서있느냐에 따라 생각의 깊이와 결과가 달라진다. 또한 어떤 사상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상을 품고 있는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번 선원장스님들의 '선의 원류를 찾다'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옛 우리 조사스님들을 북돋워 준 그러한 힘들은 지금도 우리들 속에 남아 있는 것일까?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들도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

중국의 평야는 하늘과 평야가 서로 마주 보며 펼쳐진 듯 끝없는 지평선을 지니고 있다. 사방을 둘러보면 온통 광활한 들판 뿐, 벼와 수수의 누런 이삭들이 파도의 물결처럼 끝없이 출렁인다.

양자강 이남의 최고 명산인 호남성 남악 형산은 드넓은 호남평야 한 가운데 있다.

남악 형산은 조사선의 우뚝한 봉우리인 남악회양 선사와 석두희천 선사가 법을 펴신 곳이고 마조 스님께서 깨치신 곳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은 6조 혜능대사가 주석했던 광동성 조계와 함께 중국 선불교 남종(南宗)의 양대 성지로 불린다.

강서(江西)의 으뜸은 마조, 호남(湖南)의 으뜸은 석두라는 말에서 강호(江湖)라는 말의 유래가 됐다 하듯이 선종사(禪宗史)의 흐름으로는 남악에서 발원한 가느다란 물줄기가 둘로 나뉘어 산을 내려와 드디어 도도한 대하가 되어 중원을 흠뻑 적셨고 급기야 한국, 일본까지 덮게 되었던 것이다.

회양 스님께서 계셨던 복엄사(舊 반야사)와 묘탑(墓塔), 그리고 마조 스님께서 오도(悟道)하셨던 마경대(磨鏡台)는 척발봉(擲鉢峰: 복엄사 창건주인 천태종의 남악혜사 선사가 황제의 부름을 받고 떠날 때 이 봉우리에 올라 자신이 쓰던 발우를 내던진 데서 비롯된 이름) 이라는 산봉우리 아래 산록에 자리하고 있다.

굽이굽이 남악의 허리를 감아돌며 솔숲 길을 오르다보면 천오백년 고찰을 에두르고 있는 담장이 보인다.

비록 문화혁명때 불상들의 파괴를 피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아담한 규모의 절로 잘 복원되어 있었다.

복엄사는 위진 남죽조 시대에 창건된 옛 절로 산문 위에 걸린 '천하법원(天下法院)'이라는 가로 편액과 양쪽 기둥의 '6조고찰(六朝古刹)' '7조도량(七祖道場)'이라는 주련이 이 사찰의 정체성(正體性)을 대변해 주는 듯 했다.

산문 앞 솔숲 그늘아래 서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노라니 내 마음 깊은 곳으로는 천년을 이어져 오는 맑은 수액이 흐르고 혜사선사께서 '지관선(止觀禪)'을 설한 <대승지관법문>을 이 절에서 저술하시던 일, 회양 스님께서 마조 · 석두스님과 법거량을 나누셨던 일, 자명초원스님께서 이 절의 방장으로 계실 때 황룡혜남 스님을 견성(見性)케 하신 일 등, 바람결에도 은은히 묻어오는 그 옛 향기가 들리는 듯 하였다.

복엄사는 산문, 지객청(知客廳: 절의 손님을 맞는 응접실), 악신전(岳新殿: 창건 당시부터 산신을 모셨는데 문화혁명때 파괴되고 80년대 초기부터 등소평, 강택민 등의 전향적인 종교정책으로 대부분의 다른 절들처럼 복원된 것), 대웅전, 조사전, 설법당의 순서로 복원되어 있었다. 선종 사찰로 특이한 점은 산신을 모신 악신전과 대웅전 안에 가람 수호신상을 모신 점일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남악 형산이 중악 숭산, 동악 태산, 서악 화산, 북악 항산과 함께 중국 5대 명산(五嶽)의 하나로 예부터 종교의 성지로 이름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남악 최초의 불교사찰로서 민족종교인 도교를 포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역사적 흔적인 듯 했다.

선방은 재당(齋堂: 식당)과 더불어 사원 양쪽으로 고저 균형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동서당(東西堂) 식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국절들처럼 지붕을 올린 행각과 보도가 이어지는 회랑형식의 가람 배치양식이었다. 복엄사에는 현재 20여분 가량의 스님이 계시는데 아침 저녁으로 잠시 앉아 있을 뿐, 체계적인 선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육조 스님께서도 동정일여(動靜一如)의 가르침으로써 형식적인 좌선수행보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을 강조하셨으니 외형적인 모습으로 어찌 평할 수 있으랴. 그리고 복엄사와 더불어 몇 군데 선종사찰의 식당에서는 거사, 보살들이 스님들과 양쪽으로 나뉜채 의자에 앉아서 같은 방식으로 발우공양(사기그릇 2개로 대용)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육조 스님께서 설파한 자유 평등의 가르침(범성일여:凡聖一如)이 아직도 전해 내려오는 듯 하여 도리어 신선하게 느껴졌다.

돈오 남종선이 지닌 선사상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며 사회 역사적 각도에서 보면 분명히 해방사상이고 혁명사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모택동과 강택민이 평소 <육조단경>과 <금강경>을 애독했었다는 기록과 등소평, 강택민, 후진타오에 이르기까지의 불교를 염두에 둔 듯한 일련의 종교 개방 정책도 문화혁명과 천안문 사태, 티베트 무단점령 등으로 그들이 무수한 인명과 불교를 희생시켰던 장본인이라는 점과 함께 정치와 종교의 영원한 패러독스를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창건 당시로부터 내려오는 호포천(虎跑泉)이라는 샘물과 혜사 선사가 계를 주셨다는 은행나무, 소동파의 화두 '계성산색(溪聲山色)'의 글자가 음각된 깎아지른 듯 서있는 일생암(一生岩)이라는 바위 등을 바라보자니 세월의 온갖 풍파에도 옛 모습을 잃지않은 의연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어 '제행(諸行)이 무상(無常)인데도…' 하는 깊은 감회와 함께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게 했다.

▲법을 깨치신 인연(悟道機緣)

남악회양(南嶽懷讓, 677-744) 스님은 열 다섯의 나이로 율종(律宗) 사찰에서 출가하여 약관 스무살에 계를 받았다. 한동안 계율 수행에 몰두했으나 늘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던 스님은 숭산에 계시던 혜안(慧安) 선사의 권유로 광동성 조계 남화사의 육조 스님을 찾아 뵙는다.

육조: 어디서 왔는가?

회양: 숭산에서 왔습니다.

육조: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회양 스님은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다가 8년만에야 홀연히 깨치게 된다.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회양 스님은 다년간 계율을 연구할 정도로 무척 성실한 성품이셨으나 우리와 같은 진정한(?) 범부(凡夫)였다. 역대 33조사와 하물며 육조 스님의 의발을 뺏으러 쫓아왔던 혜명 스님까지도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않을 때 어떤 것이 수좌의 본래면목인가?' 라는 육조 스님의 한 말씀 아래 바로 근본을 깨칠 정도로 대개 언하대오(言下大悟) 하셨건만 스님께서는 우리처럼 오랫동안 참구하셔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로써 '이 뭣고?(是甚麼?)' 화두 운수납자의 시조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8년동안 때로는 육조 스님 밑에서, 때로는 여러 해 여러 곳을 빈 들녘의 바람처럼 떠돌며 길가에 피어난 들꽃에서도, 잘 익은 이삭들 위에서 빛나는 햇빛에서도, 들판의 무덤 옆에서 홀로 잠들며 수천 개의 반짝이는 보석을 바라보면서도 끊임없이 궁구하셨을 것이다. 깨치신 뒤 다시 육조 스님께 여쭙는다.

회양: 제가 확실히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육조: 그것이 무엇인가?

회양: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說似一物卽不中).

육조: 가히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 것인가?

회양: 닦아 증득함이 없지는 않사오나 때묻거나 더럽혀질 수는 없습니다.

육조: 때 묻지도 더럽혀질 수도 없는 바로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애써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대도 그렇고 나 또한 그러하다.

후대(後代)의 황벽 스님께서 '깨쳐 안 마음은 텅 빈 허공과 같아 생사의 지배도 받지 않으며 툭 트이고 고요하다. 밝고 오묘하며 안락할 따름이다. 생각을 움직였다 하면 바로 어긋나 버린다'라 하신대로 깨침의 경계에 대해 누구든지 표현하려 하면 미개구착(未開口錯: 입 벌리기 전에 이미 그르쳤다는 뜻)이 될 뿐일 것이다. 그런데도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감히 사족을 붙여본다. 무릇 회양 스님께서 깨치시고 나서도 닦아 증득함이 없지 않다함은 무엇인가? 무수지수(無修之修: 닦음이 없이 닦는다는 도인의 보림행)이든, 보현보살의 원력행(願力行)이든, 어찌 돈오돈수(頓悟頓修: 몰록 깨치고 나면 더이상 닦을 것이 없다는 뜻)만을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있겠는가? 또한 더럽혀 질 수 없다함은 본자성불(本自成佛: 본래 스스로 부처임을 갖추고 있음)이요, 불성상청정(佛性常淸淨: 우리의 본 마음은 항상 깨끗한 채로 있음)이라는 육조 스님 말씀처럼 어찌 돈오점수(頓悟漸修: 몰록 깨치고도 익힌 업이 남아 있기에 더 닦아야 함)만을 가리킨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중봉(中峰) 스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쳐 알아 그 진면목을 밑바닥까지 도달하고서야 실천 수행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절로 알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마조의 초암자리에 후대 마조법손들이 지은 전법원(傳法院)자리는 복엄사로부터 1㎞ 떨어져 올라가는 길목인 삼거리에 있다. 한때는 남악빈관이라는 이름의 호텔이었으나 현재는 '항일역사기념관'이 되어 있었다. 기념관에서 일백 미터쯤 산 위로 올라가는 길 왼쪽 밑에 '마경대'라는 돌푯말 뒤로 '조원(祖源)'이라는 큰 글자가 새겨진 넓적한 바위가 보인다. 이 바위가 바로 남악이 기와를 갈아 거울을 만들겠다는 비유로 마조를 깨우친 '마전작경(磨磚作鏡)의 현장이다. '조원'이라 쓰여진 바위 위에 조용히 앉아 본다. 지나간 내 삶의 물결이 이곳에서는 고요한 불꽃이 되고 모든 것들이 온 곳으로 되돌아가는 듯 했다.

내가 만일 당시의 마조 스님이었다면 회양 스님께서 내 앞에서 비록 기와를 갈고 계신 다해도 모른척 하고 이렇듯 그냥 앉아만 있었을텐데…, 그러면 성실한 성품의 스승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끙끙대며 기와를 갈고 계시지 않았을까?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며, 결제철마다 신명을 바치고 용맹정진하는 2천여 수좌스님들과 뛰어난 선지식들께서 하나 둘 세연을 다 하시고 열반에 이르는 선가의 오늘을 생각하노라니 불현듯 두 눈에는 호수가 어리고 물결이 일렁거렸다.

남악회양의 묘탑은 전법원 자리인 역사기념관이 내려다 보이는 조금 윗쪽 언덕에 모셔져 있는데 높이 2m쯤되는 정육면체 2층석탑이다.

기단석에는 황벽 스님의 제자였던 당나라 재상 배휴의 글씨로 '최승륜탑(最勝輪塔)'이라는 탑명이 음각돼 있었고 탑 뒤로는 중앙에 '선종7조회양대혜선사탑(禪宗七祖懷讓大慧禪師塔)'이라는 비명이 석벽에 박혀 있었다. 남악회양 선사는 일평생을 거의 이름 없는 수행자로 살았으나 선종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의 최대 업적은 선불교의 심요(心要)인 '돈오(頓悟:本自成佛)와 평상심(平常心)'을 마조에게 전한 것이라 하겠다. 돈오를 가능케하는 원천은 일상생활 속의 늘 변함없는 평상심이다.

그 어떤 진리의 이론도 구체적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질없는 관념의 유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불법(佛法)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말씀처럼 지금 바로 볼 수 있고 실천되고 증명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성숙된 인간을 가늠하는 잣대도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는가? 아니면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선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는 평상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을 것이다. 평상심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모든 날이 다 최고의 날(日日是好日)'이 되지 않겠는가?

저 유명한 조사선의 씨앗인 남악회양 선사의 유골이 모셔진 묘탑앞에서 합장하고 서 있노라니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내면의 지켜봄이 간절해져서 절대의 세계 속에 현실이 함께 녹아드는 듯 하였다.

▲머나먼 도정(道程)속에서…

회양 스님의 8년 참구나 이번 선원장 스님들의 성지순례처럼 어차피 우리의 전 생애도 '진리 아닌 것에서 떠나 진리로 가는' 순례의 여행길이다.

우리는 부자로 사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었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법은 갈수록 퇴색해갔다. 우리를 삶에서 지쳐 쓰러지게 하는 것은 비단 가난이나 병 따위만은 아니다. 더 근원적인 무엇, 무의미함,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일상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독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 내가 산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나'란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이 존재의 근원적인 진실이란 말인가? 자기 신뢰의 이유를 알아야만 모든 근본적 행동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 · 연기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적 신뢰의 바탕이 되는 이 '본래의 나'란 무엇인가? 선(禪)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존재의 속알맹이를 똑바로 꿰뚫어보는 내적인 자각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최근 들어 모 학자는 '이뭣고' 화두는 선불교의 고향인 중국에는 없었고, 화두를 의심하는 것보다는 '무'하며 본래심을 지켜가는 공부가 낫다고 말하며, 화두도 여러가지로 공부하면서 지혜와 이해를 증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종교는 왜 있는 것이며 그러한 종교행위로서의 수행법은 왜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열반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화두공안' 또한 이러한 관문을 열기 위한 창문이요, 열쇠다.

우리의 근본 마음 자리를 어떻게 머리로 풀 수 있겠는가?

누구든 일단 공안을 머리로 풀려고 덤비면 마치 끈끈이 종이에 달라붙은 파리처럼 헤어날 수 없게 되며, 그 본질을 잃게 된다. 위대한 선사는 언제나 공안을 갖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 넣는다. 우리는 그 궁지와 순수한 화두의심 속에서 문득 내면의 눈을 뜰 수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리석음과 미망이 꿈과 같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화두 의심은 재미 없어서 하기 싫어 한다면 어찌 해야 할까?

물론 우두종에서처럼 공(空)을 관조하면서 하는 공부도 있고 조동종에서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묵묵히 비춰 보면서 하는 공부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조계종의 '종지 종통'은 간화선에 있으며 간화선에서는 화두 의심이 생명이다.

순수한 의심은 의식을 맑게 하고 자기 존재 전체로 직접 체험하는 통찰력을 생기게 한다. 또한 선을 포함하는 대승불교의 전통에서는 인간 숙명에 대한 통찰이 주로 연민이나 자비로 표현된다. 순수한 직관(화두의심)에서 오는 통찰력을 개개인의 존재가 온 몸으로 체험하는 자체가 고통스런 현상계로부터의 도피를 즐기는 대신에 현상계 안에 머물면서 그것이 곧 열반임을 발견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공부를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탄생과 죽음의 굴레에 갇혀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부처와 동일시하는 자비로운 사랑이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인생이란 어차피 행복과 고통의 세세한 사건들이 정교한 무늬를 이루고 시련도 그 무늬를 더해주는 색깔일 것이다. 아무런 열정도, 마음의 갈등도 시련과 좌절도 없이 사는 인생이 어찌 바른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정이 이러한데도 성실하게 의심을 지어 가기보다는 인스턴트 깨침을 굳이 원한다면 어찌 해야 할까?

억천만겁(億千萬劫)토록 생사고해(生死苦海)에 헤매이다가 난중우난(難中又難)인 인신(人身)과 불법(佛法)을 만났지 않았는가!

참구하여서 설사 깨치지 못하더라도 진실한 공부인은 길이 무상도의 종자가 되어 세세생생 악취(惡趣)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역대 조사가 중맹세를 맺지 않으셨는가!

때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눈을 돌리면 곧 내생인데 스스로 퇴타를 달게 여겨 하열하고 우치한 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닫힐듯 열리는 천문(天門)
아, 동녘 달이 또 돋는다.
무산오현 '일월' 中에서

지금 설악산에는 낙엽이 떨어져 바닥과 길을 온통 단풍색으로 물들였다.

낙엽지는 길을 홀로 걸으면 그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옛 조사스님께서는 가만히 듣고 계신 것 같다. 조용함을…, 먼 세계를…, 끝없이 흐르는 참된 영원(眞常)을… **사진제공=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돈오와 평상심 전한 조사선의 씨앗…이름없는 수행자로 살아
'기와 갈아 거울 만들겠다'는 일화의 현장 '조원'서 새로운 감회



회양선사가 '기와를 갈아 거울을 만들겠다'는 일화를 남긴 마경대에 새겨진 '조원'이란 글자 사이에 앉은 필자.

신룡 스님은 1971년 수원 용주사에서 정대(正大)스님을 은사로 출가, 전강 스님에게 계를 받았다. 전강 스님과 송담 스님의 3년씩의 시봉을 거쳐 봉암사 해인사 송광사 남국선원 무문관 등 제방선원을 돌며 정진했다. 1999년 백담사에 입방한 후 2002년부터 백담사 무금선원장과 조계종 교육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소임을 맡고 있다.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빈그릇운동은 돌격부대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환경과 나눔' 의식이 높아져 육군 3군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돌격부대 장병들이 잔반을 남기지 않은 식판을 앞에 두고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여주 돌격부대 빈그릇운동 실천 현장

군에서는 처음으로 10월 1일부터 빈그릇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 제20 기계화보병사단 돌격부대. 돌격부대는 요즘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빈그릇운동을 시작한 이후 잔반량이 1/3로 줄어 잔반을 사료로 쓰던 농민들로부터 '항의 아닌 항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비싼 사료값을 덜어 주던 '대민봉사'를 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돌격부대의 빈그릇운동 현장을 들여다본다.



잔반 줄이기 "돌격~" 한달만에 성공

군부대 처음 전개, 잔반량 크게 줄어

벌금으로 모은 성금 인도 어린이 구호기금으로

비움과 나눔 실천 부대로 '빈그릇운동 1호' 지정

"음식물쓰레기가 1/3로 줄었어요"

11월 22일 정오, 경기도 여주 돌격부대(부대장 김지환) 산하 제31전차대대 식당에 장병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다. 전차를 수리하다 온 작업복 차림의 장병, 초소 근무를 나가기 위해 총을 어깨에 걸고 온 장병, 새로 건설하는 막사 공사를 하던 장병 등 점심을 먹기 위해 온 모습이 다양하다.

이내 시작된 자율 배식. 각자가 먹을 만큼의 양을 식판에 옮긴다. 혈기왕성한 나이여서인지 일반인과는 '기본 양'이 다르긴 하지만 다들 음식을 담는 모습이 진지하다 못해 신중하기까지 하다. 돌격부대가 부대 차원에서 '빈그릇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대 취사반의 선임병인 이헌태 병장은 "부대 차원에서 빈그릇운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에는 시큰둥했으나 이제는 장병들이 스스로 음식량을 조절한다"고 귀띔한다. 이 병장은 또 "장병들이 반찬을 남기지 않다 보니 만들어야 하는 음식양도 줄어들어 조미료도 적게 쓰게 돼 결국에는 장병들의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다"며 부수적인 효과까지 설명했다.

이 병장의 설명대로 역시 식사를 마친 장병들의 식판은 깨끗했다. 이날 반찬으로 제공된 갈치와 닭의 뼈만 앙상하게 식판 한쪽에 모여 있을 뿐이다. 빈그릇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0월 중순 신병교육대 훈련을 마치고 이곳에 온 조민규 이병은 "신병교육대에서는 배식을 받고도 음식을 먹지 않거나 남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전한다.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씻던 손효진 상병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면서 식당에서 나던 악취도 사라지고 전반적으로 쾌적한 분위기로 변했다"고 자랑한다.

실제로 돌격부대는 빈그릇운동 실시 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빈그릇운동전 하루 평균 898.1kg이 나오던 돌격부대 전체 잔반(먹고 남긴 밥이나 반찬)량이 251.2kg으로 줄었다. 무려 65.8%가 감소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는 것.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면서 부수적인 파급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성과 인정…3군 전체로 운동 확산

돌격부대장 김지환 대령은 "에코붓다와 함께 빈그릇운동을 전개하면서 장병들의 '환경과 나눔'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고 있다"며 "돌격부대의 성과를 보고받은 3군사령관님은 3군 전체에 이 운동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소개했다.

김지환 대령은 이날 빈그릇운동 서약금과 음식을 남긴 장병들이 낸 벌금을 모아 조성한 성금 20만580원을 인도 어린이 구호기금으로 써달라고 한국JTS에 전달하기도 했다.

에코붓다 백혜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5조원에 이른다"며 "전 군(軍)이 빈그릇운동에 동참한다면 음식물쓰레기 39만 톤을 줄여 130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코붓다로부터 '군대 빈그릇운동 1호 기념접시'를 전달받은 돌격부대의 비움과 나눔을 향한 실천 진군은 이렇게 전 부대원의 동참속에 진행되고 있었다.

여주/글=유철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 빈그릇운동 동참 60만명 돌파

지난해 9월 5일 곽결호 당시 환경부 장관, 방송인 김미숙 · 전원주씨 등이 "나는 음식을 남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며 시작된 빈그릇운동.

불교의 전통문화인 발우공양을 응용해 정토회 에코붓다(대표 유정길)가 시작한 빈그릇운동이 시작 1년 2개월 만에 60만명이 동참하는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말 그대로 '국민운동'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성과다.

전국에 있는 정토회 지역본부에서 시작된 빈그릇운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 사찰은 물론 국회,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 군대, 이웃종교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10월 29일 기독교환경연대는 '생명밥상-빈그릇운동'을 진행, 개신교 교회들에 이 운동을 전파하고 있다.

또 각급 기관들도 각자 사정에 맞게 빈그릇운동을 변형해 실천하고 있어 주목된다.

운동을 시작한 이후 하루 100kg이 넘던 잔반량이 30kg 안팎으로 감소한 인천 부흥중학교는 교장, 교감 스님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의 90%이상이 빈그릇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또 서울 동작구는 변형된 빈그릇운동 '가나다 실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나다 실천운동'은 '가져가고(남은 음식 가져가기), 나눠먹고(반찬은 덜어서 나눠 먹기), 다 먹는(음식은 남기지 않고 다 먹기)' 운동의 줄임말.

에코붓다 유정길 대표는 "빈그릇운동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라며 "명실상부한 생활문화실천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우공양 '국민운동'으로 다른 종교계도 벤치마킹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이 11월22일 김지환 돌격부대장에게 '군대 빈그릇운동 1호'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돌격부대는 빈그릇운동 서약금과 음식을 남긴 벌금을 모아 조성한 성금 20만580원을 인도어린이 구호기금으로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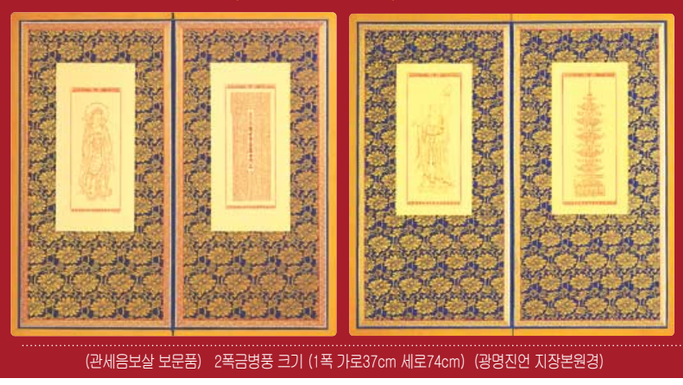


여주 돌격부대에서 열린 빈그릇운동 보고회에서 정토회 어린이회원들이 빈그릇운동 홍보 율동을 하고있다.

불경, 금책, 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 ·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호신용 소장용 영가천도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하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교육불사’ 원력으로 근현대사 ‘축’ 이뤄



‘동국대학’은 해방후 정규대학의 모습을 간추면서 국내 3대 사학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사진은 동국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첫 졸업식(1948) 모습.

100th 동국대 100년-불교학과 100년

불교학과 동문회, 12월 5일 첫 ‘총회’
장학회 출범… 내년 ‘불교학과 100년祭’

2006년 ‘동국대 100주년 불교학과 100주년’을 앞두고 불교학과 동문회가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회장 성광 · 권오현)가 12월 5일 오후 6시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호텔에서 연말총회를 개최하면서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문회는 이날 과 창설100주년을 맞는 2006년 주요 사업을 확정하고, 불교학과가 동국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동문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불교학과 동문회는 지난 5월 17일 ‘중흥총회’를 열고 출가회장에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 재가회장에 권오현 고심사 주지법사를 각각 선출했다.

2006년을 동국중흥을 위한 선도적 역할의 해로 천명한 불교학과 동문회는 내년 개교기념을 전후한 5월 7~8일 양일간 ‘불교학과 100년제(祭)’를 준비중이다. 100년제는 ‘불교학과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 ‘동국대와 불교’ 등을 주제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불교학과 100년사 초록’ 발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불교학 활성화를 위한 동문회 차원의 장학회도 본격 출범한다.

동문회 출가회장을 맡은 성광 스님(1972 졸)은 “동국대 불교학과는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 등 정치변동의 격동기를 거치면서도 부처님의 혜명을 면면히 이어왔다”며 “개교 100주년과 불교학과 창설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동국 발전의 초석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동문들의 의지를 한데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태고종 관음종 등 주요 종단 수장들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왼쪽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1972 대학원 졸),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1964 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1967 졸) 스님.

권상로 · 안진호 광학회 조직 불교 근대화 앞장
만해 스님 민족대학 자리매김에 주도적 역할
백성욱 등 사회 경험 토대로 학교에 발전 기여

現 생존 동문 1700여명, 대사회적 영향력 과시
교수 70 · 군법사 400 · 교법사 60 여명 배출
군종법사제도 생기며 40년 군포교 도맡아

■ 식민지 시대 민족교육의 산실

1906년 5월 8일 개교한 명진학교는 <대학>의 ‘대학지도재명명덕(大學之道在明明德)’과 불교의 ‘정진 · 정도(精進 · 正道, 노력 수양)’의 뜻으로 김석옹 홍월초 김보운 김포응 김현암 등 당대 불교계 대덕들의 현대식 불교교육을 통한 신문화 개명 발원으로 탄생했다.

학제는 2년제 정규과와 단기과정의 보조과로 정원 35명. 순수한 민족자본인 전국 16개 사찰의 출자를 바탕으로 지금의 동대문 밖 창신초등학교 터에 위치한 대법산(지금의 총본산) 원흥사에 교사를 마련했다. 초기 학생들은 전국 중법산(본사급)에서 선발한 13세 이상 30세 미만의 승려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원의 대교를 마친 30~40대 학생들이 입학해 뛰어난 한문 실력과 높은 학구열로 세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신학문 교육을 통한 포교인재 양성에 비중을 둬 포교법, 외국어, 측량학, 농업초보, 산술, 이과, 도서, 체조 등을 가르쳤다.

명진학교의 1908년 첫 해 졸업생은 강대련 강용선 권상노 김동선 심선은 박해운 이종욱 최용식 최환허 한용운 등 10명이었다. 특히 권상로 박사(동국대 총장 역임)는 뛰어난 학문적 업적으로 후대에 이름을 떨쳤다. 권상로와 안진호는 1908년 조직된 명진학교를 배경으로 광학회(廣學會)를 조직, 불교근대화를 이끌기도 했다. 친일 논란으로 업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종욱 스님은 해방전후 한국불교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 정규과가 아닌 보조과에서 일어를 전공한 만해 스님은 1908년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물을 접하고 명진학교 부설 ‘명진측량강습소’ 소장으로 부임했다. 일제 강점기 한국불교사에 큰 획을 그었던 만해 스님은 1918년 졸업생 모임인 ‘일심회’의 회장을 맡아 공식적인 동국대 초대 동창회장으로 기록되고 있다. 만해 스님은 젊은 불교계 인재들을 일깨워 동국대가 일제강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민족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1920년대 재학생이던 김대용 신상완 김법린 등은 정규대학격인 중앙불교전문학교(1930)로 승격을 주도적하기도 했다. 교우회지 <룸비니>는 함형수 서정주 조지훈 김달진 등 동국문학의 큰 산맥을 이뤘다.

본격적인 정규대학의 학제를 갖추기 시작한 1940년 교명을 혜화전문으로 바꾸고 흥아과(興亞科)를 신설하면서 재학생수는 300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불전 시대의 교우회인 ‘일광회’ 박윤진 박태석 조명기 정두석 황성민 문기서 등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제 말기 대다수 학생들이 군수공장과 학도병으로 징용을 당하면서 끝내 1944년 강제폐교 됐다.

해방과 함께 1946년 허영호 김동화 양주동 조명기 등의 노력으로 새롭게 동국대학 시대를 열었다. 경황이 없던 1950년 전쟁의 와중에도 동국대학은 부산교사(현 대각사)에서 수업을 계속 이어나갔다. 국가 재건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불교계의 역량이 동국대학으로 집중되면서 조계학원(동국대 재단) 이사장 이종욱 스님과 당시 문교부장관 김법린의 헌신적 노력으로 1953년 국내최초 종합대학으로 승격한다.

■ 불교학총본산 · 인재불사전당

동국대가 한국 불교학의 총본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된 것은 100여 년 동안 길러낸 수많은 인재들의 면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문회가 파악중인 현재 생존 불교학과 동문은 대학원 포함 1700여명.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대학원 1972졸)을 비롯해 제2 종단인 태고종 운산 스님(1964졸), 관음종 홍파 스님(1967) 등 주요종단의 현직 총무원장들이 불교학과 동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동국대 불교학과가 한국불교계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방부 소속의 군법사 130여명과 전국의 현직 교법사 30여명도 대부분 동문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역대 불교학과 출신으로 불교계뿐만 아니라 불교의 대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로는 단연 만해 스님을 먼저 꼽는다. 학문적 업적으로도 존경받았던 권상로, 김법린 등은 동국대 총장과 교육부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대학발전을 이끌었다.

2대 총장이면서 동문이었던 백성욱 박사는 1897년 서울에서 태어나 1910년 봉국사에서 최하옹 스님을 은사로 득도, 프랑스 유학파다. 백 총장은 남다른 추진력과 부통령 출마 등 다양한 사회경험으로 동국대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불교학과 출신으로 열린우리당 최재성 동문이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학의 발전에도 불교학과의 영향은 막강하다. 평생을 후학양성에 매진했던 권상로, 김법린, 서경보, 김동화, 원의범, 월운, 현해, 호진, 보광, 법해, 김삼룡, 목정배, 오형근, 권기종, 서윤길, 이평래, 권탄준, 조용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 불교학자들이 교학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교학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해 스님은 現 동국대 재단의 이사장이다. 모교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의 전임교수급만 70여명에 달하고, 전국 불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있는 불교교양대학 강사들의 대부분이 불교학과와 인연을 맺고 있다.

비구니계 원로 스님들 가운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前 회장 광우스님은 비구니로는 처음으로 동국대에 입학해 ‘남장(男裝)’을 한 채 등교했던 일화로 유명하다. 현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과 봉녕사 강주 묘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수현 스님, 봉덕사 주지 광옥 스님 역시 동문이다.

포교와 전법에도 100년의 전통은 고스란히 배어 있다. 신도들과 함께 하며 포교에 헌신했던 前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 前 포교원장 암도 스님,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계승사 주지 법진 스님, 도선사회주 혜성 스님,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 前 봉원사 주지 대운 스님, 용화사 회주 월탄 스님, 만덕사 주지 혜명스님이 그들이다. 재가자들 가운데는 (사)불교단체총연합 명예 회장인 이외윤 선생, 박완일 前 조계종 신도회장, 고순호 부산불교연구원장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1964년은 군종법사제도가 생겨나 국군 창설 후 타종교에만 허락됐던 군대내 포교가 시작되고, 산하학교에서 종교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불교학과를 졸업한 군법사 · 교법사들은 한국불교의 불교신행 형태를 180도로 바꿔 놓았다.

군법사 출신인 권오현 불교학과 동문회장은 “한국불교를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의식을 현대화 · 대중화 하는데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의 군법사와 교법사들의 역할이 대단했다”며 당시를 술회했다. 이 가운데 교법사로 교육계에 헌신한 인물로는 김교남 前 광동고 교장, 김봉식 前 홍제중 교장, 김종환 前 금산중고 교장, 이근우 前 청담정보고 교장, 이원주 前 명성여고 교장등이며, 군법사로는 권오현 고심사 주지법사, 前 1군사령부 이지행 법사, 김수창 국방부 서기관, 김말환 국방부 군종실장 등이 있다.

이밖에 언론출판분야에는 송금엽 월간 불교 편집인, 홍사성 불교방송 상무, 김형균 동쪽나라 대표, 이철교 동국대 출판부장, 최철환 동국대 역경원 부장이, 재계에는 홍영춘 前 SK(주)대표, 이재형 동국통상 대표, 권경욱 보명테크 대표, 관계로는 김기영 前 서울경찰청 차장, 박상국 국립문화재연구소 실장 등이 있다.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는 “이러한 인물들의 활동상은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생들이 불교계 곳곳에서 헌신해 왔던 발자취”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비 동국대 출신에 대한 배타적 편향을 지적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참고 <동국대학교 90년사> <동국인명록> 도움말 – 성광 스님 목정배 권오현 이재형 동국대 불교학과 (02)2260-3835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육임 활용도서 · CD프로그램 大 할인 판매

육임나라에서는 아래 **육임 활용도서 · CD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할인 판매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각자 필요한 육임 활용도서 및 CD를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1K 월영도 + 육임시보단정 + 효사숙사주 (성명학외 17종) 70만원
2K 월영도 + 육임시보단정 40만원
3K 효사활인천역집 + 월영도 + 효사숙사주 (성명학외 17종) 170만원
(효사활인천역집Ⅲ 업그레이드 판 CD 입니다)
4K 효사숙사주 + 육임시보단정 + 피타고라스 대점술 50만원
5K 육임대계전서 (전60권) 170만원

월영도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모두 해소시켰습니다.
또한 위 각 프로그램 보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내용 저장 기능
- 사주기둥으로 출생 년월일시 찾는 기능
- 사주기둥으로 회원 검색기능
- 월령도 지성법(도표) 활용법
- 효사숙 사주 프로그램(성명학 외 17종) 장착

※ 위 CD프로그램은 직접방문하여 설치해 드리고 활용방법을 익숙하게 알려드립니다.

■ 육임활용서
육임래정비법 (전1권) 15만원
육임래정비법휴대용 (전6권) 20만원
도사에게물어봐 (전1권) 1만5천원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좌정용 전12권) 50만원
육임래정비법혁신판 (휴대용 전12권) 70만원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전12권) 100만원
육임신수비결 (전1권) 15만원
각일각시택일출생비법 (전1권) 5만원

■ 육임학습도서
육임강의록 (전12권) 20만원
육임비요형이상법 (전1권) 5만원
육임운명판단법 (전1권) 5만원
육임세밀정단법 (전1권) 5만원
육임강의비디오 CD (전63개) 50만원

■ 주문전화 02)993-8680 (담당 : 이명옥)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 (주) 입금 통보 후 다음날 한진택배로 도착 됩니다.

육임연구반 모 집
■ 장 소 : 부산 영산대학교 서면 캠퍼스
■ 모집인원 : 육임 예측신과 (00명)
■ 강 사 : 공인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산지회장, 성민경
■ 문 의 : ☎ 051)556-8387

육 임 나 라 주 식 회 사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3~6 FAX 02)737-0696
▷ 계좌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가격 : 1Box(4.4×4.4) 4만원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	각	사	바라나비	경
안	49	륙	시			
식	재	재	식	물	춤	전

학인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당뇨, 고혈압 비만 희소식
(스님에 한해서 원가 제공)
- 제품명 : 비타그린(특허출원)
- 특 징 : 천연식품(환으로 제조)
- 항유영양소 : 천연비타민과 각종 미네랄
- 제품크기 : 1통(200g) 1개월분 3개월 복용 후 효과 없을시 환불
- 가 격 : 50,000원 제품시험성적서 및 자료제공
- 홈페이지 www.egreennara.co.kr
- 연락처 : 016-641-5211, 061)901-5211

역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강의
적중률 높은 학설로 누구나 쉽게 단기간 완성(역학·관상학)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2,4,5호선) 동대문운동장 해송빌딩3층

급 안내
준비되어있는 아이템
무료로 유통사업하실 분
불교선물 상품
특허출원중 SBS방송된 상품
성공이 보장된 아이디어 상품
• 조건:불자님, 유통경험있는분
017-533-1356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알 림
벌에서(양봉) 채취한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는 우리인체에 항균, 항산화, 면역증강을 시켜준다.
016-779-2237
일림사 도원 합장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빨빨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 전수자 모집
기초부터 특수반까지 여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무 작법무 기타 법무 개인지도 각 행사 대행해드림
영남불교전통범음범패전수원
051)554-1518
011-849-0961

정통 中國 六壬家의 소장비본 육임학 비법전수
- 평생운, 流年運, 인간사 吉凶의 정확한 예측법
- 육임 공부 후 課, 傳 해석이 안 되시는 분
- 타 지방 거주자 통신강의 가능
매월 2,4주 목요일 무료공개 강의
御定六壬學會
(어정 육임학 전문 연구학회)
055)362-2799
010-4850-3900

사주명리학 확실하게 배우실 분
사주,신수,궁합,택일,작명 기타
주2회(1회2시간씩) 4개월간 초보에서 간명연수까지 책임완성 (수강과 동시 부업가능)
6호선 망원전철역 2번출구 인근
해동명리교육원 02)336-8484

황토베게
- 한방신침: 장수, 일명 수험생 베개
- 국화꽃: 두통 스트레스 해소
- 결명자: 눈 밝아짐, 숙면, 두통
- 녹차: 심신안정
- 약쑥: 신경통등
단체주문 할인 판매점모집
0505-817-1425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720-5682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구병시식, 신명의식
011-850-0176

점안식, 천도재, 49재, 천수바라, 작법, 태평소, 사찰 재·의식
행사해 드립니다
010-9444-1608
무아 합장

학인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 무보시 제 2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1. 49재 의식, 천도의식
2. 다라작법 3. 사물
055)381-1199
055)383-6676

구 성 학
단지 숫자만으로 간단하게 길흉화복을 알수 있는 구성학(역학)을 책임지도합니다
배우기 쉽고 활용하기 쉽습니다
019-446-4755
(출장지도 가능)

열린건강교실
(한국생활익지공협회)
생활기공수련비디오
테이프/CD/DVD - 국내최초
가격 : 1만원(무료건강상담)
※웰빙기공산삼요법-후불제
대구시053)625-3118번
홈 www.gigong.ne.kr

사찰 女사무원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041)673-2333
011-9810-88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북지역
016-779-2237

가족같이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978-0530
010-6565-3290

야간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 전공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포항
017-502-731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남한산성 국청사)
011-212-9810

경동시장 한의원
(안채)한옥 1채
포교당이나 철학관운영하실분 명리, 역학, 동양의학에 관심있으신분 환영
(경동시장 제일학원 뒤)
02)961-8835
018-601-3389
서울 동대문구 천은당 한의원

노전스님 모십니다
(비구, 비구니스님)
50세이하 15년 넘으신 염불, 시달림, 기도 잘 하시는 분
월보시 200만원
경주시 강동면 왕룡사원
017-531-7770
054)762-426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011-483-5639

부전,기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안산
011-707-555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시 수영구
010-4656-5806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032)684-55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깊은 산속, 60세 미만)
011-696-8500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31)634-572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함께 생활하실 내외분도 환영합니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054)873-4838
011-538-23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의왕
031)459-3108

산사에서 고통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삼보전에 맡기시고 남은여생 마음편히 살아가실 불자님 모십니다
안락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동참금: 2천만원
018-406-3073

공양주, (女)사무직, 비구니부전스님 신원확실하고 건강한분 모십니다
(40~50대) 조계종 사찰
011-828-3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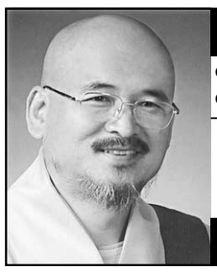
부전스님(비구,비구니) 모십니다
042)282-9270
042)282-7188

신축사찰불사중입니다 공부하실분이나 기도정진하실분와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055)342-0379
011-856-4578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위치 : 조계사 앞
02)735-0108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관음기도 성취도량
- 교통 사통팔달 산세수려 기도하는 분위기
- 최신식 실버타운 심신수련 기도처
- 독방사용, 숙식제공, 저렴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 편안하게 모셔드립니다 ●선착순
010-9367-5982
주지 법사는 관음기도로 가피받은 사찰임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FAX 051)867-7438
부산 송광정사 階設 051)867-8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대한불교전통조계종 행자모집
스님 되실 분 남 0명 · 여 0명
• 5개월 수행 후 전국사찰 소임 • 사찰 등록하고자 하는 분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황룡사
054)972-3174 / 011-502-3966

행자 [예비스님, 남·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지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신비한 손
天一氣功
이재복 회장(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환자들을 치유하여 의사들과 환자들로 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미국병원으로보급중)

天一氣功硏究會 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삼성종합화학(주) 한솔개발(주), 육군73사단, 한국중공업 등 수련지도

파워봉을 구입하고는 싶으나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신 스님들께 파격적인 할인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포교당 운영하시면서 신도님들께 나눔을 실천하실 스님들께 혜택드림(스님에 한합니다)

천일기공연구회
소 백 산 수 련 원
수련문의전화 02)3436-3206~7(서울본회)
054)637-9810(경북영주수련원)
●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 4일코스
52기 -12월 8일 오후 2시 ~ 11일 12시
53기 - 1월19일 오후 2시 ~ 22일 12시
※ 매월 선착순 20명 마감
천일기공책/300페이지 값 10,000원

◆ 性命雙修(성명쌍수)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색심불이)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法器)인데 몸이 병들면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나요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치유포교에 관심있는 스님들께 특별 노하우를 전수해드립니다

난치병인 퇴행성관절염, 좌골신경통, 디스크, 구안와사, 요통, 오십견, 견비통, 고혈압등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치유포교에 활용하실 수 있는 물적(의료기) 지원을 해드립니다.

1단계수련 : 몸만들기 비결을 배우시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신도님들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련 2일째부터 양손에서 기를 발공하여 환자들의 막힌 경락을 소통하여 사기, 병기, 냉기, 탁기를 배출하여 건강한 양체의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천도재를 많이 지내는 스님들 중 사기를 많이 받아서 빙의에 시달리거나 이유없이 몸이 아프고 몸이 냉하고 병마에 시달리는분은 수련기간중에 해답을 얻습니다.
◆ 氣를 발공하면 곧바로 나쁜기운이 빠져나오고 악취가 진동을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손을 대보면 손이 시리고 따갑고 저린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기치유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고령화 시대, 통증으로 고통받는 신도님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위치 : 경북 ● 위치 : 경남
● 법당 : 64평 ● 법당 : 20평 ● 법당 : 70평
● 요사 : 80평 ● 요사 : 50평 ● 요사 : 30평
● 부지 : 430평 ● 부지 : 125평 ● 부지 : 33000평
● 가액 : 13억 ● 가액 : 1억8천 ● 가액 : 40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양평목조사찰3천평-8억
2.대구북구사찰350평-8억
*기도스님.노전,부노전스님
*공양주보살님,법당보살님,
화주보살님.종무행정직.경리,
운전직.사무장.시자보살.49재
천도재,점안식신속연결

※ 사찰일자리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 20분거리)
● 대지: 200평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복조) 부속건물 18평, 11평
● 옥천읍 5분거리에 270호 촌락의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사찰로써 완벽하게 가꾸어졌음
● 가액: 1억2천만원
011-9405-8186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하단동
● 법당 30평
요사 20평
부지 73평
● 가액: 1억8천만원
010-8955-5535
055)338-3020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약 100평
1층 34평 요사채
2층 24평 법당
● 특징: 시장옆 주택 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 찰 안 내

● 위치 : 가평 ● 위치 : 사천
● 대지 : 100평 ● 부지 : 600평
● 법당 : 3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6평 ● 요사 : 3동 52평
● 가액 : 1억 8천 ● 가액 : 2억 4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부근
● 4층 법당 45평-삼존불, 엠프시설 등 제반시설완비, 5층 요사채 45평-에어컨 등 모든시설 완비 4,5층옥상사용가능
● 몸만 오시면됨. 즉시 법회 가능
● 시설비 절충가능
011-9527-3461

토굴터 안내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건천 I.C에서 5분거리)
● 평수 : 1161평 중 168평-전용허가 필, 바닥기초공사 완료, 주택 25평, 창고 15평, 건축허가 배산임수, 명당, 경관수려
● 가액 : 7천만원
017-585-4980

포교원 안내

● 위치: 노원구 역세권. 상계역 3분거리 최적의 위치. 주거 밀집 지역
● 2, 3층 사용시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2층만 사용시 보증금 1,1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가능
● 2층-스님방, 종무소
3층-방3, 거실 겸 공양간, 세면실
02)952-8131

비구니스님으로 아담한 사찰안내

● 전주시 중심 단독상가주택 1층, 2층
● 대지 110평 8×8미터 코너접
건평 120평 1층상가 6개 2층법당
후불순금탱화 입체 100평, 칠성순금탱화 입체 50평, 신중순금탱화 입체 50평 부처님 법당, 홍송조각 3단 15자 부처님 산신불 4차반 자신있게 갖춘도량임 완벽함
● 1층상가 6개에서 매월 임대료 120만원 나옴
● 총 7억 4억 7천만원중 상가 보증금 빼고 2억6천이며 개인사찰 등기완료 융자가능 답사하시며 의논바람
032)667-8485
011-650-848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부지 : 6천평
● 법당 : 35평(목재)
● 요사채 : 100평
● 양도가 : 13억
● 산세계곡좋음

● 위치 : 울시내
● 부지 : 1천평
● 법당 : 20평, 요사 40평
● 양도가 6억5천
● 산세계곡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688-3521 / 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토굴터안내

● 위치: 대구근교 군위IC 5분거리
● 대지 : 169평, 임법당 : 25평
● 배산임수 명당절터
● 가액: 4천8백만원 전세가능
011-9585-4908
054)383-8553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유어면
● 대지 150평, 법당 목조 12평, 요사채 벽돌 25평
● 가액 : 7천8백만원
016-652-7547

사찰안내

● 위치: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대지 : 350평
● 건평 : 30평
● 가액 : 6,300만원
061)533-9046
011-631-2954

사찰안내

● 위치: 정선군 임계면
● 대웅전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30평
● 전체평수 2,100평
● 물이 솟을 용궁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1-9793-7052
033)562-7053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 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사 찰 안 내

● 위치: 양산
● 대지: 120평
● 법당 : 20평
● 요사: 20평
● 가액: 2억 2천
● 조용하고 아담한 암자 양산인터체인지 8분거리

● 위치: 밀양 표충사 부근
● 대지: 1,000평
● 법당: 30평
● 요사: 25평
● 가액: 5억
● 산세 계곡 좋은 수행도량 여법한 단청법당

● 위치: 밀아 얼음골 부근
● 부지: 6천평
● 법당: 10평
● 요사: 10평
● 가액: 10억
● 기가 막힌 계곡접함 도로완비 대형불사가능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81-1599, 018-563-9575
대 길 부 동 산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사찰(급)안내

● 위치 : 포천시 소흘읍 (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 하천부지: 180평
1층 요사채 80평, 2층 대웅전 35평 대웅전앞 반지하 70평
● 개인 위패반 및 부부 위패반 980단
● 가액: 13억5천만원 답사 절충 후 가능
011-9105-7240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충주
● 건물 : 약20평
● 방3개 부엌 화장실 (현재 산신당 모셔져 있음)
● 뒤는 산 앞은 강 강변에 위치한 별장 같은 토굴
● 가액 : 9백 5십만원
010-4460-7006
017-212-649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교촌동(시내)
● 대지 : 117평 ● 법당: 인법당 18평
● 시설 : 약사여래불,신중지장,칠성, 산신,용왕당이 좋음
● 특징: 시외터미널인접. 포교당으로 적합 방6개(공양간,스님방) 심야보일러 설치
● 가액 : 1억 5천만원 (답사후가액절충가)
011-595-736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통제 천안시내에서 15분거리
● 평수: 대지 62평, 법당, 산신각, 요사2채
● 가액 : 5천 만원
011-209-5506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시장 뒷길
● 평수: 약 60평. 2층 방3, 3층방 1개
● 법당, 엠프 에어컨 시설 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1-843-2403
051)554-2406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 055)337-860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지리산 면 소재지
● 평수 : 500평 건평45평, 법당1, 방4, 수세식 화장실(남 여)슬라브
● 절안에 4대 이상 주차, 물좋고 공기 맑음 경치 그만, 조경 잘되어 있음
● 가액 : 9천5백만원
018-565-2042

암자안내

● 위치: 경남 의령
● 산세 좋음 ● 가액: 절충

사찰(터)안내

● 평수: 600평 ● 종교부지 300평
● 기초공사 전기 물 되어있음
● 가액: 3200만원
010-3189-3525
055)573-7832

사찰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파계사옆 차로3분거리
● 절터 평수 662평
● 대로에서 산속으로 850m 인허가 받아줌
● 가액: 9억
010-3120-4017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110평 (7층 중 3층)
● 법당 50평, 요사 6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최상의 포교당으로 사정상 안내함
011-9366-112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2천만원 포함)
019-503-795

암자 안내

● 위치 : 영남 알프스
● 부지 900평 실사용 1700평 (목조법당 20평, 건물3동, 기타부속건물)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정남향의 조리터로 요새 같은 곳임
● 가액 : 4억
016-9677-818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 부지 : 임야 9천평, 종교부지 250평
● 가액 : 2억 6천만원
● 특징 : 지하수 물 좋음
055)854-8526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 일산
● 2층건물의 2층 독채 약40평, 방2개, 시설일체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30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 철학원, 보살님도 환영
016-9396-8425

토굴 안내

● 위치: 충남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 건물 39평, 심야전기보일러, 철근콘크리트 건물.
● 대지 400평, 전 300평, 임야 2천평 (준농림지 대지로 용도변경 가능함)
● 특징 : 칠갑산의 장곡사 인접지역과 행정복합도시 인접지역.
● 가액 : 2억
011-434-7209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암자안내

● 위치: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 평수: 300평
임법당 : 3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별도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5만원(절충가능)
016-840-327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산외면 회곡리 백용사
● 대지: 220평, 관리임야: 3400평
● 법당 23평, 칠성각 6평, 산신각 7평, 용왕당 6평, 석굴(기도) 3평, 요사채 3동(60평), 기도요사채 방5개(25평)
● 가액: 7억(절충가능)
055)352-6802
016-422-0611

포교당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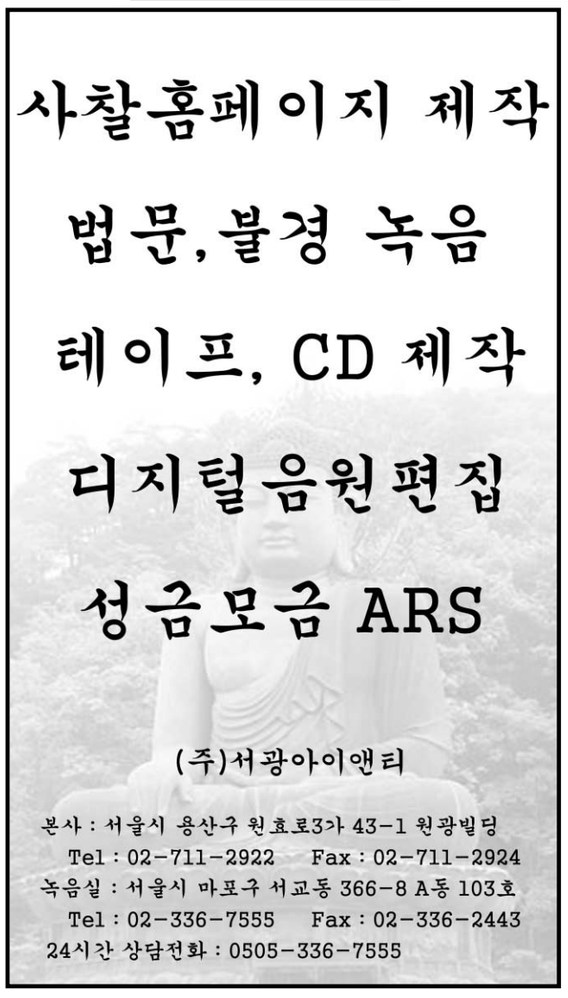
● 위치: 대구시 동구 반야월 각산역 지하철 2번출구
● 4층건물+옥상사용
● 위치 좋음 도시가스
● 법당 70평, 삼존불 방2개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별도
054)336-5909
011-9382-4782

사찰 안내

● 위치: 포천 신북면 삼성당리 (포천시내에서 10분거리)
● 임법당 20평, 실사용평수 400평, 등기 173평
● 요사채 60평 1동 (방2, 화장실) 요사채 15평 1동 (방1, 화장실)
● 가액 : 9천7백만원 (집기일체 양도, 차량진입 가능)
010-4788-0483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 (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건평 약 400평, 반지하방6(100평)
● 가액: 4억 3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 (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포기와로된 사찰임 ● 직접거래
011-858-8892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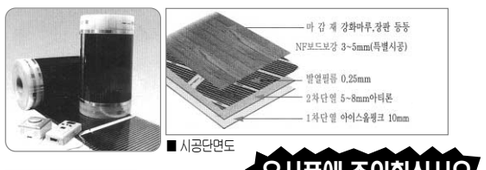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시공전문업체)

041)545-5593, 010-8120-3592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내 대사찰
● 도량면적: 1000평
● 가액: 9억
051)326-1545

사찰(급)안내

● 위치 : 울릉군 울릉읍 ● 대지 1,000평
● 법당25평, 산신각1동, 용왕각1동 요사채 40평(2채) ● 가액 : 3억 5천만원
● 공시지가 : 6억 (평당 6십만원)

사찰(급)안내

● 위치 : 해운대 벡스코(신시가지 입구) 시립미술관 2번 지하철 출구 앞
● 6층건물 6층 : 120평 공간에 법당 요사채가 65평, 몰만 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5천, 시설비 4천(양도가 9천만원)
011-500-1777

사찰밀양얼음골부근

● 대지 512평, 건평 거의 100평, 법당뒤 대밭 있고 대구 부산 고속도로 10분거리. 언양 20분거리
● 옛날 독 약100점 포함, 대지 전체 둘레 돌담.
● 황토방처럼 시설 전면 수리되어 있음. 2층법당, 1층요사채, 산신각, 실내목욕탕,변소, 실외변소 2개, 황토집 두채. 마을 뒤 앞이 트여 전망이 좋음. 방이 20개 개조 고시원 하면 좋음. 비구니, 보살, 노스님, 아주 좋음
● 가액 : 3억 8천만원
010-5572-15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 법당 20평, 요사20평, 등기상 623평, 실평수 1500여평
www.yaksaam.wo.to (사찰전경)

사찰(부지)안내

● 평수 : 1천여평
● 바닷가, 수행처 적합, 전용허가 200평, 상수도 도로 완비
010-7109-3281

포교당 안내

스님 건강상 포교원을 운영하실 원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 서울 신림동 (2층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헌 지장보살 원불 297불
● 전체 30평 : 법당,주방, 방1,화장실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포함 5천만원에 월 50만원
※ 12년 포교한 곳
010-2304-2221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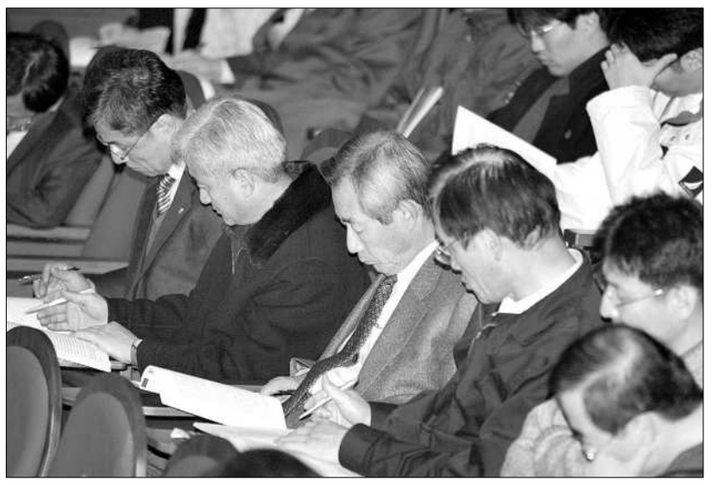
불교와 세상 소통 마당 열어

불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 '불교와 사회 포럼'(공동대표 이평래 · 김광삼 · 김규칠 · 김용표 · 성태용) 창립 세미나가 1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성료됐다.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조성택 고려대 교수, 박세일 서울대 교수, 노부호 서강대 교수가 차례로 사회현안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시도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불교와 사회 포럼의 성공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다음은 각 주제별 발표와 논평 · 토론의 요약.

'불교와 사회 포럼' 창립 세미나 성료-주제 발표 · 논평 · 토론 요약



조성택 교수 김종욱 교수 박세일 교수 이각범 교수 노부호 교수 손기원 소장 한형조 교수



'불교로 세상을 말하고 세상으로 불교를 말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불교와 사회 포럼'의 창립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려 불자들의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성택 교수 인류 공동선 넘어 근원적 행복 실현에 기여해야

박세일 교수 국민분열 · 과거와의 전쟁, '마음 · 세상 개조'로 극복을

노부호 교수 불교적 경영은 종업원 잠재력 · 가치관 개발이 핵심

●조성택 교수 '불교와 현대사회'

오늘날 불자들이 느끼는 고민 가운데 하나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불교가 현대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다.

현대사회의 분절화 · 전문화 경향 속에서 종교의 역할은 축소되고, 신행활동은 삶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또 타 종교와 공존을 요구받고 있어서 불교는 더 이상 보편적 원리가 아닌 하나의 특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서구 불교는 이 같은 현대사회의 환경변화에 불교가 적응해 탄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교사란 본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다양한 전통의 불교들이 새로 생겨나고 공존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서구 불교도 그 가운데 있는 셈이다.

기독교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에서 불교는 ▲지식인과 예술인 등에게 빠르게 확산되는 엘리트불교 성격 ▲사회운동 차원의 실천불교적 성격 ▲개인주의적 성격 ▲재가 중심적 성격을 띠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구 불교는 기존불교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불교라 말할 수 있다. 서구불교에서 우리는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적인 불교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불교적 삶에 대한 시론적인 답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불교적 특징을 유지하는 한편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약될 수 있겠다. 즉 최소한의 공동가치인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경제권, 균등한 교육의 기회 등이 전제된 가운데, 보다 근본적으로 불교는 인류의 공동선을 넘어 근원적인 행복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불교적 삶의 원칙으로는 ▲수행의 일상화 ▲무아와 연기법에 의한 세계 이해 ▲'적은 것이 더 많다'는 최소주의적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논평-김종욱 동국대 교수

불교사를 패러다임 전환의 역사로 이해하는 데 동의한다. 현대의 불교를 적극적 패러다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불교계가 대내적으로 국가에 대한 합리적 비판세력이 됨과 동시에 사회적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지식사회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제포교를 지향해야 한다.

●박세일 교수 '불교와 정치'

오늘날 한국 정치에는 두 가지 병이 있다. 하나는 정치가 '국민 분열과 갈등'에만 치중하지 '국민통합과 화합'의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가 과거와의 전쟁에 매몰된 채 미래의 건설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통합보다 대립과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국민분열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

화합과 통합을 중시하는 부처님이 이런 상황을 본다면 아마도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너무 절대화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을 것이다. 포퓰리즘은 무명의 정치, 탐진치의 정치, 즉 어둠과 미움, 시기의 정치이므로 빨리 버리라고 할 것이다.

'과거와의 전쟁'은 우리 정치가 직면한 또 하나의 병이다. 여기에는 역사를 흑과 백으로 나누려는 이분법적 사고가 담겨 있다. 역사의 정리는 역사학자의 과제다. 정치적 목적이 개재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청산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모습을 부처님이 본다면 "중생들아, 너희들 중 아무도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다. 모두가 역사의 업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

바른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불자는 마음을 개조하면서 그 원력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세계를 개조하면서 마음을 개조해야 한다. 원리적으로 불교와 정치는 구별할 수 없다. 세법(世法)과 불법은 둘이 아니다. 불교를 내세워 정치를 멀리하거나 정치를 내세워 불교를 멀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논평-이각범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정치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정치가 미래지향성을 상실해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한 뼈저린 경험이 있다. 과거청산의 내용은 우리 민족이 미래를 향해 웅비할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그 구조를 시정하는 것이 돼야 한다.

●노부호 교수 '불교와 경영'

불교사상은 기업경영에 적용돼야 한다. 기업은 불교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실천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불교가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는 말을 경영학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은 모두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같은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불교적 경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목적은 종업원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지 않았다. 앞으로 기업경영은 종업원의 잠재력 개발에 역점을 둬야 한다.

또 불교적 깨달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불성을 발견하고 가치관을 개발함으로써 자기를 찾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기존의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자기를 찾아가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가치관의 개발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비전 경영은 불교의 사상을 실천하는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경영은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1단계는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 2단계는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며 3단계는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이다. 1단계가 행동지침을 주고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경영이라면 2단계 경영은 목표를 주고 책임지게 하는 양상을 띤다. 3단계는 조직의 가치 및 비전에 공감대를 형성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경영이다. 이 가운데 불교적 경영은 3단계에 해당한다.

불교적 경영은 구체적으로 ▲자율과 평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계발하고 성과지향적 문화를 조성하고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을 순수하게 함으로써 조직 내에 일과 관계의 문화를 조성하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일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조직구조를 팀조직으로 하여 자율과 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일을 의미있게 만들어나가고 ▲자율과 개방의 문화를 조성해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논평-손기원 지혜경영연구소장

오늘날 분식회계 · 노사불화 · 기업수명 단축 등 경영은 위기를 겪고 있다. 이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이 적극 모색돼야 하는 시점이다. 불교경영은 모든 사람들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안적 경영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지식인 사회에서 불교의 위상은?

발표 및 논평 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오늘날 불교가 처해있는 사회적 위상의 원인과 과거사청산에 대한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됐다.

"불교가 지식인 사회에서 영향력이 낮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조성택 교수는 "조선시대 500년간 불교가 단절돼 불교의 역사가 일천한 데다 독립운동, 민주화, 근대화 과정에서 불교계 역할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하며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불교계가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욱 교수는 조선불교사를 단절로 보는 데 반대하며 "불교가 탄압을 이겨내는데 엄청난 공력을 들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불교와 사회 포럼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먼저 짚어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여 호응을 받기도 했다.

"박 교수의 발표 또한 또 하나의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세일 교수는 "내 주장은 국민감성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학자로서 공부해온 바에 토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공업(共業)만 강조하는 것은 을사오적 등 친일파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을사오적을 문제삼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운영에 문제가 있었고, 공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부호 교수의 주장은 경영이론 가운데 좋은 것을 불교에 갖다 붙인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노 교수는 "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력 개발이라는 점에서 깨달음과의 연결을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럼 발전 방향' 다양한 의견 내놔

종합토론에 이어 참석자들은 저마다 포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 주인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토론의 주제와 관련해서 ▲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 중심의 논의가 돼야 한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반논쟁보다는 불교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 포럼의 방향에 대해서 "기독교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미래학적 관점에서 포럼을 이끌어 진정한 대안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견해를 불교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선 안 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글=박익순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기사넘쳐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 쉽니다.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47-9114

일주문



'군승의 날' 기념법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1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하림각에서 제37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2)749-8646



만화당 희찬대선사 22주기 추모재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2월 7일 오전 11시 적광전에서 만화당 희찬대선사 22주기 추모기재를 봉행한다.(033)332-6664



'한일불교문화학술상' 수상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 법혜 스님은 최근 한일불교문화위원회가 시상하는 '한일불교문화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들꽃' 주제 조각전 개최

이점원 동국대 미술학부 교수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현대백화점 부산점 현대아트갤러리에서 '들꽃'을 주제로 조각전을 개최한다.



동국대 최고위과정서 특강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은 11월 23일 서울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동국대 불교대학원 최고위과정에서 특강을 실시했다.



제4대 광주 · 전남 포교사단장에

백남용 포교사는 11월 19일 광주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제4대 광주 · 전남 포교사단장에 선출됐다.



'청강월' 대표이사 취임

불자 기업인 엄일석씨는 11월 22일 (주)청강월 본사를 광주 금남로로 옮기고 불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대 대표이사 취임행사를 열었다.



2005년 불기협의 밤

한국불교기자협회 여태동 회장은 12월 6일 오후 7시 서울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2005년 불기협의 밤을 개최한다. (02)733-1608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등수상

불교방송(BBS) 강현정 PD는 최근 방송위원회의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및 PD연합회의 '이달의 PD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화촉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대구지구 김형중 사무국장이 신부 류효정 씨를 맞아 12월 11일 낮 12시 대구 귀빈예식장 5층 별관 특실에서 화촉을 밝힌다. 010-6705-0003

"집착 않는 지혜 수행 강조돼야"

동국대 권기종 교수 정년퇴임…22일 '고별강연'

'반야바라밀다' 주제…동문 · 후학 한자리



"오늘날 불교수행에서는 선(禪) 수행만이 강조된 나머지 지혜의 수행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작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현상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쉬운 불교', '생활 속의 불교'를 널리 전파해온 동국대 불교학과 권기종 교수(사진)가 이번학기를 끝으로 정든 학교를 떠난다. 이를 기념해 후배와 동료들이 11월 22일 동국대 다향관세미나실에서 퇴임기념강연을 마련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들과 동문, 후학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퇴임기념강연에서 권 교수가 택한 강연 주제는 '반야바라밀다(般若波羅密多)'였다.

권 교수는 "선종의 중심 과제는 선(禪), 즉 6바라밀다 중의 선정바라밀다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의 소의경전은 반야를 중시하는 반야부 경전이며, 또 수행에 있어서는 선 수행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여섯 가지 바라밀다 가운데 다섯 가지(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는 반야바라밀다가 이끌어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반야바라밀다"라며 "반야바라밀다는 무분별지(無分別智)이고, 그 실천은 '집착하지 않음'"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 교수와의 일문일답.

▲퇴임하는 감회는?

—아쉬움이 더 크다. 한창 학문적인 성과를 내야 할 40~50대에 학교 보직을 많이 맡아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

▲반야바라밀다를 퇴임강연의 주제로 정한 이유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야지혜라는 사실을 불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 기회에 알리고 싶었다.

▲쉬운 강연으로 유명한데….

—법문이나 강연은 우리 삶의 문제로 와 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삶과 유리된 불교가 되고 만다. 쉬운 강연의 핵심은 쉬운 용어가 아니라 청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인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게끔 하는 데 있다.

▲한국불교학의 문제라면?

—학자층이 두텁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많지 않다보니 불교학 연구의 폭이 넓지 못하다.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은 불교학을 전공하고 나서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교직은 제한돼 있고, 연구직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학금을 줘서 불교학을 전공하게끔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신도회관 건립이 목표"

대구 동화사 3대 신도회장 허석구씨 취임



"불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동화사 제3대 신도회장에 취임하는 허석구(51 · 사진)회장은 취임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기업경영으로 다른 불자들보다 신행생활을 많이 못했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 처음에는 고사할 생각까지 했다"는 허회장은 "큰 중책을 맡아 두려움이 앞서지만 스님과 주위 불자님들의 격려 속에 기업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포교는 물론 신도조직 강화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또 허회장은 "자유롭게 신행활동을 하기 위해 신도회관 건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힘들겠지만 노력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어릴 때부터 신심 깊은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불자가 됐다"는 허석구 회장은 특수 섬유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주)해일 대표이사로 한국과 중국에 합작회사를 경영하는 중견 기업인이다. 현재 국제 라이온스협회 355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 대구시 상공회의소 상공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올해의 재가불자상' 불무 대표 김유신씨



'올해의 재가불자상'에 김유신 불무 대표(사진)가 선정됐다.

'올해의 재가불자상' 선정위원회는 "불교문화포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전문적인 문화기획의 영역을 개척하고자 노력해 온 김유신 대표를 재가불자상 수상자로 뽑았다"고 11월 23일 발표했다.

2001년부터 불교문화기획사 불무를 운영해온 김 대표는 "너무 과분한 상이 오히려 당황스럽기까지 하다"면서 "앞으로도 불교문화의 대중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제3회 대원상 시상식



(재)대한불교진흥원이 정한 제3회 대원상 시상식이 11월 25일 서울 다보원 대법당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동국역경원 후원회장 무진장 스님,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대표 등이 대원상을 받았다. 이날 진흥원은 공동수상자인 월운 스님과 무진장 스님에게 각 1000만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공불련 회장단, 지관 스님 예방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단은 11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지관 스님은 "각 부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불자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성윤갑 공불련 회장(관세청장)과 김중양 고문(행정연구원장), 송도근 수석부회장(건설교통부 국장) 등이 참석했다.

원효종 금수사서 정기 중앙종회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고산)은 11월 22일 원효종 총본산 부산 금수사에서 100여명의 종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정기 중앙종회 및 종도대회를 개최했다. 원효종은 종무보고, 신년하례회 계획, 기타현안, 자유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를 통해 대승 화합 종단으로 거듭 나자는 결의를 다졌다.

금종 스님 초청 강연회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의 저자 금종 스님 초청 강연회가 11월 22일 부산 영광도서에서 열렸다. 백여 명의 독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종 스님은 출가 수행 등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일상적인 얘기들로 강연을 진행했다. 금종 스님은 "책 속에 고뇌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세계불교 법왕청 오존불 점안법회



(재)세계불교법왕청 오존불 점안법회가 11월 20일 화성시 법왕청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 관음정사 조실 혜륭 스님, 법화종 前 총무원장 대호 스님, 법왕청 이존영 이사장 등 1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존영 이사장은 "일붕 스님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오존불을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봉선사 문도 제위께 호소합니다.

본사 철안 주지스님이 사패산 터널 공사 보상비 전용 혐의로 고발되어 국가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재판을 기다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인접 지역 주민과 재가 불자들의 비난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각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연일 이 일의 불법성과 부도덕성에 대해 보도를 하여 본사는 물론 교단마저도 신뢰와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명색이 본사 주지스님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끝내 법정에 서야하다니, 이 어찌 주지 본인만의 치욕이겠습니까? 이러한 소양의 사람을 교구의 수장으로 모신 우리 문도들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주지스님께서는 사과문을 내면서 "12인 운영위원의 공론을 통해서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전 문도들에게 전가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행입니다.
더구나 불교도의 도덕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는 문도내의 비판이 일자, 주지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의 준동으로 호도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가 그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도회의에서 우리는 당연히 사회적 물의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물어서 주지를 사퇴토록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래야 봉선사 월초문도로서 최소한의 양심있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다시 임시 문도총회 소집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개인이나 계파간의 유, 불리가 아니라 사안의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어 문도차원에서 제대로 척결해야만이 우리가 옛 어른들을 기리는 후손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1. 본사 주지 철안스님은 사회적 물의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속히 스스로 사퇴하여야 한다.
1. 모든 환경단체들에게 그 명예를 훼손함에 대해 공중 언론메체를 통해서 사과하여야 한다.
1. 불교도로서 교단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전 종도를 욕되게 한점에 대해 교단의 모든 대중에게 참회 하여야 한다.
1. 이후의 사법적,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문도대중에게 전가하지 말고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2005(2549)년 11월 24일

봉선사 젊은승가회 화광



불자 세상보기

이 정 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

농업의 가치 다시 생각하자

정부에서 강행한 소위 '쌀협상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평가는 엇갈린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향후 전면개방화에 대비하여 10년간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농민,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농업과 농촌에 대한 대책 없이 '농업으로부터의 정책적 철수'를 감행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10년간의 '관세화유예'를 얻는 대신, 의무적 수입물량'을 10년 동안 늘려 왔다. 그리고 올해 다시 향후 10년간 '쌀관세화 유예'를 얻어내면서, '10년후 자동관세화'와 '의무적 수입물량의 확대'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를 쌀농사에 대한 전면포기로 이해하고 있다. 의무적 수입물량은 쌀값폭락으로 직결되고 있는데다, 우리농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기에 쌀농사의 위기는 '농업의 위기'로도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 지금 정치권과 정부는 쌀 문제를 농민생존권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농업을 '다원적 가치'를 중심으로 바라본다. 우리 농민단체는 쌀문제를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가치, 즉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식량주권의 문제 등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숙고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처리하고 있다. 쌀 문제는 농업의 기반에 관한 사안이다. 이는 유사시 식량주권이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컴퓨터와 자동차'를 잘 팔면 쌀과 식량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선순환 구조를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식량시장의 경우는 그렇게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선진국의 동향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들 일수록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적인 유지'를 큰 목표로 삼아야한다.

이렇듯 쌀문제가 단순히 농민들만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생존과 장기적인 국가경제안보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 된다면 앞으로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은 기반이 영원히 사라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쌀은 생활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컴퓨터나 자동차는 그렇지만은 않다. 농지가 개발지로 바뀌고, 농민이 재생산되지 못하고, 농지에 투기자본만 몰려다니게 될 게 뻔하다. 그러면 국제시장에서 쌀과 컴퓨터의 부가가치가 역전되는 상황은 너무나 뻔히 내다보이는 미래다.

이러한 암울한 미래에 대해 불자들도 몇 가지의 대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농민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단체들에서는 '식량자급률 법제화'라는 입법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25%(네 끼 중에 세 끼)'를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식량종속국이 식량자급률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자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종교계의 사찰이나, 교회, 성당 등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종교계에서 이 운동을 시작한다면 학교나 회사, 노동조합으로 확산돼야 한다. 필자가 일하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경우,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몇몇 사찰에서 '친환경공양미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과 민간차원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운동'이 꾸준히 전개해 나갈 때, 우리 농촌의 회생가능성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간화선 수행전통을 강조하고 있는 조계종이 종단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재가자와 대학생 등 계층별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총 10품의 단계로 제시해 내년 3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한국불교가 700여 년 동안 간화선을 승가의 수행 전통으로 계승하면서 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것은 간화선 수행이 우리의 풍토에 적합하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오늘날 간화선이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되지 못한 것은 종단차원에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에 발표한 간화선 수행프로그램은 간화선 대중화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다고 본다. 다만 간화선 수행 지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를 지도할 현장 지도자를 어떤 기준에서 초빙하는가에 '성패'가 달려있어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대중들에게 간화선의 의미를 설명하여 신심을 일으

간화선 프로그램과 지도자

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학문적 소양을 가져야한다. 간화선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기본교학과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이해와 신심을 심어 수행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간화선 수행을 경험해 본 사람이어야 한다. 아무리 선학에 대한 높은 학문지식을 가졌더라도 '실참실수(實參實修)' 경력이 없으면, 자신에 대한 확신도 미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심을 줄 수 있는 힘도 미약하다. 아무리 기본을 지도한다 하더라도 4안거 이상을 성만한 수좌가 죽비를 쥐어야 한다.

셋째, 심리상담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간화선은 화두를 참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계를 해결하고 경책해 줄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 물론 고차원적인 점검은 단계별로 시행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수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상담치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훌륭하더라도 지도자의 소양이 부족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간화선 지도자의 선행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산(동국대 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폭력

경을 많이 왼다 해도 뜻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 한 뜻이라도 듣고 행하며 제도됨만 같지 못하다. 〈법구비유경〉

요즘에는 신문과 방송을 보기가 겁이 날 지경이다. 며칠 전 버스 안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집에 가던 여고생을 끌고 가 폭행한 뒤 교복과 책가방을 빼앗아 불태우고 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한 달 전쯤에는 교실에서 힘이 센 학생과 약한 학생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반 아이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TV로 방영돼 충격을 주었다. 힘이 약한 학생이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는데도, 다른 학생들은 유유히 즐길 뿐이다. 이쯤이면 교육이라는 말의 무색함을 떠나 인간 본성에 의문을 갖게 할 정도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자고 일어나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청소년 폭력 문제.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꽤 많이 무뎌져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식의 무감각이 청소년 폭력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인간의 본성을 보는 데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성선설과 성악설이다. 하지만 불교는 인간의 심성을 그 어느 쪽에도 치우쳐 보지 않는다. 마치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백지로 보는 것이다.

이제는 종교적 감각의 교육을 해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 청소년들에게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찾아내도록 이끄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책무이기도 하다. 우리 불교부터 문제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명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불교적 관점에서 생명윤리를 말한다

'현대불교' 553호 13면에 실린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련 학술토론회 기사를 읽고 수행자로서 좀더 적극적인 불교적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았던 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불교의 세계관은 많은 인(因)과 연(緣)이 조건에 의해 만나 서로 관계하며 과(果)를 생산하는 연기법에 입각해서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부처님은 연기법에 입각한 최고의 지혜인 중도의 실천을 갈파했다.

따라서 아직 불법을 모르는 우매한 중생이 아닌 불자라면 법에 따른 올바른 연기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는 과연 올바른 연기일까?

불교의 인간관에 비춰 보면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교수들의 논점처럼 배아줄기는 유정(遺精 · 살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인간이 될 가능성을 가진 생명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에서처럼 이러한 존재를 이용하는 것은 살생이므로 비윤리적이라는 견해는 극단적이다. 더구나 최근의 논란을 보면 원론적인 부분만을 놓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 같다.

하지만 불자라면 당연히 불교의 인간관 뿐 아니라 불교의 세계관도 고려해야 한다. 즉 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의 의한 과 역시 유심히 살펴야 한다.

지금의 생명윤리 논란은 황우석 교수가 배아줄기 세포를 어디에 사용하며 이것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회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난자는 정자와 수정되어져야만 인간이 된다. 많은 난자들중에 한 두 난자를 제외하면 모두 자연사할 운명인 것이 현실이다. 난자를 가진 인간이 난자에 생명성을 부여할 의지가 없다면 자연사될 난자를 더 훌륭한 가치의 존재로, 인위적인 연기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불교의 논리요, 불교가 권장하는 가치다.

따라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인자(因者)를 살생하는 죄를 범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복을 지을 수 있다면 이것이 더 훌륭한 사회적 윤리다. 부처님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무수한 공덕을 지었다.

난자에게도 이러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불교의 생명관이며 윤리관이며 중도의 실천이라고 본다.

인을 살생하는 죄를 범하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복을 짓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황우석 교수에게 박수를 보낸다.

홍범(경기 광명시 보현사)

정신 못 차린 '서울시장'

'서울봉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최근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청계천'이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를 사고 있다.

시민들과 시 관계자, 건설사들의 노력으로 복원된 청계천은 하나님이나 기독교 신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는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치 않는 편협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시장에게 청계청 복원 공사에 들어간 수천억 원의 막대한 세금과 주변상인들의 불편, 노점상들의 생계위협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한국의 종교간 평화가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가 화합했기 때문이 아니라 최대 종교인 불교가 무관심 하거나 안일해서라는 주장을 기억하고 있다.

이는 불교계 지도층의 책임이 크다. 서울시장의 공직직분 망각한 종교편향행위를 꾸짖지 못한 것이 오늘날 이명박 시장의 종교편향 망언사태를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포항 성시화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포항 정장식시장의 경우, 지역 주지스님들이 규탄법회를 봉행으로 결국 정장식 시장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제발 이제는 불교인들이 먼저 눈을 부릅뜨기 바란다.

걸망(붓다뉴스)

'현대' 만평 심 민 섭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백양산 선암사 주지 원범스님 진산식

모|시|는|글

귀의삼보하옵고,
입동지절 맑은 날에 천년고찰 백양산 선암사에서 원범스님
주지진산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귀한 걸음 하시어 소중한 자리를
빛내 주시고, 격려와 축하로 깨어 있는 도량에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 **일 시 : 불기 2549(2005)년 12월 4일(일요일)**
• **장 소** : 선암사 대웅전 앞
1부 11:00 ~ 12:00 법요식 / 대웅전 앞
2부 13:00 ~ 14:00 선암사 주민잔치 한마당 / 주차장 무대

선암사 주민잔치 한마당
선암사 주민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한마당<초청가수최진희, 아정>



수 희 동 참 바 랍 니 다

이번 진산식에는 화환이나 화분 등 축하용품은 정중히
사절하오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웃에게
그 정성을 나누고자 하오니 자비로 접수하시고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계좌번호** : 새마을금고 1527-09-006327-9
(예금주:선암사)
• **문의전화** : 선암사 종무소 051)808-6196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지침에 따라 객비는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사당일 임시주차장은 동양초등학교, 중학교로 지정되어 있사오니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백양산 선암사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614-093)부산시 진구 부암3동 628번지 전화 051) 808-6196

"올곧은 불자로 자라 나누며 살게요"

본사 제2회 나눔장학금 전달식
중·고생 42명에 총 1500만원
갑사에서 템플스테이도 체험

11월 19일 공주 갑사(주지 장곡).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인솔 교사들이 밝은 웃음을 띤 채 속속 모여든다. 이들은 본사가 주최하는 '제2회 현대불교 나눔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 · 광주 · 대전 등지에서 부지런히 찾아온 손님들이다.

본사는 지난해부터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통해 성금을 모연, 종립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장학금을 전달한 서울 · 경기지역 12개 학교를 제외한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 14개 종립학교 학생 42명에게 1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

갑사에 도착한 학생들은 수련복으로 갈아입는다. 템플스테이 입제식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의 묘미는 '갑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한다는데 있다. 단순히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종립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불교적'인 체험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의 1박 2일간 템플스테이 일정은 지도법사 법안 스님이 이끌어나갔다. 스님은 경내를 한 바퀴 돌며 1500여년이 넘는 역사의 갑사 구석구석을 안내했다. 법안 스님이 갑사의 대표적인 성보인 동종과 철당간지주, 부도탑 등을 설명하자 진수(심인중 1)는 받아 적느라 바쁘다.

"선생님께서 학교 대표로 왔으니 열심히 배우라고 하셨어요."

역시 템플스테이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벽 예불이다. 그러나 새벽예불은 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마음 닦기'의 기본이기에 빠질 수가 없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학생들이 마음을 다잡고 있을 무렵, 법안 스님이 학생들을 색다른 곳으로 안내한다.

"갑사에서 20분 정도만 올라가면 '문이 없는 문(無門關)'에 들어가 수행하는 스님들이 계신 대자암에 올라갈 수 있어요."

대자암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는 곳. 계룡산의 좋은 공기와 수행자들의 열기는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만하다. 힘겹게 걸음을 옮기던 소라(정광중 3)도 느끼는 것이 많다.

"우리는 하루 새벽 예불도 힘들었는데 여기서 스님들은 계속 수행을 하신다지요."



갑사 템플스테이를 겸한 '제2회 현대불교 나눔장학금 전달식'에서 갑사 주지 장곡 스님, 본사 위영란 편집국장이 참석해 14개 종립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증서를 전달했다.

이제 장학 증서를 받는 일만 남았다. 각 학교 대표로 참석한 학생들이기에 실수하지나 않을까,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시상식에 참석한 주지 장곡 스님은 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하며 "갑사는 계룡산의 맑은 정기를 받아 이곳에 온 여러분들이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역이 되고 깨달음이 충만한 세계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축사했다.

본사 위영란 편집국장은 "'현대불교'에서 드리는 장학금은 불자들이 신문사로 보내준 성금을 모은 돈"이라며 "이번 템플스테이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부산 금정중학교 이석언 교법사는 "우리 학생들이 장학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웃음 지었다. **공주/글=김강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갑사 주지 장곡 스님
학생들 일일이 직접 챙겨



갑사 주지 장곡 스님(사진)은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는 내내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살폴 하게 챙겼다.

파라미타 대전충남지부 회장이기도 한 스님은 본사에 종립학교 장학금 사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나눔성금 50만원을 쾌척했다.

이자리에서 장곡 스님은 "종립학교 학생들을 진정한 불자로 양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hompy.buddhapia.com/homepy/helpminsu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고침 지난호 16면 한마음선원 공주지원을 비롯한 본사 부다피아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185,430원을 1,854,300원으로 바로잡습니다.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자비의집 보덕사 보살들
봉사는 '배움'입니다

1월 22일 서울 삼양동 사거리 인근의 한 낡은 건물 앞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대신 배추가 길게 늘어선 '배추 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올해도 자비의 집(원장 이금현)은 배추 1600포기를 다듬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김장 김치 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날 참여한 봉사자만도 30여명.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다. 김장을 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절인 배추 씻어 건져 올리기다. 이 작업을 누구에게도 미루지 않고 하루 종일 해 내는 봉사자들이 있다.

자비의 집과 14년 째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신림동 보덕사(주지 승광) 봉사자들이다.

사실 김장은 1년에 딱 한 번이다. 그런데 보덕사 보살들에게는 1년에 4번도 되고, 5번도 돌아온다. 워낙 성실하다고 소문나서 그런지 김장철만 되면 여기저기 일손이 필요한 곳에서 보덕사 보살들을 찾기 바쁘다.

보덕사 보살들이 김장때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도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자비의 집에 나와 급식 봉사는 물론 시설 곳곳의 물청소, 대청소까지 깨끗하게 끝낸다. 자비의 집 이금현 원장이 "시설 운영하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고맙다"고 말할 정도다.

게다가 자비의 집 봉사 외에도 봉천동 신림동 일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손수 반찬을 전달하기도 한다.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얼마간의 정성을 보태 반찬을 만든다. 가까운 복지관 급식 봉사 등은 이미 보덕사 보살들에게 일상이다.

보덕사 보살들은 "그래도 가장 오랜 시간 드나든 자비의 집에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사실"이라 말한다. 자비의 집은 이제 보덕사 보살들에게 생활 터전의 일부가 됐기 때문이다. 가족과 같은 심정,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보덕사 이외득 보살(58)은 넉넉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다.

"편하고 즐거워요. 어려운 분들을 뵙다 보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겨요. 봉사는 '배움'입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항상 궂은일을 마다 않는 급식봉사 보살들이 자비의 집에서 김장을 하고 있다.

쌀 후원자를 찾습니다

자비의 집에서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은 쌀이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주5일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김미영(45) 보살은 "후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다"면서 "자비의 집이 아니면 식사조차 할 곳 없는 어르신들을 계속 봉양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02)945-4200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불자들을 위한 난방기 특별보급 행사
특별보급기간 2005년 11/1~12/30 특별보급대상 사찰/스님/불교단체

신일 세라믹원적외선 석유열풍히터
강약조절기능 / 쾌적난방 / 양면방사 전환기능
여화1호 22평형 소비자가 : ₩850,000 특별보급가 : ₩690,000 SBH-011 TSI
여화2호 32평형 소비자가 : ₩980,000 특별보급가 : ₩790,000 SBH-041 TMI

신일 전기온풍기
여화3호 6~7평형 특별보급가 : ₩188,000 SBH-3000 CTI

신일 원적외선 세라믹 히터
좌우회전기능 / 2단계 강약조절 / 상하각도조절기능 / 전도소화장치 / 과열안전장치
여화4호 소비자가 : ₩60,000 특별보급가 : ₩48,000 SEH-961 BCT • 발열량 : 820Kcal/h • 3시간타이머
여화5호 소비자가 : ₩52,500 특별보급가 : ₩42,000 SEH-900 WBK • 발열량 : 820Kcal/h
여화6호 소비자가 : ₩65,000 특별보급가 : ₩52,000 SHE-800 HGK • 발열량 : 780Kcal/h • 3시간타이머

신일 원적외선 할로겐 히터

Nikko 금나노 웰빙 매트
금나노 코팅으로 항균처리된 Well-being 시대의 맞춤 제품
여화7호 특별보급가 : ₩98,000 WW-214S (1인용) • 사용전원 : AC 220V/60Hz • 소비전력 : 180W~190W • 제조국 : 한국 • 규격 : 1,000×2,000
여화8호 특별보급가 : ₩115,000 WW-215D (2인용) • 사용전원 : AC 220V/60Hz • 소비전력 : 180W~190W • 제조국 : 한국 • 규격 : 1,000×2,000

제품 특장점
금나노 코팅으로 항균·멸균작용 / 세련된 디자인으로 신개발된 조절기 사용 / 건강·웰빙시대에 적격한 제품 / 100% 완전 방수천 / 최고온도 70℃에 비해 저렴한 전기세로 난방효과 최적격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02)2004-8218~9 국민 006-010785-361 농협 053-01-265785 우체국 010041-01-01221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수익금의 일부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여집니다.

향기 도반의

“형님들요, 인재불사 활짝 꽃피웁시더”

불교인재 키우는 ‘영원한 꽃보살들’

일념장학회



뒷줄 맨 왼쪽이 법춘 스님. 그 옆이 대자행 그리고 창립회원들.



왼쪽부터 법성화, 지명심, 대원행(현 재단법인 일념 장학회 이사장), 일념행(일념장학회 부회장), 대자행 보살.

경봉 스님 밑에서 공부하던 인연으로 뭉쳐
관음보살 원력 담아 장학사업에 ‘한마음’
창립 30주년 맞아 큰스님 선서화展 기획
“불법 알려야 한다는 마음에 나이도 잊어”

“형님요, 이번 전시회 잘 돼야 됩니다. 저는 밤에 잠이 안 와요.”

“걱정 마라. 다 부처님 빽으로 하는 일인데 뭐가 걱정이고?”

“이번 전시회에 오시는 분들은 복이 많은 분들이지. 어디서 큰스님들 향기가 서린 선서화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만나볼 수 있겠노?”

젊은 연인들이 즐겨 찾은 부산 달맞이 고개 ‘언덕위의 집’에 모여 전시회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는 노보살들은 재단법인 일념장학회(이사장 이대원행 · 68) 이사들이다. 이들에게 ‘언덕위의 집’은 장학회 심부름으로 동분서주하는 최미타월 총무가 운영하는 곳이라 안방처럼 편안한 곳이다. 제일 형님인 조지명심(80), 이법성화(80) 보살과 임대자행(77), 구일념행(68), 이대원행(68) 보살.

이들은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영광도서 갤러리(051-816-9500)에서 열리는 전시회 준비에 한창이다. 일념장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회원들이 소장하고 있던 큰스님들의 선서들로 기획하게 된 전시회다.

30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이어온 장학회이고 인연들이고 보니 둘러앉으면 어느새 옛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정말 젊고 고왔던 그 때’가 1971년이었다.

통도사 극락선원 경봉 스님을 찾아 불법을 공부하던 11명의 보살들이 ‘십일면관음보살의 원력을 닮으라’던 경봉 스님의 말씀을 따라 ‘일념회’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신행봉사모임으로 시작됐던 일념회가 장학사업을 시작한 것은 30년 전, 어느 비구니스님의 공부를 도우면서부터다. 현재 시카고 불심사에서 포교중인 법춘 스님이 일본 대정대학원에 유학 할 때 학비를 도운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틈만 나면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찾아 나섰고, 학비가 필요하다면 쌈지돈을 풀어놓았다. 부처님오신날 밀가루 공장을 하는 회원의 특별제작으로 밀가루 봉투에 법구경을 새겨 나눠주기도 했고, 봉암사 해인사 등 선방 대중공양은 물론 삼보사찰과 운문사에는 팔만대장경을 기증하기도 했다. 특히 승가 교육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여온 이들은 승가대학 학비지원을 한해도 거르지 않았다. 학비를 지원하고 돌아서면 또 도와야 할 사람이 보이고, 눈만 돌리면 또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일념장학회의 할 일은 끝이 없었다.

착한 중생을 보면 자심(慈心)을 일으키고 악한 중생을 보고는 비심(悲心)을 일으키면서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는 십일면관세음보살의 마음처럼, 때론 안타까운 현실에 눈물짓고 때론 미소 지으며 한달음에 달려온 시간이었다. 어느덧 갓 서른을 넘겼던 꽃다운 청춘은 가고 칠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지난해에는 초대 이사장이었던 양선법장 보살이 팔순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1명의 창립 회원 중 단 3명이 남았다. 그러나 오히려 일념장학회의 정신은 더욱 옹골차졌다. 관음보살의 원력을 닮으려는 보살들이 끊이지 않았고 회원은 16명으로 늘어났다. 10년 전 재단법인 등록한 일념장학회는 최근 대원행 보살이 이사장을 맡으며 젊은 회원 8명을 영입해 총 23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장학회로 재도약하고 있다. 한 스님에게 같이 법명을 받은 법의 형제로 출발해 이제는 부처님 일불제자로 친자매보다 더 깊은 인연을 이어가는 도반이 된 것이다. 허물없이 살가우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두텁기 그지없다.

“형님들의 묵묵한 행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공부 뒷바라지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일념장학회 부회장 구일념행 보살의 말처럼 일념장학회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신행도 30년 전통만큼이나 정평이 나 있다. 통도사 재가선방에서 한해도 거르지 않고 안거 정진하는 지명심 보살과 범어사 보살선원에서 정진하는 대자행 보살 등은 불법이 곧 삶이 된 일념회의 상징 같은 존재다.

“불법이 좋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평범한 보살들의 힘만으로 장학회를 30년이 넘도록 이어 오기 힘듭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법을 널리 펴야 하다는 마음이 지극해져서 나이 드는 것도 잊어 버려요.” 바로 전의 이사장이었던 대자행 보살은 스님들 공부 뒷바라지라면 뭉치돈을 마다않고 내며 솔선수범을 보이는 회원이다. 집 기둥뿌리 몇 개는 뽑아서 불교 집안 인재양성의 기둥을 세우는데 쓴 셈이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돈이 생기면 불교 위해 쓰는 겁니다. 헛된 곳에 쓰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쓴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기게 해줘요. 그러면 또 심부름꾼으로 쓰고,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죠. 다 부처님하시는 일이니 이번 전시회도 잘 될 거라 믿어요.”

다시 전시회 얘기로 돌아가고 있다. 장학기금 1억원 조성을 목표로 무작정 시작한 일이고 보니 걱정이 앞선다.

“장학금을 한사람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방법을 찾다가 큰 스님들께 받은 선서화가 생각이 났어요. 나 혼자 방에 두고 보면 뭐하겠나, 더 많은 이들에게 큰스님의 선향이 서린 글씨도 보여드리고 또 장학 기금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죠.”

이대원행 이사장이 큰스님들과의 인연으로 받아서 일생동안 애지중지 간직해왔던 선서화 30여점을 내놓자 회원들도 앞다투어 작품을 내놓았다.

안방에 걸어두었던 소장품부터 깊숙한 곳에 간직해왔던 탄허 · 경봉 · 일타 스님의 글씨, 무불 스님의 8폭 반야심경 병풍, 환경 스님이 91세 때 쓴 천수다라니 병풍까지, 여느 전시회에서는 만날 수 없는 작품들이 쏟아졌다. 회원들의 이러한 뜻이 전해지자 극락암 명정 스님도 지금껏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경봉 스님 작품 3점을 선뜻 내놓았다.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시작한 전시답게 정관 · 고산 스님 등 큰스님들이 직접 사인한 부채 5백 개를 전시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선물로 따로 준비해놓았단다.

“얼마 전 전시회 때문에 소림사를 찾아갔어요. 그곳 주지스님께서 맨발로 달려 나와 맞으면서 일념장학회 장학금 받고 공부했다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죠. 고맙고 반갑기 그지없었어요. 또 다시 30년, 아니 3백년이 지난 뒤 우리는 가고 없어도 일념장학회가 뒷바라지한 인재들이 불교를 이끌어나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죠.”

피는 꽃만큼 지는 꽃도 아름답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열매 맺는 순간, 그 절정의 아름다움이 일념장학회 회원들의 얼굴에 가득하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아~ 이것이 불교구나
염불과 알기쉬운 불교
거산스님 지음 값 1만원(법보시 환영)



19×26 / 313쪽

거산스님의 설법요청 바랍니다
● 내용 : 불교의 우주관과 인생관 그리고 현대 사회의 실상
● 시간 : 50분 ~ 1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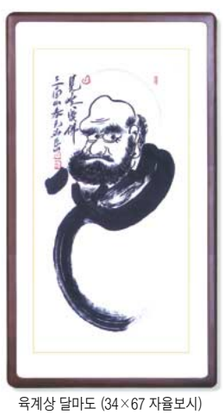
4대 건강 관리법 강연요청 바랍니다
● 내용 : 식사 운동 휴식 위생생활
● 시간 : 60분

거산산방 TEL. 02)375-7077, 372-7016
계좌번호 : 기업은행 041-059364-02-011 (예금주 : 박성열)

거산스님의 BBS 불교방송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협찬 달마도


(미술저작권 作) 육계상 달마도 (34×67 자율보시)

거산스님 달마도 원을 세우면 꼭 성취할것입니다


육계상 달마도 (34×67 자율보시)


소림 달마도 (66×67 50만원)


전신 달마도 (66 ×120 100만원)


호랑이와 달마도 (66 ×129 100만원)


모자쓴 달마도 (33 ×33 자율보시)


만사형통호랑이부적 (33 ×33 2만원)

나의 수행법

실상관법(實像觀法) 수행체험기 - 김혜경 (下)



올해는 처음으로 월1회(매월 4주 토요일 휴업)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하는 해로서 학교 나름대로 세부운영 계획을 세우기란 쉽지 않았다. 교과 탐구활동과 주제체험활동으로 나누어 계획을 세우면서 문제는 학생들의 체험활동이었다. 70% 이상의 학부모님들이 맞벌이라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지역사회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것이다.

830여명의 학생들이 어디로 가서 체험학습을 할 것인가? 개인 경비가 지출되는 계발활동과 토요휴업일로 인하여 또 경비가 지출된다면 사교육비의 증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할까?

그런 고민끝에 '토요휴업일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할 수 없는 명상프로그램을 우곡선원에서 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선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기회이지 않는가?

한 시간의 보강 수업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 휴무일 3시간 정도의 수업과 학생지도가 가능할까 염려스러웠지만 우곡선원 교육지도자 선생님들은 수업과 지도안 작성, PPT자료 제작, 홍보, 수업자료 제작 등을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불교교리의 주입이나 종교행위를 체험시키는 청소년참선교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아 잘못을 깨닫고 즐겁고 희망적인 마음, 그런 불교정신을 깃들게 하는 토요휴업일 "마음동산 꾸미기"는 3월부터 계속 실시되어 청소년 인성교육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8월 여름방학 동안의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참선교실' 운영은 방학 시작 후 학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었다.

방학 전에 학생들에게 전혀 홍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프로그램에 동참하였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다며 뿌듯해 하는 학생, 자녀와 함께 노래에 맞추어 동작을 만들어 보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자애로운 사랑이 가득하였다.

토요휴업일 수업과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그리고 부산 모 중학교의 참선교육프로그램 요청으로 6번의 청소년 참선교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지도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우곡선원 도반들의 아낌없는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전체 지도 방향을 지도해 주신 선사님과 수업에 필요한 자료와 야외활동 중에 학생들의 안전지도에 늘 도움을 주는 우곡 거사림회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토요휴업일 청소년 참선교실 호응
학생들 요청으로 가족특강 열기도

불교계 최초로 시행한 우곡선원의 토요휴업일 청소년 참선교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세인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청소년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는 시점에서 우곡선원의 청소년 참선교실의 '마음동산 꾸미기'가 그 대안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불교진리를 만날 수 있었던 행운과 실상관법을 통한 참 수행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와 우리 학교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시대와 전체를 위한 교직생활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보살행일 것이며, 이처럼 불보살의 가호가 있는 한 시대적 소임을 위한 열정과 용기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끝)

■ 부산 주례여중 교장

간화선으로 금강경을 말한다 - **중신회 동안거 논강 입제**

'금강경' 구절 하나하나가 화두



<금강경>은 "상(相)이 있다는 것은 허망하다"는 점을 수행자에게 일깨워줘, 선수행의 나침반이 된다고 강조하는 원철 스님.



조계종 중앙신도회원 등 1백 여명이 11월 24일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열린 동안거 수행논강 '간화선으로 본 금강경' 입제식에서 원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깊은 밤, 스승 홍인은 늙은 행자 혜능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 들였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금강경>을 설해줬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應無所住而生其心)!' 혜능은 한번 듣고 말끝에 문득 <금강경>의 큰 뜻(大意)을 깨달았다. 그날 밤, 홍인은 혜능을 선종의 제6조로 정하고 가사와 발우를 전해줬다."

육조 혜능 스님과 <금강경>과의 기연이 담긴 <육조단경>의 한 구절이다. 선종과 <금강경>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혜능 선사가 <금강경>에서 깨달음의 단초를 얻은 사연. 오늘날 조계종이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정해 선 수행의 나침반으로 삼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선수행의 이론 지침서

이처럼 선 수행의 지침이 되는 <금강경>.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을유년 동안거를 맞아 내년 2월 25일까지 특별한 수행논강을 마련했다. 주제는 '간화선으로 본 <금강경>'. 종단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선으로 공부해보자는 취지에서다.

논강은 이 같은 <금강경>의 선적인 공부열기를 반영해 무여 스님(축서사 선원장)을 증명법사로,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고우 스님(각화사 선덕)을 특별법사로 초빙했다. 법문 내용도 '조계종의 간화선과 소의경전 금강경'으로 해, 논강의 주제를 분명히 했다. 또 진명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무각 스님(서울 공생선원장)을 강사로 초대, 재가불자들에게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금강경>의 구절 하나하나를 풀어줄 예정이다. (02)733-7277 laybuddhist.net

11월 24일, 논강 입제식 현장을 찾았다. '<금강경>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입제 법문에 나선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은 '<금강경>과 간화선의 관계가 어떤지'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 등에 대해 1시간 넘게 법문했다.

#간화선의 뿌리 '금강경'

원철 스님은 먼저, <금강경>의 모든 구절이 경전의 내용인 동시에 화두가 된다고 강조했다. '경전에서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인가'가 자연스럽게 수행자에게 의심을 일어나게 하고, 결국 화두가 된다는 것이다. 간화선이 <금강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셈이다.

그 예로 원철 스님은 <금강경>의 '삼세심(三世心:과거 · 현재 · 미래) 불가득(不可得)'이란 구절이 <벽암록> 제4칙으로 화두화 됐다고 설명했다. <금강경> 주석의 대가인 덕산 대사가 시장에서 만난 떡장수 노파에게 "<금강경>에서 삼세심이 불가득이라 했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心)에 점(點)을 찍으려 하는가"란 질문에 말문이 막힌 사연이 바로 그것. 즉 <금강경>의 이 구절이 '마음에는 실체가 없는데, 어디에서 마음을 밝히려 하는가'란 화두가 됐다는 것이다.

#선수행의 안목 열어 준다

원철 스님은 <금강경>이 선 수행의 안목을 열리게 하고, 수행을 하기 위한 경전이라고 강조했다. 즉 <금강경>이 '상(相)이 있다는 것은 허망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는 것이다. 오조 홍인 대사가 법당 벽에 <능가경> 법상도를 그리려다 그만 둔 것도, 신수의 게송을 인정치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원철 스님은 홍인 대사의 "<금강경> 한 권만 지니고 있으면, 곧 자성을 보아 바로 부처를 이룬다"는 말을 인용, <금강경>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일체 존재가 조건의 모임이기에 모두 실체가 없다는 공사상을 체득하게 할 뿐 아니라, 이런 경험이 바로 연기법의 이해로, 반야의 지혜로 이어지게 한다고 설법했다. 즉 <금강경>은 선 수행을 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안목을 갖게 하고, 나아가 초기불교의 정견(正見)과 선종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다.

원철 스님은 또 <금강경> 공부가 선 수행자에게 자기반조의 계기 내지 수단을 던져준다고 말했다. 수행자 스스로가 '심불반조(心不返照:마음으로 되돌아보지 않고) 간경무익(看經無益:경전을 보면 이익이 없다)'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문자로 얽매여 <금강경>을 읽지 말고, 선적인 눈으로 보라'고 당부했다.

때문에 스님은 <금강경>을 수시로 계속 읽을 것을 조언했다. 만약 수행자가 한 구절 한 구절 끊임없이 읽으면, 어느 순간 그 뜻이 체득돼, 전체를 알게 되는 능력이 생겨 다른 경전도 선적인 안목으로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깨달음의 단서 제공

일체의 고정관념과 분별심을 버리고 무주상보시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금강경>. 왜 간화선 수행에 <금강경>이 중요할까? "한 곳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항상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양으로 부처를 찾거나 보지 말 것"을 강조한 <금강경>의 정신 때문이다. 또 인욕 · 보시바라밀 등을 강조한<금강경> 실천행도 이유 중 하나다.

그럼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일까? 혜능 스님은 <금강경해의>의 머리말에서 <금강경>의 핵심이 무상(無相), 무주(無住), 묘유(妙有)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금강경>은 무상으로 종(宗)을 삼으며, 무주로 체(體)를 삼고, 묘행으로 작용(行)을 삼는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치를 깨닫게 하고 성품을 보게 했던 것이다"라는 글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금강경>의 이 같은 중심사상은 수행자에게 선적 깨달음의 단서를 제공한다. 깨달음의 힌트가 <금강경> 곳곳에 배어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금강경>이 선 수행의 소의경전이 되는 까닭도, 선 수행자들에게 각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주상보시행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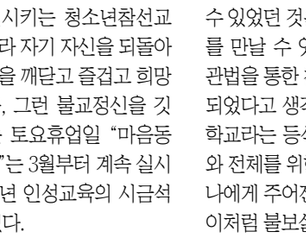
그렇다면 재가불자가 <금강경>에서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무엇이 있을까? <금강경>에서는 '마땅히 상이 없는 마음(無相心)으로 보시한다'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구체적인 보살행으로 꼽는다. 또 수행자 스스로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는 힘을 던져준다. <금강경>에서는 '스스로의 마음을 항복 받는(降伏其心)' 문제를 주된 테마로 다루면서, 잘못된 판단에 물든 청정한 본성을 자기 부정으로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사물에 탐욕심과 분별심을 내지 않으므로 참된 보시행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글 · 사진=김철우 기자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프라쥬나 영성원

당신의 내면 깊이
잠들어 있는
불성을 깨워드립니다.

지금,
몸과 마음의 시간을
새롭게 맞추십시오.



영성치유
심리상담
자아계발
관법명상

www.munsasu.com

Tel 031)251-5778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35-18 104호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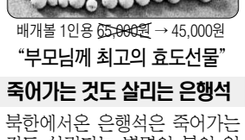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베개볼 1인용 ~~55,000원~~ → 45,000원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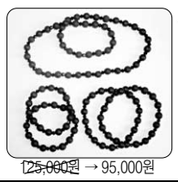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125,000원 → 95,000원

◆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사이버 禪공부 어떻게 할까?

"'개에게 불성이 없다'란 조주 스님의 말이 화두 참구하는데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무' 자 화두를 잘 잡을 수 있을까요?"(태양)

"업식은 분별심을 일으키는 때(垢)란 말인데, 어찌 업식이 불성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개에는 불성이 없다'고 한 조주 스님은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했겠습니까?"(무불)

"위로는 모든 부처님과 아래로 유정무정의 중생이 다 불성이 없되 짓지 못하는 외로운 개만이 홀로 불성을 머금고 있어, 돈연히 일체 제불을 제도하고 있습니다."(태양)

"일체 생각이 푹 쉬어버린 그 끝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무불)

"그 자리도 족쇄를 차고 있는 형국입니다."(태양)

"평안하면 공부가 끝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할 일이 많은 거죠."(무불)



사이버 선수행은 시 · 공을 초월해 선지식을 만나 수행점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진은 일터에서 사이버 수행을 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 법우회원 김종관씨(왼쪽)와 누리꾼 선객들에게 수행지도를 해주고 있는 정목 스님(양산 정토원장).

 # 현실과 수행의 접점, 사이버 마음공부

인터넷 다음 카페 무불선원(cafe.daum.net/mubulsunwon)에서의 '스님과의 대화방'. 매주 목요일 오후 8시30분~10시30분이면, 이곳에서는 '사이버 수행점검'이 진행된다. 재가불자 누리꾼들은 묻고, 무불선원장 석우 스님은 답한다. 일상에서 화두 드는 법, 경계 극복법 등 수행에 대한 모든 의문과 대답들이 오간다.

이 같은 사이버 공부점검은 서울 우곡선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99년 9월 홈페이지(www.zenkorea.org)를 개설한 우곡선원은 재가 수행자가 의심나는 점을 언제든지 선원 홈페이지의 '경계와 점검' 코너에서 해결해주고 있다. 또한 '수행일기'에서는 재가불자가 경계 극복 체험담을 자발적으로 공개해 수행의 경책으로 삼고 있으며, '법상토론'에서는 자신의 경험한 선적 체험을 토론을 통해 검증한다.

무문관 수행을 하고 있는 선도회에서도 지난 89년부터 대구, 제천 등 전국 6곳에 거주하는 6명의 재가수행자를 대상으로 '사이버전자입실점검'을 해오고 있다.

현재 사이버 상에서 수행문답이 이뤄지는 사이트는 대략 20여 곳. 이 가운데 전통 조사선의 선문답 형식에 따라 수행문답을 하고 있는 사이트는 무불선원, 무심선원, 선도회, 우곡선원, 보림선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무불선원과 무심선원, 우곡선원은 실제로 문답식 법회를 통해 조사선의 공부를 지도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활발한 문답이 이뤄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일대일 점검과 참선 법문이 주요 공부 형식으로, '생활선'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도회 지도법사 박영재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는 "사이버 수행은 시 · 공간의 제약 없이 그 자리에서 즉문즉답으로 공부경계를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런 공부원리는 간화선 수행을 확립한 대혜종고 선사가 당대 지식인들과 서신왕래를 통해 공부를 점검했던 <서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지 매체가 편지에서 이메일로 대체됐을 뿐"이라고 말한다.

 # 시간적 공간적 제약 해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시민선방이나 선지식을 찾아 나설 여유가 없다.

직장인 정미자(54 · 경기 양주시청 민원실)씨는 3년째 사이버 선방 '열린절(cafe.daum.net/buruna21)에서 시솝 법현 스님(서울 열린선원장)에게 수시로 자기 수행을 점검받고 있다.

정씨는 "사이버 수행도량에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문을 게시판에 올리면 수시로 스님께서 답변해줘 공부에 유익하다"고 말한다.

선 수행의 대중화 · 생활화 측면에서도 사이버 선공부의 필요성은 대두된다. 선어록에서나 볼 수 있는 수행문답이 더 이상 수행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재가자들 사이에서 불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 동영상 법문 · 설법 텍스트 있는지 확인을

그럼, 수많은 사이버 선수행 사이트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우선 개설된 사이트의 각종 메뉴를 살펴봐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선지식들의 동영상 법문 프로그램과 설법 텍스트 등의 여부'다. 글이나 문자로 선의 세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사이버 수행의 한계성 때문이다.

우곡선원 장명화 원장은 사이버 수행정보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을 가지라고 당부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 수행 점검표'를 만들 것을 권한다.

먼저 자기 생활패턴과 사이트의 지도점검 일정이 맞는지를 확인한 뒤 △점검 지도법사의 직접 친견이 가능한지 △오프라인 상에서 정기적인 법회 및 수행 프로그램이 있는지 △기존에 활동 중인 오프라인 상의 수행생활과 사이버 수행의 병행이 가능한지 △단계별 사이버 수행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알아 봐야 한다.

가령, 수행 초심자가 사이버 수행을 막 시작할 때는 지도법사의 비디오 · 오디오 법문이 있는지부터 파악한 다음, 지도법사의 실시간 수행점검이 가능한지, 경전 및 선어록 공부프로그램의 여부, 수행정보의 메일링 서비스가 지속되는지 등을 알아보면 된다.

 # 선지식과의 오프라인 점검 필요

사이버 상에서 문답을 통한 수행점검에서 주의할 점은 없을까? 수행 지도자들은 정기적인 선지식과의 '면대면(面對面)' 점검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은 "사이버 수행자들의 수행 경험을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적어도 1년에 몇 차례는 직접 수행지도자를 만나 공부를 점검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도회 지도법사 박영재 교수도 마찬가지 지적을 내놓는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 수행문답은 자칫 '불성실한 질문, 엉뚱한 대답'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수행 지도자를 정기적으로 만나, 초긴장 상태에서 공부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글=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수행 문답하는 사이트

무불선원	cafe.daum.net/mubulsunwon
현정선원	www.fuoyee.or.kr
관수련회	www.kwan.or.kr
마하수련원	www.mahazen.org
명상아카데미	www.bodhitao.com
바라보기명상	www.paraboki.net
선림도량	www.daedosun.org
소리산참선캠프	cafe.daum.net/sorisan
아미타파	cafe.daum.net/amitapa
안국선원	www.ahnkookzen.org
여래선원	www.buddhapia.cc
우곡선원	www.zeakorea.org
위빠사나	vipassana.buddhism.org
선객	sungag.buddhism.org
정혜선방	myhome.net해.com/budman
축서사	www.chooksersa.org
호두마을	www.vmcwv.org
보리수선원	www.borisu.or.kr
보림선원	www.borim.co.kr
연방죽선원	lotuspond.compuz.com
구도역정	cafe.buddhapia.com/community/jg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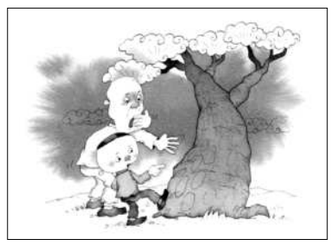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5> 성모전

룸비니의 마야당은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을 모신 곳이다. 부석사에는 당나라에서 신라까지 의상대사를 쫓아온 낭자를 위한 한 평정도 크기의 선묘당(善妙堂)이 단아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리하여 조사전의 길목을 천년동안 지키고 서 있다. 대사를 위해 그 무거운 바위를 공중에 띄우는 이적을 보여 천년가람의 터를 닦아주었다.

김제 만경벌에는 진묵대사의 어머니를 모신 성모암(聖母庵)이 있다.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之地)'라고 했다. 자손이 없어도 천년동안 제사를 받을 수 있는 명당이라고 하여 찾는 사람이 많다. 특히 출가한 스님네들은 자손없이 천년동안 제사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들러야 할 곳으로 알려진 그 전설은 공개된 비밀이기도 하다. 이는 법손의 융성과 불법의 흥성을 바라는 또 다른 마음의 표현이라 하겠다.



지나는 길에 한번 들렀다. 절은 마을 구석에 다소 초라해 보였지만 모친의 무덤만큼은 단아하게 가꾸어져 있었다. '고시례전'에는 영정도 함께 모셔놓았다.

5조로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 기린 곳 룸비니에 마야당, 김제에 성모암 있어

6조혜능 선사의 스승인 5조홍인 대사가 머물던 호북성 황매현 동산의 오조사에는 성모전(聖母殿)이 있다. 이름 그대로 홍인 스님 어머니를 기리는 전각이다. 그런데 홍인 스님의 어머니는 처녀였다.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이건 핑계가 아니라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것이다.

4조 도신 스님이 파두산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다. 그 산중에 이름없는 노승이 함께 살고 있었다. 그 노장은 늘 소나무만 심는 것으로 수행을 대신하고 있는 까닭에 재송도인(栽松道人)이라고 불렸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신 스님에게 법을 청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퇴짜를 놓는 것이었다. 속내는, 설해줘 봤자 늙어서 별로 써먹지도 못할 것이라는게 그 이유였다.

설사 도를 깨친다고 한들 널리 펼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몸을 바꾸어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노승은 그 길로 황매산을 떠났다. 마침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는 처녀를 보고서 정중히 물었다. "쉬어갈 수 있겠소?"

"제 부모님이 저 마을에 살고 있으니 부탁해 보십시오."

"그대의 허락이 필요하오."

별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노승은 사라졌다. 노승이 원하는 바는 그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처녀의 태에서 열 달을 쉬고서 다시 태어날 생각으로 동의를 구했던 것이다. 그녀는 주씨 집안의 막내딸이었다. 그 날 이후 태기가 있었다. 그 부모는 남부끄럽다며 엄청 꾸중을 했다. 딸로서는 영문을 모르는 일이니 참으로 억울했다. 그러나 달빛이 그녀가 가는 곳을 따라 뜨락과 방안으로 비치어 밤새도록 대낮처럼 밝았으며 그윽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웃사람들이 모두 놀라면서 함께 기뻐하였다. 아이가 다섯 살이 되자 어머니께 하직인사를 올리고는 옛날 도신 선사를 찾아갔다.

"재송(栽松)이가 왔습니다."

"무엇으로 그대인줄 증명하려는가?"

아이는 방 앞에 자기가 심어놓은 소나무를 가리키면서 '린포체'임을 알렸다.

그리하여 4조 법을 이어 5조가 되었다.

홍인의 제자들은 스승을 낳아준 그 처녀어머니를 위해 위로겸 보은의 의미로 오조사에 성모전을 지었고 천년이 지난 오늘까지 향화를 올리고 있다. 무위자(無爲子)스님의 오조선사 영정찬은 이를 잘 압축해놓고 있다.

누군들 아버지가 없으리오만 조사에겐 오직 어머니뿐(人孰無父祖獨有母)

그 어머니가 누구신가 하면 주씨 집안의 막내딸이었네(其母爲誰周氏季女)

도도히 흐르는 냇물이 큰 강으로 흘러가듯이(濁港滔滔入大江)

문 앞은 변함없이 장안으로 가는 길이로다(門前依舊長安路)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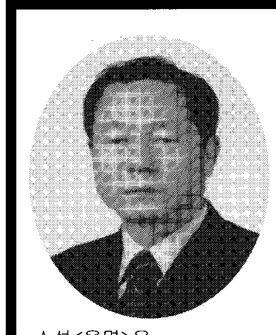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운(大吉運)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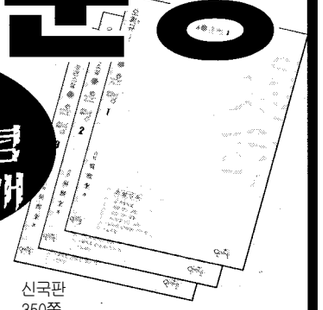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교도소 수감생활 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7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18강 붓다, 세존, 여래는 같은 분들인가

이미, 그리고 늘 여기 계시는 여래들

수보리가 일어나 "합장 공경하면서, 붓다(佛)께 사뢰었다. '희귀한 일입니다. 세존(世尊)이시여. 여래(如來)는 보살들을 잘 지켜주시며, 또한 잘 이끌어 주십니다.'" 而白佛言, 希有世尊, 如來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붓다

오늘은 여기 등장하는 배역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동안 늘 독송하던 것이지만, 누가 누군지 몰라 답답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보리는 '붓다'를 향해, '세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래'께서는 하고 묻는데... 이 세 분은 같은 분입니까, 서로 다른 분들입니까.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는 뜻이고, '세존'은 '세상(世)에서 가장 고귀한(尊) 분'이라는 뜻입니다. 붓다는 산스크리트 buddha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한자로는 불타(佛陀)로 음역되었다가, 줄여서 불(佛)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세존은 의미를 살린 번역입니다. 두 용어의 성격이 전혀 다르지요.

지금 맥락에서 '붓다'는 객관적 호칭인 데 비해, '세존'은 앞에 선 분을 향해 올리는 존칭이지만, 가리키는 대상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래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하자면 곡절이 좀 복잡합니다. 우선 붓다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는 것을 일러두겠습니다. 요컨대 깨달은 사람은 다 붓다입니다.

물론, 기원전 6세기에 석가족의 왕자로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고 불교의 복음을 열었던 창시자 고타마는 한 분이지만요.

불교는 그 '깨달음'을 그러나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게 위대하고도 위대합니다. 고타마 붓다는 자신이 특별한 은총이나 선택에 의해 깨달음을 점지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길을 열어갔으되, 그것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다고 말한 점에서 아무런 특권 의식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 아니다. 나 이전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길은 늘 옛길이었다."

불교는 그 말에 따라 이를테면 붓다들의 주기를 계산하고, 왔다 간 분들의 계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금강경> '제10장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을 들추어 보십시오. 거기 연등불(디판카라)이 등장하고 있지요. 연등불은 고타마 그분의 바로 앞 전임자 붓다입니다. 고타마 붓다는 그분의 처소에서 오랫동안 법을 익히고 수많은 세월을 거친 후, 새로운 붓다로 등장합니다.

여래

그래서 붓다는 "이 땅에 왔다가 가고, 또 다시 오고 가실 분"입니다. 그래서 여래(如來)라고도 부릅니다. '오시고 또 가시는'의 뜻을 다 적자면 '여래여거(如來如去)'인데, 너무 길어 여래로 줄여 부릅니다.

선사라면 여래가 "그냥 이렇게 왔다가 갔다"고 말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바람처럼 흔적 없이, 목적 없이 때가 되면 꽃처럼 피었다가, 때가 되면 인연따라 떠나는 걸림없는 삶을 이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 오고감에 무슨 토를 달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아주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핀 야부 또한 바로 그 경계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생들인 우리는 그렇게 무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셨다. 사바에 고통받는 우리네 속세의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천상의 영원한 축복을 마다하고, 굳이 이 더러운 땅 예토(穢土)로 강림하셨도다."

이 간절한 비원은 그분이 가시는 걸음도 차마 '그냥 그렇게'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네 중생들을 일깨우기 위해, "올바른 길을 밝고 진리를 향해 가셨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길이란 구체적으로, 사정제의 마지막 진리, 구원에 이르는 훈련인 팔정도(八正道), 줄여 삼학(三學)을 일컫는 것이겠습니다.



호념(護念)

여래는 붓다처럼 한 분뿐이 아니라 여러 분입니다. 기원전 6세기 샤카족의 왕자로 태어나 출가, 고행하여 보리수 아래 깨달음을 얻고, 40여년 법의 바퀴를 굴리다가 입적하신 그분, 고타마 붓다는 사실은, 위에서 말했듯이 줄줄이 이어진 그 수많은 여래들의 행렬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붓다 이전에만도 28명이 있었느니, 등등 설은 분분합니다. 당연히 붓다 이후에도 수많은 여래가 와서 붓다가 되었고, 지금도 그분들이 지구촌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여래들이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콩깍지 덮인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 수많은 여래들이 진리를 향해 발심하고, 사람노릇을 하고자 분투하는 정신의 영웅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있다고요…

여래는 바로 그 사람들, 진리를 향해 발심하고, 사람노릇을 하고자 분투하는 정신적 영웅들,즉 보살(菩薩)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문은 '호념(護念)'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념(護念)이란 "늘 곁에서 지키며,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길, 진리를 향해 내딛는 걸음은 정말 외롭습니다. 수닷타 장자(須達)도 그러했지요. 저번 기원정사의 설화에서 그의 주저와 두려움에 적어준 적이 있습니다.

불성(佛性)

"그는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 속에서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다시는 이전의 익숙했던 삶으로 돌아올 것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야차 시바카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코끼리와 말, 나귀 수레 백대도, 보석 귀고리로 장식한 수백명의 여인들도, 네가 내딛는 한 걸음의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나아가라, 장자여. 나아가라, 물러서지 마라!'" 드디어 수닷타 장자는 인디아나 존스의 해리슨 포드처럼, 절벽 앞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던 길이 생겨 자신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여래는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래(如來)를 본 사람이 있기나 합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셔, 이 작은 나를 지켜주고 이끌어 주고 있다 하시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비유를 빌리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느끼고, 또한 그 원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래들의 보호는 기실 자기 내부에 있는 불성의 다이아몬드가 가진 힘입니다. 자기 속의 불성과, 이웃 속의 불성, 그리고 우주에 편만한 선한 힘들은 서로 연관 연기(緣起)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래께서 오고 가기 전에, 그분은 이미, 그리고 늘 여기 계시다고 하겠습니다. 딴데 믿고 의지할 생각 마십시오. 여래는 오직 내 마음 속에 있고, 길도 또한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금강경> 제 29장 위의적정분(威儀寂靜分)은 이렇게 놀래킵니다. "여래께서는 이렇게 오시지도, 그렇게 가시지도 않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㊹ 법안 문익 선사의 '마음'

조태호



법안문익(法眼文益 ; 885~958): 법안종을 일으킨 송나라 고승. 저강성 출신으로 <종문십관론>을 지었음.

네티즌 교리문답

세계(世界)의 불교적 의미는?

문 우리 중생들은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하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럼 세계란 말의 불교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계로 가는 보살)

답1 : 우리에게 세계는 지구를 중심으로 한 공간적 개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과학이 발달하며 이 세계라는 개념이 우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에게 세계는 우리가 존재하며 일상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을 의미하고 있지요.

하지만 불교에서 세계의 개념은 다릅니다. 현상적으로 나고 죽고 멸하는 현상계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불교에서는 세계를 설명할 우주 성립구조를 수미산 설에 의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아홉 개의 산과 여덟 바다가 있으며 다시 사해와 해 달을 포함한 단위를 일세계라고 합니다. 일세계를 합친 것을 소천세계(小千世界) 이를 천개 합친 것을 중천세계(中千世界) 이를 천개 합친 것을 대천(大千)세계라고 하지요. 대천세계는 소 중 대의 천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삼천대천세계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 세계란 인간의 능력으로 환산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을 훌쩍 뛰어넘어 있지요.

그만큼 광오하고 무량한 시간과 공간적 개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광오한 의미를 가진 세계는 본래 부서질 장소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계를 무상(無常)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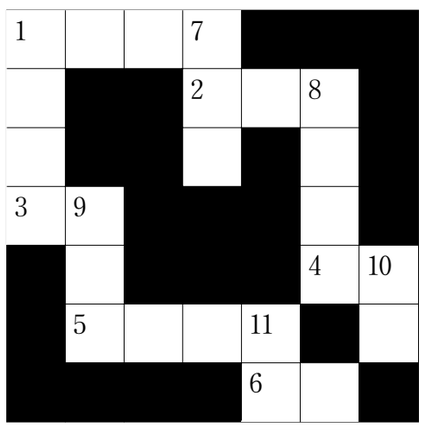
답2 : 시각적으로는 나고 멸하고 변화가 있고 공간적으로는 한정된 장소를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세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世)는 변하여 흐르는 것이고, 계(界)는 방위이니 동서남북 동남서북 상하가 계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세계이니라."

또한 불교에서는 세계를 유정(有情), 무정(無情), 기(器) 세계로 나눈다. 유정세계란 주로 산하 대지인 세간만의 세계를 세계라고 일컫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세계는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적 개념의 한정된 공간이었듯이 불교에서도 세계는 모든 존재의 변화를 상징하는 시간과 공간을 함축한 개념이지요. (시공초월)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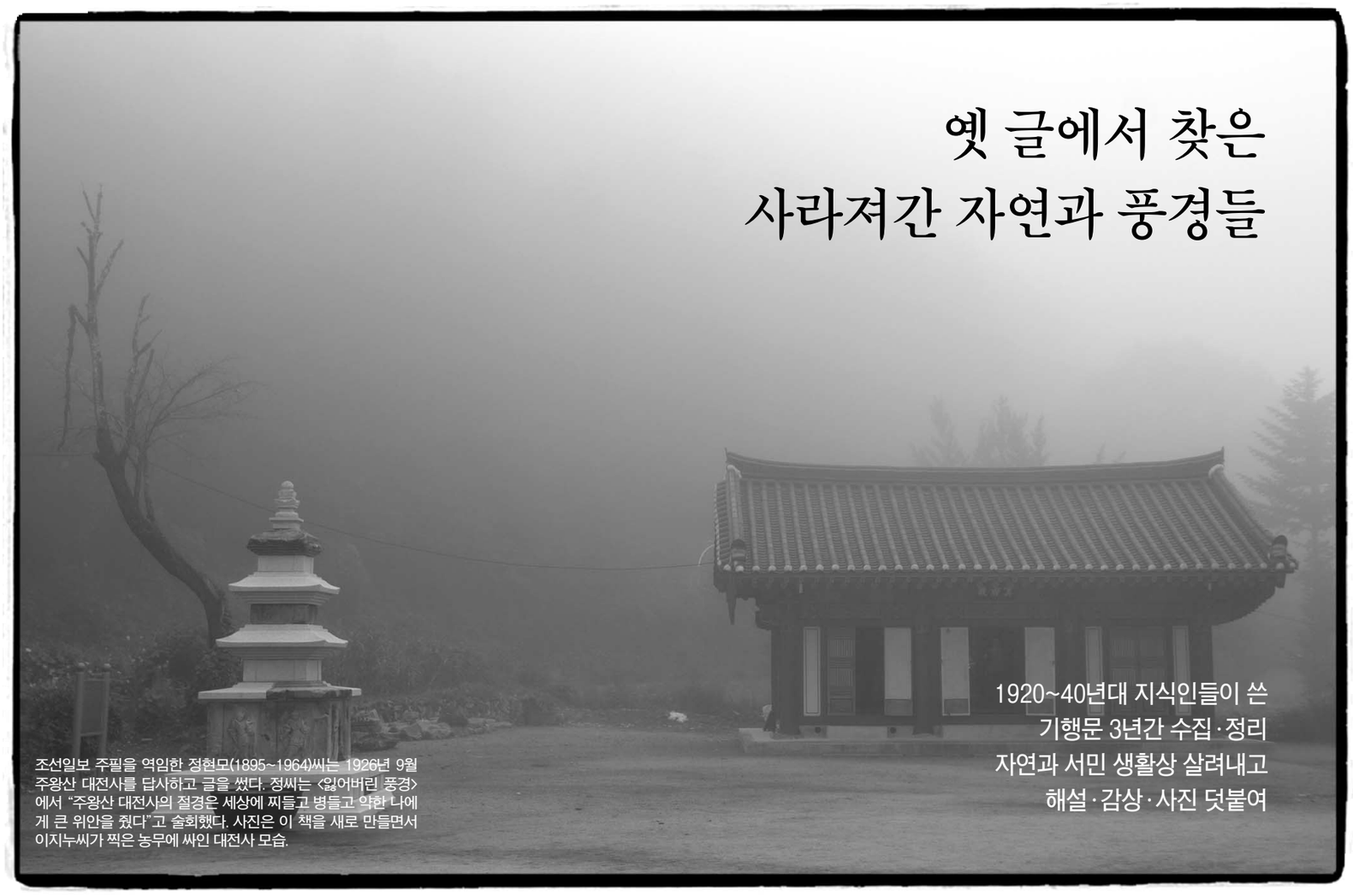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앉은 자리에서 휘둘러 쓴 글씨나 그림 2. 불교의 삼신불 가운데 하나로 우주의 진리를 인격화한 부처 3. 자연주의 채색기법을 도입한 뭉크의 대표작 4. 용량의 단위로 1입방 데시미터를 이름 5. 은혜를 입은 고마움이 뼈에 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 6. 동물을 의인화한 이야기로 인간세상을 풍자한 고대 그리스인.

세로 1. 석가모니의 가계와 그 일대기를 기록한 책으로 수양대군이 간행 7. 조계종의 사법기관은 호계원, 검찰기관은 ○○○ 8. 석가모니 다비에서 나온 손가락뼈 9. 역대 국왕의 시문, 서화, 고명 등을 보관 · 관리하던 곳 10. 형제간의 나이 간격 11. 고려시대 공주를 중심으로 일어난 민중봉기, '○○ 망소이의 난'.

옛 글에서 찾은 사라져간 자연과 풍경들



1920~40년대 지식인들이 쓴
기행문 3년간 수집·정리
자연과 서민 생활상 살려내고
해설·감상·사진 덧붙여

조선일보 주필을 역임한 정현모(1895~1964)씨는 1926년 9월 주왕산 대전사를 답사하고 글을 썼다. 정씨는 <잃어버린 풍경>에서 "주왕산 대전사의 절경은 세상에 찌들고 병들고 약한 나에게 큰 위안을 줬다"고 술회했다. 사진은 이 책을 새로 만들면서 이지누씨가 찍은 농무에 싸인 대전사 모습.

<잃어버린 풍경 1 · 2>는 옛날 기행문을 모았다. 그 기행문들은 1920년대에서 40년대까지 당시 잘 나가던(?) 지식인들이 쓴 글이다. 1권은 서울에서 한라산까지 남쪽 땅을 여행한 것이고, 2권은 백두산과 그 일대 북녘땅을 둘러본 감상이다.

'우리땅 밟기' 사진작가로 잘 알려진 이지누씨가 <개벽> <별건곤> <삼천리> 같은 옛 잡지를 헌 책방에서 뒤지다 그 속에 흩어져 있는 이 기행문들을 발견하면서 이 책의 출판을 결심하게 됐다. 이 씨는 3년여동안 도서관의 신문자료와 인터넷 공간을 이리저리 뒤져가며 지금의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을 다듬었다. 여기에 글마다 해설과 감상, 그가 찍은 사진을 보탰다.

<잃어버린 풍경1: 1920-1940 서울에서 한라까지>는 1920~1940년 사이에 남녘땅을 탐방한 작가들의 글모음이다. 이병기 이광수 한용운 나혜석 등과 같은 문인, 예술인, 언론인들이 당시의 명승지를 답사하고 쓴 열여덟 편의 기행글을 묶었다.

여기에는 서울에서 벼농사를 짓는 독특한 모습, 주왕산 산 이름에 얽힌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해인사의 풍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자연과 풍경과 사람들이 고스란히 등장한다.

'빛 고운 남색의 비단 허리띠를 내던져 놓은 것 같고 그 곁으로 서강가 공덕리에 이르기까지 군데군데 놓여 있는 초가집은 겨울의 마른 잔디같이 보입니다. 마치 떼가 말라버린 무덤이 다닥다닥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최초의 비행사 안창남이 스물 세 살 되던 1922년 12월 13일 하늘에서 내려다 본 서울 마포의 모습이다. 빠른 속도로 지나친 경복궁은 잡초 우거진 한산하고 쓸쓸한 모습이었고 독립문 역시 외로워 보였다. 이날 그는 서울, 인천 상공을 19분 정도 비행했다. 하늘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곡예 비행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여류 화가 나혜석은 동갑의 일엽 스님을 찾아 1938년 가야산 해인사를 찾았다. 경치도 경치지만 해인사 스님들의 생활에 눈이 먼저 갔다.

'교종인은 보통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마친 뒤 각자 지송하는 경전을 외운 뒤에 오전 6시30분경이면 조반을 먹는다. 그 후에는 각자 임무를 좇아서 종일 일과를 한다. 그중 대승경전을 연구하는 학인들은 종소리에 따라 집합하여 경전공부인 논강을 한다.'

<잃어버린 풍경 2: 1920~1940 백두산을 찾아서>는 수필가 민태원, 대은 스님, 언론인 이관구 그리고 러시아 문호 가린 미하일로브스키 등 이 네 사람이 각각 다른 여정으로 백두산을 답사한 네 편의 기행문이 중점적으로 실려 있다. 이 가운데에서 가린의 백두산 탐승은 1898년의 기록으로서, 외국인이 본 구한말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이 담겨 있고, 박금의 '펑펑물을 찾아서'는 일제에 의해 자행됐을 화전민 촌락 소실이라는 기막힌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다녀온 것을 기록한 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린은 1898년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출발, 기차로 시베리아를 횡단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뒤 두만강을 경유, 조선에 첫발을 디뎠다.

경흥 회령 무산 등을 거쳐 말을 타고 백두산을 오른 그는 "도저히 글로는 형용할 수 없고 사진으로도 전할 수 없으며 다만 그림을 그리는 붓이 필요할 뿐"이라는 말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천지에 오른 뒤에는 "호수는 마법에 걸린 듯 평온한 적막에 싸여 있고 우리와 다른 생명이 숨쉬고 있는 듯 하다"고 했다.

천지에 놀라기는 대은 스님도 마찬가지였다.

'내려다보는 순간 언어가 끊어질 뿐더러 생각조차 텅 비어 버리고 만다…. 바위 색, 구름 빛 모든 색이 천지에 비쳐서 일렁거릴 때는 물빛조차 오색으로 변하여 가지각색의 온갖 빛을 다 보여준다.'

스님은 원래 백두산에 가려 했던 게 아니다. 불자였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수행한 설산을 동경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해 백두산을 제2의 설산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 스님이었지만 천지를 내려올 때는 "우리는 언제까지나 천복만 누릴 수는 없는 범부라서 인간계로 내려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며 크게 아쉬워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잃어버린 풍경 1 · 2
안창남외 지음
이지누 엮음
호미 펴냄 | 각권 1만1천원

전문가 서평



만들어진 전통
지은이 에릭 홉스봄외 5인 지음
박지향, 장문석 옮김
휴머니스트 펴냄 | 2만5천원

이 책은 집단 정체성의 상징, 즉 문화적 정체성의 메타포를 구성하는 과정이 서구 근대성의 이데올로기적 결과물 중 하나라는 점을 보여 준다. 전통은 자의적으로 이해되었을 때 개혁 내지 폐지의 대상으로서 비판적인 담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반대로 낭만적인 향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종종 서로 결합되어 서구 근대성의 특징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문화는 과거 사회에서 누리지 못했던 자리를 차지한다. 하나의 언어를 말한다는 사실, 혹은 이러저러한 관습을 지킨다는 사실이 이처럼 커다란 정치적 중요성을 획득했던 적은 없었다. 점차 민족에 대한 소속감은 문화적, 특히 언어적 기준에 근거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표상되는 사회는 동시에 공통의 무언가, 즉 특징적이고 영원불변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처럼 그러한 전통은 결코 자율적이지도 않고 독립된 존재도 아니다. 이러한 사물은 새로운 사회적 집합체, 민족에 대한 동일시와 소속감의 상징으로 기능하며,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한다. 문화는 정신이면서 동시에 실체이다.

산업화의 산물 전통 이데올로기

이러한 역설은 마치 종교적 상징의 그것과도 같다. 인민의 정신을 위한 의식과 문화의 신성화가 신의 죽음이 선포되고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인민과 민족의 등장을 선포한 바로 그 순간에 출현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홉스봄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통이 대량 생산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 시기에 벌어진 새로운 전통의 대량 발명은 산업 경제의 도래와 도시화, 국민국가의 대두와 새로운 사회 계급의 출현 속에서 매우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

근대 정치 질서는 과거 왕정 질서와는 달리 더 이상 신성한 토대 위에 수립될 수 없었다. 나아가 노동 운동의 진보와 민주주의의 망령 속에서 국가 구성원들의 복종과 충성심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대 민족국가가 의례와 레토릭 그리고 상징물을 필요로 했던 한편, 사람들은 변화의 급류 속에서 안정을 희망했다. 이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전통에 의거하는 방식으로, 즉 과거와 그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전통을 발명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국가와 지배 계급은 의도적으로 신화와 민족의 상징을 생산했고 거대한 스펙터클의 공공 예식을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속-그것은 인민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은 집단적 정체성의 생산과 개념 그리고 표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인다. 문학에서 시작되었다가 과학 분야로 번져갔고 나중에는 아예 전투적인 양상의 운동으로 발전해 버리기까지 민족의 뿌리 찾기 운동은 객관적인 문화적 특질들(언어, 의상, 건축물)과 구체화된 관행들(춤, 노래 등)의 존재에 의해 규정되는 문화적 민족의 영원무궁함을 입증하려는 의지로 무장했다.

■김상미(중앙대 민속학과 강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5. 12. 5
월 · 화 반, 수 · 목반(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토 · 일 전문가 과정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 부 산 :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전동지하철 8번출구
문의 : 051)804-8571. 018-312-7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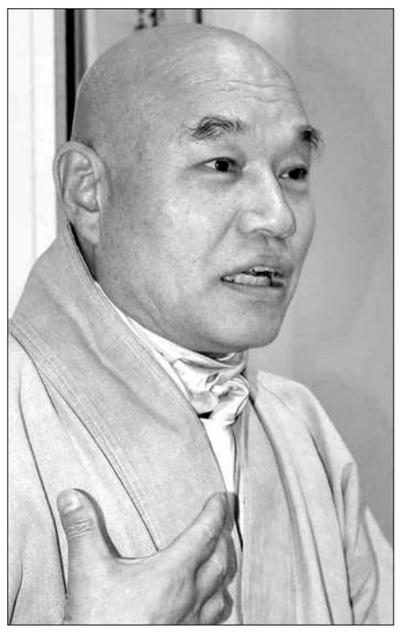
기문 명리학
(특강 : 수지침, 관상, 풍수, 작명, 택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시접수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대학과 방송국에서 강의 중)
초단기 전문가 양성 시스템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정복
(취업 보장)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접수 연락처 02)454-3369
011-775-8709 (지선 법사)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고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1.대령/관욕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욕 20.종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게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30.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8제의식1 38.상주권공48제의식2 39.상주권공48제의식3 40.상주권공48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2권 100,000원
※ 제8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 동계특별교육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비디오 반이상 구입시, 5일간 교육테이프 14개 증정합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연숙)
◆ 제품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새로 얻은 생명 촌각아껴 남김없이 회향”



2년여 전, 통증으로 까무러쳤다가 또 다시 통증 때문에 깨어나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을 때, 무비 스님(범어사 승가대학장)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다. 4개월 남짓 이어진 ‘병고’의 시간은 부처님의 6년 고행에 비할 만큼 엄청난 고통이었고 주위에선 마지막을 준비했을 정도였다.

출판 · 인터넷 포교 열정 불태우는 무비 스님

불교안내서 15권 잇따라 출간

카페 개설 1년만에 회원 2600명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살아 있는 동안, 내 모든 것을 다 회향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진 것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내 생애를 다 바쳐서 부처님 가르침 배워왔으니 힘 닿는데 까지 되돌려주고 가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11월 21일 범어사 서지전에서 만난 무비 스님(사진)이 하는 모든 말들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반짝’ 빛을 낸다. “인생은 짧고 소중한 것이잖아요?” 하시는데 그만 고개가 절로 끄덕여져 버린다. 짧고도 소중한 인생을 남김없이 연소시키기 위해 일분일초를 아끼는 스님의 일상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책 출간에서 짐작되고도 남는다.

스님은 최근 조계종출판부, 운주사 등에서 <천수경> <반야심경> <임제록 강설> <한글세대를 위한 독송용 금강경> 등 15권의 책을 한꺼번에 출간했다. 이들 책은 모두 일반인들이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친절한 안내서다.

특히 최근 펴낸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 명구 모음집>은 스님이 기록했다가 태우고 또 기록하길 반복해오던 불교 명구들을 병상(病床)에서 다시 정리한 것이다. 스님은 곧 700여쪽 분량의 이 책에서 다시 가려 뽑은 명구들을 번역, 해설한 책을 펴낼 계획이다.

또한 조만간 120회에 걸쳐 진행한 <법화경> 강의 시리즈를 펴내고 내년쯤에는 선에 관한 책을 펴낼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몸을 아끼지 않는 스님의 포교 열정이 피워낸 불꽃은 인터넷에서도 뜨겁다. 2004년 11월 개설한 카페(cafe.daum.net/yumhwasil)는 시공을 초월해 법을 전할 수 있도록 실시간 법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풍부한 콘텐츠로 회원이 2700명을 넘어섰다. 평일 접속자수만도 5백여 명을 웃돌아 개설 1년 만에, 7천개에 달하는 다음(www.daum.net)의 불교 카페 중 10위권 안에 들었을 정도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목숨을 걸라”고 주문하는 무비 스님이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는 무엇일까?

“사람이 곧 부처님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지금 현재 그대로의 사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것이 불교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이를 알리는 것이 부처님 밥 축 낸 밥값 하는 거라 믿고 있어요.”

부산/글 · 사진=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처님과 예수님 가르침은 하나”

법륜 스님 – 이현주 목사 공동 출판기념회



11월 22일 서울 영풍문고 강남점에서 열린 법륜 스님-이현주 목사의 공동 출판기념회.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수행공동체 정토회를 이끌고 있는 법륜 스님과 불교와 기독교를 아우르는 저술활동을 펼쳐온 이현주 목사가 한자리에서 만났다.

최근 각각 <붓다, 나를 흔들다>(산티 刊)와 <이현주 목사의 꿈일기>(산티 刊)를 펴낸 두 사람은 11월 22일 영풍문고 서울 강남점 이벤트홀에서 100여 명의 독자들과 만나 공동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이 목사는 1999년 부처님 오신날 법륜 스님의 초청으로 정토회에서 설교를 했고, 법륜 스님은 2001년 이 목사가 <이 아무개 목사의 금강경 읽기>를 출간했을 때 추천사를 쓰는 등 서로 교우를 맺어 왔다.

법륜 스님이 올 초 불교방송에서 했던 ‘100일 법문’ 내용을 간추린 <붓다, 나를 흔들다>와 이 목사가 지난 한해 기록한 일기를 모은 <이현주 목사의 꿈일기>는 비록 ‘불교’와 ‘기독교’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깨달음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붓다, 나를 흔들다>는 ‘화가 나거나 욕심이 날 때 혹은 남이 나를 비난할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일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법륜 스님은 부처님을 만나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법륜 스님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그 분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려 애쓴다면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환갑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묵언수행을 했던 이 목사는 “묵언 기간 동안 성대를 울리지 않았을 뿐이지 손으로 눈으로 급하면 글씨를 써서라도 말을 했다”고 고백한다.

“진짜 묵언은 내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묵언을 통해 ‘나 자신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를 고민했고,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는 말자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현주 목사의 꿈일기>는 묵언 기간 동안 꾼 꿈에 대한 이 목사 나름의 해설을 덧붙인 책이다. 이 목사는 일상적인 꿈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한다.

‘명상의 시간’ ‘독자와의 대화’ 순서 등으로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출판 기념회에서 두 사람은 “행복을 밖에서 구하지 말고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현성 스님 ‘동안거’, 민족사 출판공모전 우수상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가 실시한 제1회 ‘민족사 출판원고 공모’ 결과 현성 스님(현암사 총무)의 ‘동안거’가 우수작에 선정됐다.

참신한 원고와 대중적인 필자를 개발함으로써 불교출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 ‘민족사 출판원고 공모전’은 두 달여라는 길지 않은 공모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32편의 원고가 접수돼 불교출판원고 공모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동안거’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스님들의 선방 생활을 간결하고 사실적인 문체로 그려낸 수필이다.

우수작에는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원고는 민족사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한편 민족사는 매년 출판원고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02)734-2404 **여수령 기자**

한승원씨의 담백한 인생론

이 세상을 다녀가는 것 가운데
바람 아닌 것이 있으랴

한승원 지음 | 황금나침반 | 9천8백원

소설가 한승원씨가 자신의 인생관과 작품관을 담은 <이 세상을 다녀가는 것 가운데 바람 아닌 것이 있으랴>를 펴냈다. 자신이 나고 자란 전남 장흥의 바닷가를 ‘문학의 모태(母胎)’라 밝혀 온 한씨는 장흥 바닷가에 ‘해산토굴’을 짓고 살면서 얻은 깨달음을 ‘표현의 기교 장치’를 모두 버리고 직설적이고 간결한 언어로 털어놓는다. 이 책의 부제처럼 ‘세상과 삶의 경계에 선 노작가의 깊고 겸허한 인생론’인 셈이다.

스물여섯 살 되던 해 봄에 결혼한 아내와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부터 고향 노인들의 무욕한 얼굴에서 느끼는 평화, 꽃 · 나무 · 새 · 차(茶)로부터 얻는 열락이 향기로운 문체에 담겨 있다.

천성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초록의 공명
지율 스님 지음
삼인 | 1만2천원

올해 초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율 스님의 단식. 고속철도 (KTX) 천성산 관통터널 굴착공사를 반대하며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무려 100일 동안에 걸쳐 진행된 이 단식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남아 있을까? 정부가 내세운 공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여론몰이식 언론 보도로 인해 지율 스님 단식의 참의미는 상당부분 왜곡돼 있을 것이다.

지율 스님의 생명건 11개월간의 기록

단식 해제 후 스님의 단식을 기네스북 기록경신처럼 보도하며 떠들썩했던 언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하고 정부가 약속한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는 지율 스님을 배재한 채 진행되고 있다.

천성산은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야 할 것인가?

스님의 두 번째 책 <초록의 공명>에는 2004년 3월 10일부터 100일 단식을 끝낸 올 2월 3일까지 기록한 스님의 일기와 편지글, 자연에 대한 단상, 강연원고, 외부인사들의 기고글, 신문기사 그리고 천성산 사건 진행일지 등이 담겨 있다.

스님의 글은 자신을 향하는 일기나 다른 이들(대통령과 변호사, 도롱뇽의 친구들 등)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읽다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알게 된다. 또한 이 글들은 ‘지율 스님의 뜻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천성산 사건이 정확히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지율 스님이 산사에서 나와 싸워야 했는가를 묻고 있다. 그리고 지율 스님은 말한다. 천성산은 개별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 국토를 살리고 생명과 문화를 살리는 원점이 아니겠느냐고.

천성산 투쟁으로 우리의 병든 산하(山河)만큼이나 병든 몸을 이끌고 국토순례에 나선 지율 스님은 언제쯤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무비 스님과 조현춘 교수가 심혈을 기울인
한글 세대를 위한 독송용 경전 ①~⑩
정확하고 유려한 번역, 편안하고 시원한 편집, 알기 쉬운 용어해설!
대강백 무비 스님과 경북대 조현춘 교수가 불자들에게 사랑 받는 주요 경전들을 누구나 쉽게 그 뜻을 이해하고 독송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한글 세대가 독송하기 좋게 경전의 뜻을 정확히 전하면서도 쉽고 유려한 우리말로 옮겨 놓았으며, 기존 독자들을 위해서는 한문 독송용 원문을 함께 싣고 있다.
① 지장경 218쪽/ 7,000원
② 관음경 94쪽/ 5,500원
③ 불유교경 108쪽/ 6,000원
④ 백팔대참회문 136쪽/ 5,500원
⑤ 금강경 194쪽/ 6,500원
⑥ 아미타경 90쪽/ 5,000원
⑦ 보현행원품 190쪽/ 6,500원
⑧ 예불문(천수경) 122쪽/ 5,500원
⑨ 일반법회 120쪽/ 5,500원
⑩ 매일법회 96쪽/ 5,000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25-1 칭송빌딩 3층 출판부 02)926-8361 총판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부처님 명호를 독송하거나 모시면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만불명호경 萬佛名號經
각종 경전에서 일만 부처님 명호를 뽑아내어 독송하기 쉽게 편집함을 물론, 부처님처럼 모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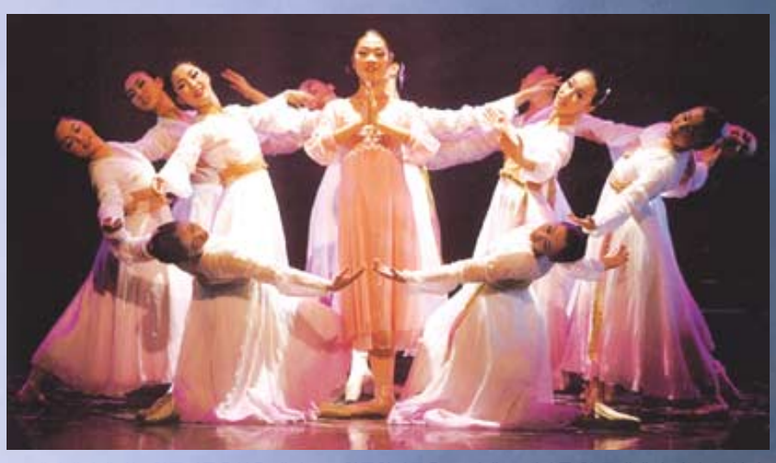


월운 스님 감수/1,008쪽/사륙배판
금장 가죽양장/45,000원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제 부처님의 이름을 선남자 선여인들이 받아 지녀 읽고 또 외운다면 그 사람은 현세에 안은히 모든 어려움을 멀리 여의고 모든 허물이 소멸될 것이요 미래에 분명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불설불명경

삶 · 죽음 · 깨달음의 몸짓

손재현무용단 창작발레 '제망매가' 12월 12일 한국문화의집서 초연



제망매가에서는 한국전통음악을 배경으로 한국창작무용, 모던댄스, 발레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으매 두려워지고
나는 갑니다 하는 말도
다 못하고 가버렸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 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낳아 가지고
가는 것 모르누나
아아 미타찰에서 만나볼 나는
도를 닦아 기다리련다.

—월명사, '제망매가'

죽음과 삶, 누이의 죽음을 통한 인생무상. 손재현무용단(단장 손재현)이 선보이는 창작발레 '제망매가(祭亡妹歌)'에서 그 해답을 춤으로 보여준다. 12월 12일 오후7시 한국문화의 집-KOUS 전통예술공연장(02-567-6978)에서 초연되는 '제망매가'는 신라시대 월명대사의 향가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이번 작품은 천도재를 시작으로 누이와 속세에서의 인연을 기린 과거, 누이의 죽음을 직면한 현재 그리고 서방 정토에서의 만남을 기다리는 미래로 나누어 무대를 구성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누이의 죽음 앞에서 동생 월명 스님이 느끼는 슬픔과 허무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스님이 느낀 감정은 해탈을 향한 스님의 정진 과정에서 깨달음의 밑거름으로 변화한다. 불도를 닦아 이미 극락세계에 가 있을 누이를 만나겠다는 그의 의지는 격렬한 몸짓으로 승화된다.

제망매가에서 드러내는 불교적 생사관은 인간의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불교적 깨달음으로 연결시키도록 한다. 죽음과 삶이 뒤섞인 인간세계에서 죽음과 삶의 갈등을 항상 겪어야만 하는 인간의 모습도, 그리고 그가 겪는 혼란과 삶에 대한 허무감도 무용수들의 손짓 몸짓을 따라 모던댄스로 표출된다.

손재현 교수(동국대 체육교육과 무용담당)는 "이번 작품은 한국창작무용, 모던댄스, 발레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서양의 클래식보다는 아쟁 등 한국전통 음악을 많이 사용했고, 동생이 누나의 죽음에서 갈등하는 장면과 저승에서 펼쳐지는 클라이맥스 장면이 역동적인 춤사위로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망매가'의 연출은 前 키로프발레단장 에브도키모프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가, 안무는 손재현 교수가 맡았다.



신라 월명대사 향가를 모티브로 제작
한국창작무용, 모던댄스, 발레 한자리
불교적 생사관 역동적 춤사위로 승화

■ 제망매가 구성은?

천도재-신라 서라벌 사천왕사(四天王寺)에서 한 스님이 구슬프게 피리를 불며 재를 올린다.

1막 속세의 인연-소년과 소년의 눈먼 누이는 서로를 의지해 살아간다. 소년의 대나무 피리는 그들의 구슬픈 삶을 음률로 들려준다.

2막 불도(佛道)를 위한 이별-소년과 눈먼 누이를 버리고 도망가는 어머니. 세상의 덧없음을 깨달은 소년은 출가를 결심하고 불도에 정진한다.

3막 재회(再回)-월명이라는 법명을 받고 불법을 전도하러 나선 소년이 피리 불며 지나가는 초가 마을. 곡소리를 따라 들어간 집에서 누이는 이미 창백한 주검으로 누워있다.

4막 죽음의 불교적 승화-슬픔의 회한을 노래하던 월명은 미타찰(彌陀刹)에서의 누이와 만남을 위해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고 다짐한다.

■ 원작 제망매가는?

신라 제35대 경덕왕 때 스님 월명사가 지은 10구체 향가이다. '위망매영재가(爲亡妹營齋歌)'라고도 한다. 월명사가 죽은 여동생을 위하여 지은 노래로 형제를 한 가지에 난 나뭇잎으로 비유했다. 누이동생의 죽음을 나뭇잎이 가을철에 떨어지는 것으로 비유해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먼저 간 누이에게 미타찰이라는 극락에서 도를 닦으며 기다려 달라는 내용을 노래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진제공=손재현무용단

진철문 조각展-생각하는 사람들

11월 15일부터 한달간, 용인 한국미술관



선(禪)이 깃든, 생각이 살아 숨쉬는 조각을 만들어내는 진철문씨의 조각 전시회 '진철문 조각전-생각하는 사람들'이 11월 15일~12월 15일 용인 한국미술관에서 열린다.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 마지막 전시로 기획된 '진철문의 조각세계'의 대 주제는 '생각하는 사람들'. 조각이 사유를 드러내는 방편이자 구극이라 했던 진철문씨의 사상을 형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이다. 선조각(禪彫刻)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내기도 한 그가 만들어낸 '생각하는 사람'은 돌 조각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유의 표상이자, 조각가 자신의 사유이기도 하다. 미술평론가 김영재씨는 "진철문씨의 조각은 사유 자체를 타파한다는 생각과 말이 끊어진 간화선과 같은 세계를 보여준다"고 평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진씨의 오랜 화두였던 여자부처, 중생의 낮은 세계로 내려온 부처 등을 만날 수 있다. (031)284-0471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야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30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겨울반)
2.교육장소	동산 법당 (동산불교회관)
3.개강일시	2005년 12월 7일(수요일) 오후 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계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 학 금	90,000원(3개월)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

◆자세법 : 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례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궤자세, 일어선 자세, 행선, 와선

◆호흡법
• 들숨 :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명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챠크라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 날숨 :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놀핀, 토파민 등의 쾌적 · 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 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氣차게 잘 쉬는 법 · 절을 氣차게 잘 하는 법 참고 비람 (청견스님 지음)」

⊙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컴퓨터 · 수험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 코골며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제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황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 · 발 · 배 · 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건조, 피부거칠,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 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 바람)

◆수련일시
• 서울 군자법당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부산 금정법당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청 견 스 님 011-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1>



호박범벅경과 국수경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수많은 스님들이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후에는 서로가 그 죄에 대해 벌을 주느라 다시 옥신각신 말싸움이 일었습니다. 스님들은 한참 말싸움을 벌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수행자의 법에 어긋나는 여러 죄를 범하였지만 오히려 말싸움이 일었다. 우리끼리 죄를 범하는데 옥신각신 다툼이 인다면 이로 인해 싸움이 더 깊고 무거워진 채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영원히 싸움을 없애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대중들이 이로 인해 불안해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에 휩싸인 스님들에게 부처님은 명쾌하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풀로 땅을 덮듯이 하라. 그로써 다툼을 없애면 된다."(<사분율>3권)

며칠 전 한 세미나장에서의 일입니다.

아주 예민한 현안에 대한 논문 발표와 논평의 순서가 모두 끝났을 때 나는 좀 불만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발표하는 발제자의 견해가 나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는 그 전문가의 발표를 들으면서 잠시 뒤에 다른 논평자와 첨예한 논쟁이 오가길 바랐고 내심 발제자가 무참하게 '깨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역할을 해줘야 할 논평자는 발제자와 같은 의견이라면서 별다른 견해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후 청중들에게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와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 한 분이 발언권을 얻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꼭 반대되는 의견이 서로 대립해서 싸워야 합니까?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 숱하게 보았던 그 싸움들이 나는 보기 싫습니다. 대립해서 싸우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긍정하고 보완할 사항이나 대안을 찾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순간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움찔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리지 않고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려는 저 '구세대'가 미워졌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장을 나왔을 때 자꾸만 그 노인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래, 서로 다른 의견을 대립시켜서 무얼 얻으려 한 거지? 결국은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패하는 꼴을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발전적인 길을 찾기 보다는 패하여 무릎을 꿇는 상대방을 보며 승리감을 맛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옛날 어느 절에 관음기도를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할 때, '관세암보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나가던 객스님이 이 소리를 듣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관세음보살을 왜 관세암보살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던 스님은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천만예요, 관세암보살입니다"라고 우겨댔습니다. 두 스님은 '관세음이 옳다' '관세암이 옳다'라고 싸우다 결론을 내지 못하여 결국 큰스님께 판결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큰스님은 다음날 판결을 내려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세암보살'이라 주장하던 스님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호박범벅죽을 남몰래 쑤어다 큰스님께 가져다 드리면서 다음날 꼭 자기편을 들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관세음보살'이라 우기던 스님이 국수를 가져와서는 자기편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아서 찾아온 두 스님을 앞에다 두고서 큰스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호박범벅경에 보니 관세암보살이라고 나와 있고, 국수경을 보니 관세음보살이라고 적혀 있더구나."

말씀을 마친 큰스님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자리를 뜨셨습니다.(<욕심을 버리는 방법> 칠우스님 지음, 민족사, 78-79쪽)

어떻습니까? 큰스님의 처사가 조금도 미워 보이지 않지요?

물론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겁니다.

절대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 뒤섞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주 가끔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 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비를 가려야 할 모든 경우가 바로 그러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일단 벌어진 상황을 수긍하고 그 자리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며 미래지향적인 길을 찾아내어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간 후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것이 더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분쟁의 현장을 일단 넘어선 뒤에 차분히 돌아보면 시시비비도 좀 더 분명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시비 가리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때가 있지요
현실을 수긍하고 되돌아보면 더 잘 보일겁니다

부처님은 '버려라' 했는데



지상 백고좌

범행 스님

(법주사 · 팔달사 조실)



"사는 것이 힘들다"는 말을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범행 스님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을 바라는 사람은 늘 속을 썩게 마련"이라며 "욕심을 버리는 것이 행복의 첫번째 조건"이라고 말한다.

최신 가요가 울려 퍼지고 올 겨울 유행을 예고하는 형형색색의 옷과 액세서리가 사람들의 눈길을 잡아끄는 수원 팔달로 로데오거리. 젊은이들의 들뜬 열기로 가득한 로데오거리에서 한 발만 물러서면 도심수행도량 팔달사를 만날 수 있다. 길 하나 차이로 거리의 번잡스러움은 간데없고 산사의 고요만이 팔달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곳 팔달사를 40여 년간 지키고 있는 조실 범행 스님은 전날인 11월16일 법주사에서 결제법어를 내리고 온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청하는 자리를 물리치지 않았다.

진성은 물들지 않아 본래 원만한 성품이고(眞性無染本自圓性)
다만 망령된 생각을 여읜 즉 부처와 같으니라(但離妄念則如如佛)

어제 법주사에서 결제에 드는 수행자 200여 명을 만나고 왔습니다. 구도의 길을 걷는 이들을 만나는 것은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수행자들이 결제기간 동안 '본래 자기'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게송을 들려줬습니다.

결제에 들지 않는 재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본성(本性)은 본래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무명(無明)에 싸여 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까요?

처음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이 지구는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땅에는 곤충과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고 초목 과수도 아름드리 우거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과일, 좀 더 많은 곡식, 좀 더 많은 고기를 원하기 시작하면서 농약을 쓰고 비료를 주고 땅을 파헤치면서 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기반인 땅이 죽는데 어떻게 사람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 없는 사람에겐 보시하고
> 욕망 바로 보고 인욕하며
> 수행에 힘써 마음 고요히

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달픈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망상(妄想) 공상(空想)에 사로잡혀 탐진치(貪瞋癡)와 오욕락(五欲樂)에 집착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욕심을 끊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이뤄지지 않으니 성내는 마음, 즉 진심(瞋心)이 생기게 되고 이 진심을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어리석은 마음 즉 치심(癡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이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제 스스로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대로 안 되면 부처님께 '무엇을 해주십시오' '무엇을 이뤄주십시오' 하고 자꾸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버리라'는 것인데, 왜 자꾸 부처님께 바라고 이루려 합니까?

하루 밥 세 그릇 이상 있으면 오히려 귀찮은 겁니다. 재산을 잔뜩 집에 쌓아놓으면 도둑맞을까 걱정만 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속을 썩게 마련이고, 늘 '살기 힘들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탐심(貪心)을 내지 말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왜 달라고만 합니까?

할까요? 마음을 쉬어야 합니다. 나보다 높은 곳만을 바라보며 조급 더 가지려 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진정한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자들은 '육바라밀(六波羅蜜)'을 닦아야 합니다. 계를 지키고 없는 사람에게 늘 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바로 들여다보고 인욕하며, 수행에 힘써 마음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부처님께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는 보시하고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나눠주려고 해야 합니다. 또한 늘 수행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수행이라고 하면 참선이나 간화선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다 외도(外道)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선 외에도 많은 수행법이 있지요. 저는 그동안 수차례 법문을 통해 제가 불문(佛門)에 들어와 수행했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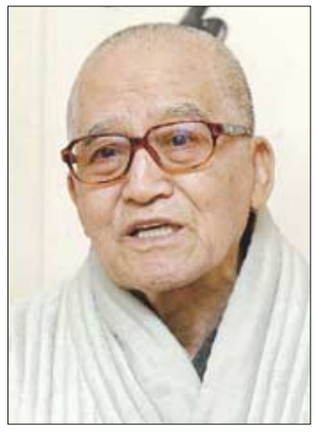
저는 부잣집 육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약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술 담배도 멀리한 채 화학공장을 경영했습니다. 비누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하루는 실험을 하다 공장에서 염소가 터지는 바람에 폐가 나빠졌어요.

우리 집안은 아버님과 두 형님, 작은어머니까지 모두 폐병으로 돌아가셨기에 폐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렇게 살다 젊은 나이에 각혈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닐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한강에 뛰어들기도 했지요. 그런데 구사일생 살아난 거예요. 그때 내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그 후 요양이라도 할 생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10권을 싸들고 금산 태고사를 찾아 갔어요. 당시 태고사에는 포산 스님이 주석하고 계셨는데, 스님과 3주 동안 문학과 철학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부처님법 앞에서 그동안 내가 배운 문학이나 철학이 가진 한계를 뚜렷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가를 결심했지요.

출가 후 포산 스님은 저에게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佛頂心觀世音菩薩母陀羅尼)'를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생사의 위대한 법을 일러주신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이 가고자 잠도 자지 않고 다라니를 외웠습니다.

그렇게 5주 정도 지났을까,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다라니를 외우고 있는데 주치의였던 일본인 의사가 나타나 '이제 다 나았구나. 아주 잘 됐다'고 말하더군요. 깜짝 놀라 깼는데, 정말 거짓말 같이 기운이 나고 아픈 것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가피력으로 지금껏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을 깨닫기 위해 한 생을 비쳐서라도 도를 깨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범행 스님.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근기에 맞는 수행법 찾아
지극한 마음으로 매진을

그 후 서울 선학원에서 조실로 계시던 금오 스님을 은사로 모시게 됐는데, 스님은 늘 '참선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주력 수행에만 매진했던 터라 처음엔 참선이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스승의 말씀을 따르고자 틈틈이 참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공주 마곡사의 토굴에서 정진하게 됐는데, 그때 참선이나 주력수행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러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늘 불자들에게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매진하면 부처님 가르침과 통한다고 말합니다.

염불이든 주력이든 참선이든 자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지극한 마음으로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우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도(道)에 이르는 길입니다. 불자라고 하면서 부처님 생애도 제대로 모르거나 경전 한 줄 읽지 않는다면 어찌 큰 가르침을 얻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참선한다고 벽만 보고 있으면 깨달음이 얻어집니까?

그리고 스님들이나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경전이나 선어록을 봐도 모르던 부분이 저절로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깨쳐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깨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깨친다'는 것은 인연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흔히 불자들은 '인연이 없다' '인연에 따라 이뤄진다'고 말을 하며 인과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인연법의 의미를 제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인연, 즉 직접적인 원인인 인(因)과 간접적인 원인인 연(緣)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과(因果)라고 하지요. 인과란 철저한 것입니다. 미래가 궁금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과거가 궁금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똑바로 보면 됩니다. 불교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신통력 있는 종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알고 보면 이렇게 간단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인과의 법칙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 생을 버려서라도, 한 생에 이룰 수 없다면 누생(累生)에 걸쳐서라도 반드시 도를 깨치고 말겠다는 굳은 서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부처님께 복 빌고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참불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그것만이 크나큰 부처님의 자비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정리=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자연 사랑하고 오후불식하는 것이 건강비결"

범행 스님은

"난 풀들을 만나는 게 참 좋아요. 풀들이 날 보고 '스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난 이 풀 한 포기를 뽑거나 나뭇가지를 칠 때도 '얘들아, 미안하다. 이걸 잘라야겠구나' 하고 얘기해줘요."

전날 법주사까지의 장거리 이동과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범행 스님은 기자를 데리고 직접 사찰 곳곳을 안내해주셨다. '호랑이 담배 피는 모습'이 담긴 사찰 벽화와 씨앗으로 심어 지금은 아름드리로 자란 은행나무, 전국 곳곳에서 모종을 얻어와 심고 가꾼 백목단 · 작약 등을 일일이 일러주던 스님은 "거짓없는 자연처럼 사람들도 자신의 본성을 바로 보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여든 다섯이라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처럼 맑고 깨끗한 얼굴빛을 간직한 스님에게 건강 비결을 여쭙자 "특별히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오후불식하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답하셨다.

1921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스님은 48년 금산 태고사에서 포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55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55년 봉은사 주지, 56년 선학원 중앙선원장, 57년 서울 조계사 주지, 68년 불국사 주지, 71년 대한불교신문사 사장, 75~91년 재단법인 선학원 13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수원 팔달사와 보은 법주사 조실을 맡고 있다.



금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도견 스님

얼마전 신문에서, 일본의 기후JCI회원들이 40대에 접어든 기념으로 드라마 '겨울연가' 주인공인 배용준씨 복장이라는 이른바 '욘사마 복장'을 하고 한국을 찾아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유행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도견(度見) 스님이 떠오른다. 1970~80년대 스님들 사이에선 누더기 옷이 유행했다. 도견 스님은 다양한 색상의 천 조각을 모아 디자인을 하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누비 옷을 멋지게 입고 다녔다.

몇해전 프랑스 패션쇼에서 천 조각들을 조화롭게 디자인한 의상들이 선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의상들은 이미 도견 스님이 개발했던 작품이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도견 스님의 예술적인 감각은 주위의 인정을 받았다.



그림 · 문병성

누더기 옷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승복을 큰스님께 받으면 마치 법을 전수받은 듯 좋아했고, 큰스님의 훈기를 느끼며 닮아가려고 발심하며 열심히 입고 다녔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스님들 사이에서는 새 옷보다 누더기 옷이 수행자의 상징처럼 되었고, 그럴수록 큰스님의 누더기는 더욱 진가를 발휘하여 산골짝 스님들의 유행(遊行, 돌아다님)은 계절을 초월하여 유행(流行)이 되었는가 하면, 무더운 여름철에도 입고 다니는 기현상도 벌어져 도심지 스님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었다.

80년초, 나는 도견 스님과 처사 한분과 동행하여 설악산 오세암 산행을 한 적이 있다. 비선대를 올라가는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자 공원관리소에서 입산을 통제하고, 수십명의 산악인명구조대원들은 낙상한 사람을 구해 내려오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공원관리소 직원들은 우리를 보더니 산 넘어 절에 가는 스님인줄 알았는지 통제를 하지 않았다.

도견 스님은 늦은 시간이고 눈발이 염려되는 듯 망설였지만 나는 모처럼의 등산이기도 했고, 인사까지 받았는데 그냥 돌아가서야 되겠느냐며 고집을 피웠다. 여러번 다닌, 모두에게 익숙한 등산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빠르게 걸었다. 걷다보니 어둑하고 약간의 눈발조차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았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기 시작하더니 눈발이 굵어졌다. 도견 스님은 처사를 먼저 오세암에 보내고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 계속 산행했는데 눈이 쌓이다보니 발자국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어두운 데다가 산봉우리들이 눈으로 덮여 방향감각마저 흔들렸다.

그렇지만 설악산의 '산악도사'라 할 수 있는 도견 스님의 감각적이고 조심스러운 산행은 계속되었다. 당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던 나는 땀에 젖고 눈에 젖어 몹시 힘이 들었고, 피곤해 졸음까지 왔다. 그러다 보니 걷는데 진전이 없었다. 결국 걷는 것을 포기하고 안 되겠다 싶어 소리를 지르면서 위치를 알렸다. 만약을 위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눈을 치우고 나뭇가지를 모았다. 불을 피우고자 하였으나 찾아보니 성냥 3개가 전부였다.

길은 못 찾아도 성냥만 있으면 추위를 피할 수

멋스런 누더기 누비옷
디자인해서 지어 입어

있고 내가 있는 위치를 상대에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성냥개비를 하나 둘씩 불을 붙였으나 눈과 땀에 젖어 부지직 하면서 꺼져버렸다. 성냥개비를 다 소비하고 나니 초조하고 불안한 생각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도견 스님은 초조해 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눈만 펑펑 쏟아지고,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만 울릴 뿐이었다.

그런데 마침 희미한 빛이 우리쪽을 비췄다. 거듭 소리를 지르자, 도견 스님은 메아리가 울리면 방향을 찾기 어려우니 랜턴빛이 우리쪽을 비칠 때 소리를 질러 방향을 알리자고 했다.

그렇게 하다보니 마침내 우리를 찾으러 내려온 스님과 처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오세암과의 거리가 불과 500여m정도였다. 언젠가, 어느 등산객이 오세암 500m를 앞두고 조난을 당해 죽었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아닌게 아니라 우리가 그 꼴이 될 뻔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날 백담사로 가야 하는데, 피곤하기도 했지만 두꺼운 누더기옷이 마르질 않았다. 덕분에 3~4일을 오세암에서 보내게 됐다. 오래간만에 사방이 조용한 곳에서 보내니 누더기를 주었던 도반의 따뜻한 마음이 생각났다. '큰스님 옷'이라며 나에게 주었는데… 공부 잘 하라는 뜻이 들어있을 터였다. 내가 이 옷을 입을 자격이 되나 되돌아보았다. 더러 망상이 생길때 누더기옷을 입고 있으면, '나는 누구인가' 화두를 챙기게 된다. 나의 현 위치를 점검하게 하고 초발심 때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 **남양주 무량사 주지**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토르말린,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장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척추의 만곡을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아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정화기에서 연신화기를 이루어 연신환허에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자 및 원단사용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열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콘트롤러 : 온도조절 가능

제품 가격
- 스님용참선방석: 180,000원
- 참선방석 : 145,000원
- 절방석 : 75,000원
- 건강좌욕방석 : 94,000 ~ 98,000원
- 자동차방석 : 58,000/88,000원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식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땀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은이온수 토르말린, 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있습니다.
- 최고급원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제 조 원 : ㈜예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 예간하이텍)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갈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부터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에 불과했던 샨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 라마의 숨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지침으로 되살아 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죄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낭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학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젖어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매번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입보리행론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 제 5장 호계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 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행사일정

A팀 : 12월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B팀 : 12월 3일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
- 주 관 :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지하철 홍제역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라파엘' 팀 남미 연주자의 모습.



이수역에서 브레이크 댄스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 '부기다운' 팀.
사진제공=레일아트

지하철에서 여유를 즐긴다?

세계 각국 전통음악 · 댄스공연 자유롭게 열려

지하철에서 즐기는 문화공연

11월 23일 수요일 6시 지하철 3호선 홍제역. 퇴근 시간 무렵에 어디선가 라틴음악 소리가 들려온다.

판쵸를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채 작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주위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더욱 신나는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목청을 높인다. 피곤한 퇴근길이지만 사람들은 안데스 산맥에서 온 이방인의 구성진 음악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짓는다.

같은 시간, 서울과 부산의 다른 지하철역 몇 곳에서도 각기 다른 공연이 펼쳐져 퇴근길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공연은 남미 음악, 한국 음악, 락 공연 등의 음악 공연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브레이크댄스, 어르신들의 포크 댄스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가끔은 음악이 듣고 싶고 문화 공간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나 시간도 여의치 않고 찾아 가는 길도 너무 멀다. 게다가 이제 날씨까지 춥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하철 공연'은 안성맞춤 메뉴다.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단연 지하철이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사람들로 꽉 메워진 객차에 들어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란 쉽지 않다. 빡빡한 일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하철 공연 한 소절은 '내 마음에 여유를 찾아주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지하철역 공연은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지나는 길에 '한번쯤은' 보고 듣게 된다는 점에서 이점을 갖는다. 게다가 프로그램들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점에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느끼게 한다.

또 공짜다. 그렇지만 아주 공짜는 아니다. 길을 멈추고 있을 만한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만 지하철 공연을 제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집에 가는 길, 종종걸음으로 바쁘게 집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좋은 공연을 한 번 보고 듣는 것도 삶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지하철에서 공연하는 팀들에게 조그만 시골 기차역 등에서도 서울 지하철역의 공연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려면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 (02)6211-2132~3 http://www.railart.co.kr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상암월드컵 경기장역에서 펼쳐진 '요들 페스티벌'. 사진제공=레일아트



'잉카 엠파이어'의 서울역 공연.



서울 사당역에서 가야금 연주를 하는 '12현'. 사진제공=레일아트

■지하철 문화공연 장소 · 시간

서울	1호선	서울역(상설:매 주말과 평일 3시~5시), 석계, 왕십리, 종각, 종로3가 등
	2호선	사당(상설:매주토요일 저녁, 이외에도 다양한 공연 진행), 을지로입구(상설:토요일 오후2시 클래식과 연주 위주), 건대, 대림, 신당, 왕십리, 을지로4가, 합정 등
	3호선	교대, 연신내, 충무로, 홍제 등
	4호선	사당(상설:매주토요일 저녁, 이외에도 다양한 공연 진행), 이수(상설:매주 토요일 오후4시, 락 공연 주류), 노원(상설:매주 토요일 오후, 춤과 무술 공연 위주), 삼각지 등
	5호선	합정(상설:매주 금요일 오후6시30분, 종합공연), 왕십리, 천호 등
	6호선	합정(상설:매주 금요일 오후6시30분, 종합공연), 태릉입구(상설:매주 월요일 저녁, 종합공연), 삼각지 등
	7호선	이수(상설:매주 토요일 오후4시, 락 공연 주류), 태릉입구(상설:매주 월요일 저녁, 종합공연), 강남구청, 학동 등
부산	1호선	서면(일시는 확정적이지 않음. 음악공연 및 부산 'Rail Art' 문화보급을 위한 종합공연)
인천		부평(매주 목 · 토요일, 서울과 인천공연자들의 다채로운 공연)
기타		철도청 역사, 한국공항공사 청사(격주 금요일), 대구 중앙로역, 대전역, 서대전역 등

교양 · 오락 아우른 포교방송 강화

BBS 12월 5일 가을 프로그램 개편

불교방송(사장 이성언)은 12월 5일부터 가을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의 두드러진 특징은 오락과 교양을 아우른 포교방송의 강화다. 편성비율은 포교 62.87%, 교양 · 오락 26.98%, 보도 10.15%로 구성됐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살며 생각하며(월~금, 23:00~01:00)'와 파노라마 주간기획 '야단법석(토, 18:15~19:00)' 등 2개 프로가 신설됐고, '뮤직N(월~일, 23:00~01:00)' 'BBS집중토론(토, 18:15~19:00)' '금강경 독경(일, 06:25~07:00)' 등 3개 프로는 폐지됐다.

시간대를 옮긴 프로는 종전의 일요일 오후 5시 10분에 방송됐던 '오늘을 이끄는 불교'가 토요일로 요일대를 옮겼다. '오늘은 좋은날(월~토, 6:20~07:00)' '마음으로 듣는 음악(일, 22:05~23:00)'등 4개 프로는 방송시간이 늘어났다. 시간대를 축소한 프로는 '불교강좌(월~일, 06:00~06:20)' '무명을 밝히고(토, 17:10~18:00)' 등 3개 프로가 각 5분~10분씩 방송시간을 줄였다. 이 밖에 진행자가 바뀐 프로는 '트롯시대(월~일, 19:00~20:00)'와 '뮤직펀치(월~일, 12:10~13:00)'로 가수 도현아씨와 방송인 전창걸씨가 각각 진행 맡았다.

신설 프로 '살며 생각하며'는 요일별로 정치 · 경제 · 문화를 포함한 시사문제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리포팅함은 물론 우리 이웃들의 삶과 소외계층의 삶을 직접 청취자와의 전화로 풀어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또 파노라마 주간기획 '야단법석'은 저명인사들의 토론회나 세미나를 선별해 스튜디오와 현장 녹음을 병행, 시간과 공간적 제한으로 듣기 어려웠던 정 · 재계 인사들의 의견과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전시

백제관음 신비로운 미소

도학회 개인전 '동주', 관훈갤러리



백제관음을 묘사한 '관음보살상을 다시 만들다'.

백제관음의 신비로운 미소를 만나자.

도학회씨의 작품전 '동주(東注)'가 11월 30일~12월 6일 서울 관훈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되는 작품은 '관음보살상을 다시 만들다'. 이 작품은 일본 법륭사에 있는 '백제관음'의 모작(模作)이다. 백제관음은 7세기 초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불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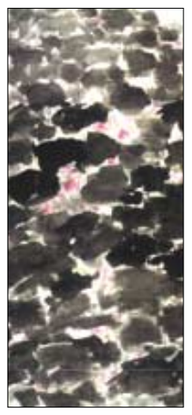
도학회씨는 이번 모작을 통해 백제관음이 오히려 고구려적 양식을 많이 채택했다고 주장한다. 머리의 보관은 고구려의 '불꽃뚫음무늬보관'을 닮았고, 복식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양식이라는 것이다. 5각형 대좌 역시 '5'를 중시했던 고구려의 문화에서 나온 것이며 광배의 운기문(雲氣紋) 역시 고구려 풍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미켈란젤로와 그가 사랑했던 카발리에리, 비토리아를 조각한 '미켈란젤로 삼존상', '동양의 물을 끌어들인다'는 의미의 '동주', 'Avarokitesvara(관음)'를 새긴 '자소상' 등이 선보인다. (02)733-6469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감성의 붓으로 화두를 녹이다

김대열 '물소리 · 자유자재-감성과 화두'



김대열 作 '연화세계'.

'감성의 에너지로 화두를 녹이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 불리우는 김대열 교수(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의 작품전이 11월 30일~12월 6일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연화세계, 물은 청산 밖으로, 산 밖의 산 등 물과 산, 꽃으로 집약되는 주제를 단순한 붓질로 표현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수묵화에서 담채화에 이르기까지 정제된 김 화백의 선이 화폭을 가득 매운다.

김대열 교수는 "선(禪)도 예술도 인생의 체험이며 나의 본성인 자아를 보는 것이기에 참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아야겠다"고 작품전에 앞서 소회했다.

미술평론가 윤범모 교수(경원대 미술대 회화과)는 "김대열 화백의 근작은 자유자재의 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일필휘지의 산물"이라며 "무념무상의 세계에서 일군 어떤 사유의 흔적만이 남아있는 구도행과 같은 작품"이라고 극찬했다. (02)736-1020 **강지연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8일 14:05 낭만라디오
29일 11:05 아름다운 초대
30일 10:05 BBS신행상담실
1일 09:05 행복한 미소
2일 21:05 영화음악실
3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4일 07:05 사랑의 징검다리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8일 21:10 한국의 명찰
29일 02:40 불교TV스페셜
30일 15:50 열린마당
1일 19:30 TV법회
2일 08:20 산중대담
3일 07:30 조선불교탄압사
4일 16:50 디스커버링부디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불교 음악의 세계(12월 4일 18:15~19:00) '세계 불교음악 백화점'에서 불교음악의 모든 것을 만나보는 시간. 찬불국악, 불교관련 명상음악, 찬불동요, 중국 · 티베트 · 베트남 등의 불교관련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불교음악 한 소절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충전(12월 4일 21:45~22:45)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엄앵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난방기 특별보급 행사

마하몰에서 열효율이 좋은 신일산업 난방기를 사찰과 불교단체에 특별가로 보급하고 있다. 마하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난방기는 연화1호(22평형)와 연화2호(32평형) 두 가지로 열효율이 좋고 그을음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연화1호가 85만원에서 할인된 69만원, 연화2호는 98만원에서 할인된 79만원이다.

게시판



한솔가족 위안행사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화)은 12월 9일 '한솔가족 위안행사(사진)'를 열고 복지관 식구 및 자원봉사자, 이용자들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031)716-4215

장애인복지관 감사찬치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상호)은 12월 9일 시흥시 거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3004 감사잔치'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먹거리 장터, 문화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031)431-9114

불교교리강좌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은 12월 7일 김재일 법사의 지도로 '불교교리강좌' 3개월 과정 강의를 시작한다.(02)732-1206

장애아 놀이교육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명궁)은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우리가족 행복키우기'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과 부모 간의 놀이방법 교육과 포크댄스 강연 등을 진행한다. (02)989-4214

주민화합마당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12월 7일 '가족 송년 잔치'를 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화합의 한마당을 가질 예정이다. (02)2282-1100

동계방학 사회복지실습생 모집 도봉서원종합복지관(관장 전승범)은 12월 24일까지 동계방학 사회복지실습생을 모집한다. (02)3494-4755

20면 상식 퍼즐 정답

석	상	휘	호			
보			법	신	불	
상			부		지	
절	규				사	
	장				리	티
	각	골	난	망		울
				이	솝	

진흙속의 진주 한 알 (상)

류복희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 1동)

이제 내 인생은 해질녘 붉게 물든 마지막 노을빛이 되어 산 능선 소나무 한 그루 사이로 소리 없이 꺼져가는 해와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렇게 어둠을 향해 사라지지만 다시 떠오를 내일을 위해 어둠에 대한 깊은 사유와 함께 인욕하고 있으리라.

정녕 생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그 끝은 언제일까? 전도된 몽상으로 골몰하던 내 모습이 애처롭게 느껴진다. 아마 천년을 넘게 꿈틀거려온 것 같다. 나는 부처님과 함께라고 위로해 보지만 늘 그렇듯 내 자신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지금은 내 자신이 너무나 대견하다. 무상(無常)의 체험이 수행이고 수행의 방편이 무상이라면 무상을 체득하는 이 과정은 틀림없이 인욕으로써 극복하지 않으면 한 발자욱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행복과 불행이 동반되어 있으나 선택할 권한은 없다. 다만 되고 싶은 방향으로 뜻을 세워 노력한다면, 행복은 노력한 사람들의 몫이 될 뿐이다.

나는 흑백논리의 날카로운 성격을 지녔었다. 심지어 친정아버지는 나를 '독일 여군'에 비교하실 정도였다. 그래도 결혼 후 두 아이를 키울 때는 너무나 유난해 친구들이 '현대판 신사임당'이라고 놀리기도 했다.

나는 내 성격이 날카롭고 예민한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쩌지 못했고, 그로 인해 몸이 많이 아팠다. 정신적인 피로에 못 이겨 삼일씩, 열흘씩 누워 있는 것이 예사였다. 그래도 몸을 이기려고 커피는 하루에 몇 잔을 마셨다. 그러니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몸은 말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자신이 다니는 절의 창건주 보살이라며 노보살님 한 분을 우리 집에 모시고 왔다.

그 보살님은 나를 자세히 보시더니 생년월일을 물으시고 또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면서 '절에 좀 다니라'고 하셨다. 그리고 며칠 지나 노보살님은 스님 한 분을 모시고 우리 집에 오셨다. 그 스님은 나를 보고 직업을 가지라고 하며 3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공부하라고 했다. 그리고 "절에 가려고 할 때 누가 와서 돈을 주며 일 좀 해달라고 해도 그 돈 받고 일하지 말고 곧 바로 절에 가라. 그리고 반드시 진흙 속의 진주 한 알을 찾아서 인연있는 큰스님께 갖다 드려라"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왜 진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되며, 어디에 가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느 스님께 드리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스님께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라고만 하셨다.

예민한 성격에 항상 몸 아파 누워 지내
노보살님 만난 후 생활불교 배우고 익혀
경전 읽으며 모두가 둘 아님 깨달아

너무나 의문투성이었지만 스님도 노보살님도 강원도 사찰에 계시므로 궁금한 점을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내 자신도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듣고 흘려버렸다.

그렇게 일년 정도 지나서 노보살님이 다시 우리 집에 오신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속으로 뜨끔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서 두 아이를 데리고 동생 집으로 갔다. 그런데 그 보살님은 오신다던 날에 안 오고 다음날 오셨다. 나는 꼼짝없이 노보살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 처해버린 것이다.

어차피 만날 인연이면 먼 곳에서 오시는데 점심이나 정성껏 지어드려야지 하고 서둘렀다. 잠시 후 보살님이 도착해 점심을 드신 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세월만 죽이고 있다"고 화를 많이 내셨다. 그리고 "스님 말씀대로 진흙속의 진주를 빨리 찾아 한 번 잘 살아봐야지" 하시며 내가 그다지 오래 살 것 같지 않다고 하셨다.

나는 그냥 눈물만 났다. 불교가 뭔지 부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나에게 내 목숨까지 거론하며 절에 가길 권하는 노보살님이 싫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잠시뿐, 보살님은 나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그래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겁먹지 말고 꼭 해라"하셨다. 그때 나를 바라보는 보살님 눈빛이 너무나 자상하고 그 손은 너무 따뜻했다.

이렇게 나를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해 준 보살님은 정작 내가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다. 보살님이 돌아가시자 생각이 달라졌다. 스님마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 보살님은 돌아가시기전 백양사 강주스님을 소개해주셨다. 그 먼 길을 한번씩 찾아갔는데 너무 말씀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아 죄송스러웠다. 여러모로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몸과 정신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또 백양사는 집과 너무 멀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가는 방법을 터득했다. 집 근처 절에서 어떤 때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바느질 시봉도 하고 풀빨래를 맡아서도 해보고 약도 지어드리면서 능력껏 형편껏 불교를 배우고자 했다. 또한 혼자 법문이나 책을 보고 듣고 읽으며 요점을 정리하고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하며 배움을 익혀가는 과정이 5년가량 지났다.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의 일상생활이 부처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부처님 이야기로 끝맺게 되었다. 정보도 어디서 어떤 스님이 어떤 법회를 하고 언제 어느 절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알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교리도 체계적으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비록 경전을 볼 수는 없지만 교재용 단행본으로 나온 <초발심자경문>과 <치문> <서장> 등의 강의본을 읽었다. 경전 강의를 읽다보니 차츰 법의 성품이 둘이 아니며 하나 속에 모두이며 모두 속에 하나임을 이해하며 승복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수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간이 되기까지 수없는 고통과 실망을 겪기도 했고 예민한 성격 탓에 슬픔도 컸다. 그러나 정말 부처님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영리하면 영리한 대로 응화현하시어 우리 곁에 오는 분이셨다. 내게 크나큰 가피를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딸아이는 1994년에 대학 진학시험을 치렀다. 나는 대구 교대를 지원하길 원했으나 딸아이는 수능 성적이 부족하다며 경북대 중문과를 지망했다가 떨어졌다. 믿지 못할 결과였다. 우리 집은 초상집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대이변이 생겼다. 대구교대 사상 최초로 성적미달 합격자를 탈락시키고 111명 추가모집을 하게된 것이다. 전기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 날이라 추가 모집에 삼천 명이 넘게 몰려들었다.

그때 내 딸은 마감시간 15분전까지 고등학교에 있었고 나는 영남대 약학과에서 5명 추가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서를 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집에 다 왔을 무렵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다. 할 수 없이 딸에게 가보기 위해 차를 돌렸다.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딸아이는 고개를 떨군채 울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딸은 나를 보는 순간 나에게 안기면서 쓰러졌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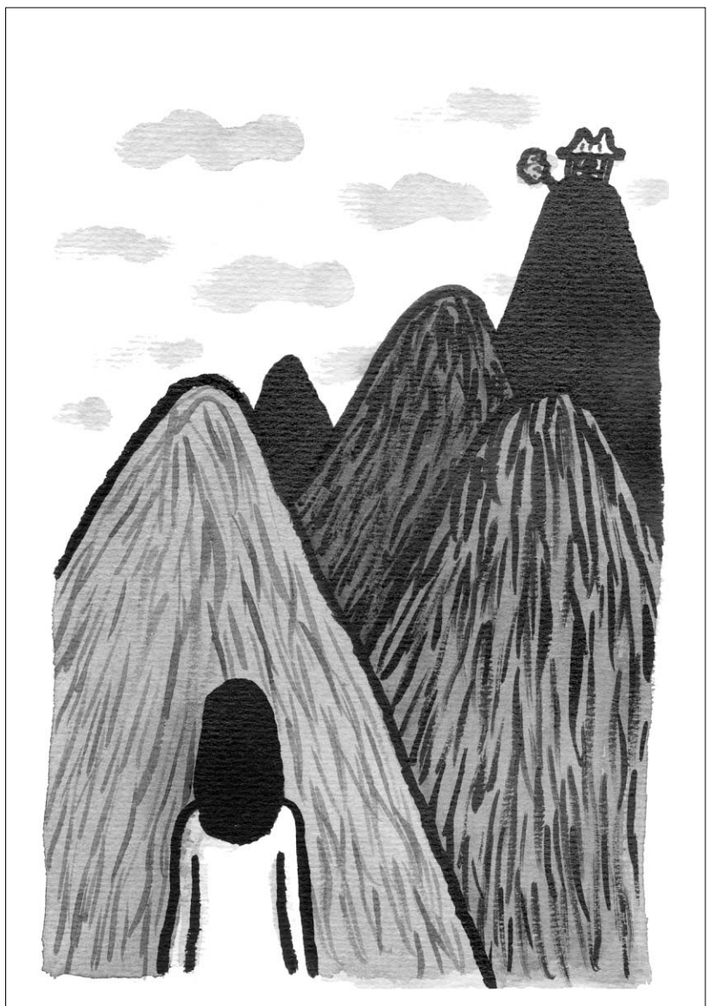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 종 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 일원	이 준 엽	062)375-9986 / 010-9692-353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서부일원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대전 충북지사	대전 / 충북	혜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한가지 소원을 이루는 도량

지장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 복원불사 모연문

국내제일의 지장기도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대웅전이 소실되었습니다.
촛대와 향로 범종마저도 녹아내리는 높은 고열속에서도 본존불인 석가모니부처님은 하나의 손상없이 그대로 보존되는 기적가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안중이었던 부처님의 진신사리(직경 2mm-3mm 정도)가 약 5mm-7mm로 두배이상 커진 사실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제일기도도량의 면모를 굳건히 갖추어 중생포교에 더욱더 큰 불은의 가피력을 주고자하는 부처님의 깊은 뜻인가 싶습니다.
그동안 몇몇사찰에서 부처님의 사리가 증과된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부처님진신사리가 커진 사실은 매우 희귀하고 보기드문 일로, 커진 부처님의 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몇생을 거듭 다시 난다해도 다시 만나보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커진 사리의 가피와 공덕은 복중의 최고의 복덕이요, 최상의 공덕인 것입니다. 또한 이를 모셔둔 사찰의 영험은 뜻하는바 소원성취가 반듯이 이루어지고, 커진 부처님의 사리는 가피가 뛰어난 매우 진귀한 사리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불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뜻하는바 소원성취를 모두 이루시고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합장하고 발원합니다.


▌성거사 복원불사 조감도


▌석가모니부처님


▌부처님의 커진진신사리


▌가섭존자 ▌목건련존자 ▌부루나존자 ▌수보리존자 ▌아나율존자 ▌아난존자 ▌집단대사리 ▌부처님뼈사리 ▌부처님진신사리

복원불사 동참 목록
- 용마루 : 삼천만원 • 대들보 : 500만원 • 창 방 : 500만원
- 기 둥 : 500만원 • 석가래 : 100만원 • 도 리 : 200만원

불상 동참 목록
- 아 미 타 불 : 일천만원 • 관세음보살 : 일천만원
- 대세지보살 : 일천만원 • 문 수 보 살 : 일천만원 • 보 현 보 살 : 일천만원

불사 동참 계좌
- 농협 : 485110-56-018723 / 485049-56-017713 (예금주: 성거사)

불사 동참자 현황
김화순 안희숙 최미자 안치영 고영인 유성용
이동우 장현순 백병국 김진옥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도량 성거사 불사위원회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 041)567-6820



타이완 차 문화 답사
3 타이완 차문화에서 배운다
① 타이완 차의 어제와 오늘
② 세계시장 넘보는 타이완 차

정부·제다업체간 끊임없는 연구 노력

대표차 국책사업 선정 고급화 전략 구축
외국인 상대 차밭견학, 제다체험 등 운영
엄격한 품질관리 통한 수출시장 확보


문산 포종차의 고향인 타이완 평림(坪林)에 세워진 평림다업박물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타이완 차문화를 설명하는 안내원. 타이완 정부와 차계는 세계 시장을 겨냥해 다양한 견학 · 제다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차 전문가게나 인터넷 차 판매코너를 살펴보자. '청차' 코너에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양의 차에는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타이완 차는 우리나라 연간 차 수입량의 20%에 달하는 양이 수입 · 소비되고 있다. '보따리 장사'들에 의해 무허가 수입되는 차나 차인들이 여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구입해 오는 양을 따져본다면 그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고급 오룡차'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차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타이완 차문화에서 우리 차계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중국의 차문화가 건너온 후 불과 200여년에 불과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타이완 차문화. 그 저변에는 ▲정부 주도의 차문화 저변 확대 ▲연구기관 · 제다업체의 다양한 오룡차 제다법 개발 ▲고급차 이미지 구축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수출 시장 확보 ▲다예(茶藝)와 다구(茶具) 발달로 인한 차문화 인구 확산 등의 인프라가 깔려 있다.

물론 타이완 차문화 발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천혜의 자연여건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타이완 정부와 제다업체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타이완 차문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타이완 정부는 1903년 타오위엔현에 타이완 유일의 차 연구소인 '행정원농업위원회 차업개량장'을 설립, 차 연구와 보급 · 교육하고 있다. 또한 타이완 오룡차를 대표하는 동정오룡과 목책철관음 등을 국책사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다. 또한 롱탄(龍潭) 관광차밭의 '다예센터'와 어메이(阿眉) 관광차밭의 '어메이지역 찻잎 전시센터' 등을 설립해 관광객들이 타이완 차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다업체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시장개척은 오늘날 타이완 차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산포종이나 동정오룡, 동방미인 같은 세계적인 명차를 만들어내 '고급차'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수출 시장을 확보했다. 이미 일본과 미국과 영국 독일 네덜란드 홍콩 러시아 등에는 타이완 차 판매지점이 개설돼 있다.

이러한 타이완 차계의 세계시장 진출은 규모가 작은 제다업체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들 업체들은 늘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 차밭견학 및 제다체험 프로그램, 무료 시음장 등을 운영하며 자신들의 차를 알리고 있다.

차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리다관의 60~70%는 타이완에서 생산된 것이고, 유명한 도자기예술촌인 타이베이현의 잉꺼(鶯歌)는 이미 국내 차인들 사이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타이완 다구의 국내시장 잠식과 일부 차회 · 수입상 등을 통한 다예교류 등은 타이완 차를 국내에 소개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 시장 개척에 이어 세계 차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타이완 차문화. 거스를 수 없는 이 거대한 조류를 국내 차계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까? 우리 차계에 던져진 또 다른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글 · 사진=여수령 기자



'전통 수제차' 대량생산 길 열린다

양원모 교수팀, 차학회 세미나서 덖음기 개발과정 발표

우리나라 전통 수제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다 기계가 개발된다.

양원모 · 박금주 · 김주현 교수(순천대 농업생명과학대학)와 최정 연구원(전남농업기술원 차시험장) 연구팀은 지난해부터 농림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한국 전통차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덖음기' 개발에 주력해 왔다. 연구팀은 11월 19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2005 한국차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전통수제차 가공의 특징과 기계화'라는 논문을 통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우선, 우리 전통 수제차는 구수한 향과 담백한 맛을 나타내며, 이는 덖음(살청)과 볶음(건조)의 방법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250~350℃의 고온에서 단시간 덖는 방식은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도 차의 차가운 성질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하동과 보성, 순천 등의 제다회사에서 사용하는 덖음기의 성능과 열 변화 과정, 찻잎의 수분함량 변화 등을 직접 계측함으로써 전통 덖음차 공정요인을 정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제차의 맛을 내면서도 대량으로 찻잎을 처리할 수 있는 덖음기를 개발했다. 덖음기는 직경이 각각 40 · 60 · 80㎝의 반원통물레형으로, 내부에는 찻잎을 섞을 수 있는 물레형 축과 날개가 장착되어 있고 회전축의 회전속도와 덖음통 바닥의 온도 등을 나타내주는 조절 판넬, 가스버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시작품을 제작해 제다 실험을 해 본 연구팀은 "시작품 덖음기는 고온에서도 찻잎을 태우지 않고 손쉽게 가공하라 수 있으며 완제품에 대한 관능평가 결과, 맛과 향에서도 전통 수제차에 크게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덖음통 가열판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고 ▲수분에 의해 찻잎이 기계 바닥에 들러붙는 문제 ▲덖어진 찻잎이 회전축과 교반날개에 걸려 나오지 않는 점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자체 평가했다.

한국차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양원모 교수는 "덖음길 개발로 제다업체들의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손쉽게 높은 질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시대 ㉗

유건집 교수의 연표로 보는 차 문학사 (52)

한일합방되며 일제 주도아래 차 관리

일본내 여성 중심 다도활성, 식민지 교육에도 영향

한일 강제합방으로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지니 제의(祭儀)도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사원(寺院)도 피폐해져 우리 차의 명맥은 사찰이나 민간에서 간신히 이어졌다. 일제는 처음부터 관(官) 주도가 아닌 민간인 중심으로 그들의 차종(茶種)을 들여와 삼남(三南) 일대의 차밭을 만들기 시작했다. 무등산을 위시해 정읍과 사찰 주변의 야생차까지 일제가 손대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 차의 현황과 역사적 사실이나 유물들을 조사해 정리하는 작업도 빠뜨리지 않았다.

당시의 일본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퇴보의 길을 걸었던 다도가 차츰 다시 지식인 중심으로 일기 시작해 여자학교에서부터 다도교육을 시작했다. 이른바 천가(千家) 종가제(宗家制)가 다시 힘을 얻고 교육에 힘써서 다도가 이전의 무장(武將)이나 문인(文人) 등의 남성적인 수도적(修道的) 기풍이 여자들에게 옮아가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차문화가 여성 중심이 된 것은 이러한 영향도 있다.

① 일본 조취현(鳥取縣)에서 제다 경험이 있는 미기시삼(尾埼市三)이 무등산 증심사 뒤편에 야생 차밭을 개원해 증제차를 생산했다.

② 정읍다원은 소천영수(小川英樹)가 차를 재배해서 천원차(川原茶)를 생산했다.

③ 미기사심이 나주 불회사 경내에 야생차밭을 개발했다.

④ 역시 미기시삼은 장흥 보림사 주변에도 차밭을 개발했다.

⑤ 〈해동죽기〉에 서울 노량진 봉의정에서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차를 팔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⑥ 일본인 도변창(渡邊彰)은 총독부 종교과에 근무하면서 '조선의 다업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며 다업과 다례의 진흥을 위해 제다기술 도입을 권장했다.

⑦ 산하이태랑(山下伊太郎)이 쓴 차 기행문이다.

⑧ 장흥군 관산에 있는 천관사(天冠寺) 주변에서 위씨들이 만드는 작설차와 해남 대둔사의 작설차는 〈동다송〉에 나오는 명차다.

⑨ 구례 화엄사의 주지 정병헌은 법호(法號)를 만우(曼宇)라 하고 장죽전의 차밭에서 여러 종류 차를 생산했다.

⑩ 장건(1854~1926): 다엽검사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었다.

⑪ 파나마 만국박물회에 태평후괴, 무록, 혜명차 등을 출품, 입상함.

⑫ 연횡(1876~1936): 대만 차인으로 대륭과 일본을 체험하고 상해에 살면서 〈대만통사〉를 쓰고 그 속에 명담과 다시 수십 수를 싣고 있다.

⑬ 안휘성 육안에 제3농업학교를 창설하여 다업전문으로 했다.

⑭ 서가는 청대 차인으로 연차송객(잡기) 이화점다(다서)를 썼다.

⑮ 시악은 〈범천여총록(梵天廬叢錄)〉을 썼는데 보이차 · 무이차 · 용정차 등에 관해 기록했다.

⑯ 지식인들이 다도를 여성 교육에 접합시켜 여성 다도인구가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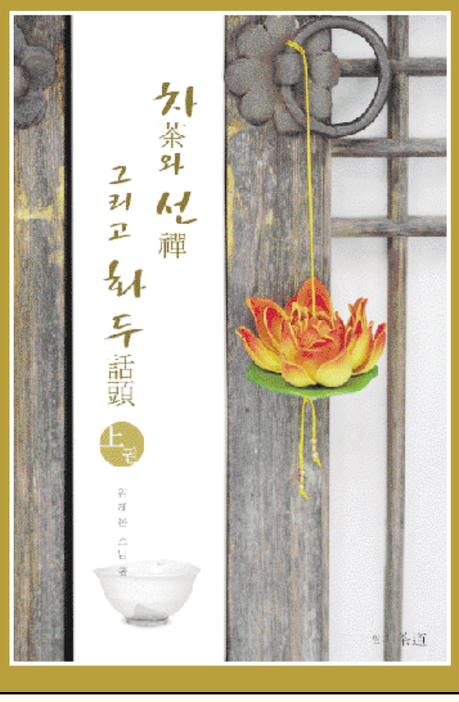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910 한일 강제 합방 1911 무등산 다원 ① 1913 정읍 차 재배 ② 1916 불회사 경내 차밭 ③ 1919 보림사 주변 차밭 ④ 1920 봉의정의 매다 ⑤ 조선의 다업에 대하여 ⑥ 1922 〈만선지방다업시찰기(滿鮮地方茶業視察記)〉 ⑦ @ 작설차 ⑧ @ 화엄사 ⑨		
청대		1914 장건(張?) ⑩ 1915 차전문 연구 ⑪ @ 연횡(連橫) ⑫ 1923 다학과 설치 ⑬ 1924 서가(徐珂) ⑭ 1925 시악(柴?) ⑮	
강호시대			1921 경제공항으로 생산격감 @ 지식인들의 다도 이해 ⑯

예약 주문 신청 문의
전화 : 02)722-7777 / 팩스 : 02)722-7845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37번지
월간 다도 편집부
※ 정기구독자들에게는 할인해 드립니다.

茶와 禪의 깊은 인연을 극명하게 풀이한
차茶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발간
상권 10.000원, 하권 13.000원
월간 「다도」 정기 구독자께는 상 · 하권 20.000원에 드립니다.





드디어 발간되어 판매 중입니다.

(재)대한불교진흥원(발행인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불교와 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표지 그림 | 강양동의 '북악의 봄기운'



2005년 11 · 12월호 주요 내용

화보 | 1 몽골 자이산국립공원 노천대불 봉불식 및 기념 한 · 몽 불교문화진흥 세미나 2 미국불교의 현장 속으로 '미국에서 세계 각국의 불교를 만나다'
2005년 송년칼럼 | 참된 생명나눔은 사념처관(四念處觀)의 이해에서부터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A에서 Z까지
종범 스님의 불교의 생사관(生死觀)과 해탈관(解脫觀)
특별기획 | 미국불교의 현장 속으로 1
미국 내 개척불교운동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세계 석학으로부터 이 땅의 불교 발전과 불교의 미래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았다.
1. 미국 내 세계 주요 불교국가의 활동현황
2. 특별 인터뷰 | 미국 콜롬비아대학 로버트 서먼 교수
장로대담 | 활안의 선지식에게 듣는 수행한담
6. 수원 팔달선원 조실 법행(梵行) 스님
향기나는 사람들의 모임 | ⑥ 경상지역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불교봉사회' 수행공동체 '백장선원'
해외통신 | 영국에서 불자로 사는 기쁨 – 사라 쇼 박사
특집 | 미래불교의 주역, 중 · 고불교학생회를 살리자
오늘의 불교가 있기까지 든든한 자양분이 되었던 지난 불교학생회의 활동상을 통해 최근 침체일로에 있는 중 · 고불교학생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조명해 본다.
1. 중 · 고불교학생회의 어제와 오늘
– 서울 · 경기지역 활동현황, 부산 불교학생운동, 경주불교학생회
2. 중 · 고불교학생회의 현주소
3. 청소년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투자가 시급하다
– 청소년 문화를 이해해야 학생회가 발전한다
테마기획 | 절집 공양간 맛 풍경 ⑥ – 서울 안양암
문화기행 |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서
고전 읽기의 즐거움 | 중국 거사불교의 거목, 부대사의 게송

격월간 『불교와 문화』 전화 02-719-2606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내일 살 걱정하지 말고 하루살이로 살라!

(지난 호에 이어서)

▲스님: 예,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나는 자유인이 되겠다.'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해 보세요. '나는 자유인이 되겠다!' '자유인이다.' 하면 부처라는 이름인데, 부처라고 구태의연하게 이름을 부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자유스럽게 살면 됐지.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이 꼭 돼야 세세생생에 자유스럽게 살지, 내가 지금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세생생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거를 생각하시구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한테 닥치는 것은 모두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궁암이 심해서 아주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할 처지도 못 되고 그냥 하혈을 하고 병원에서는 수술해도 안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여럿이고 셋방은 들었지, 남편이 벌이를 해서 조금씩 들여오는 것도 근근이 육신을 놀려서 하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하니까 자식들한테도 얘기 못 하고 부부끼리도 얘기 못 하는 그 슬픈 마음이야말로 어디다가 댈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가면서도 그냥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선 은근히 울고 그냥 쓱쓱 씻고 나가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렇게 당해 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누구도 모를 겁니다, 아마. 식구도 아무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움죽거려야 자식들과 가정이 살 수 있으니까 움죽거려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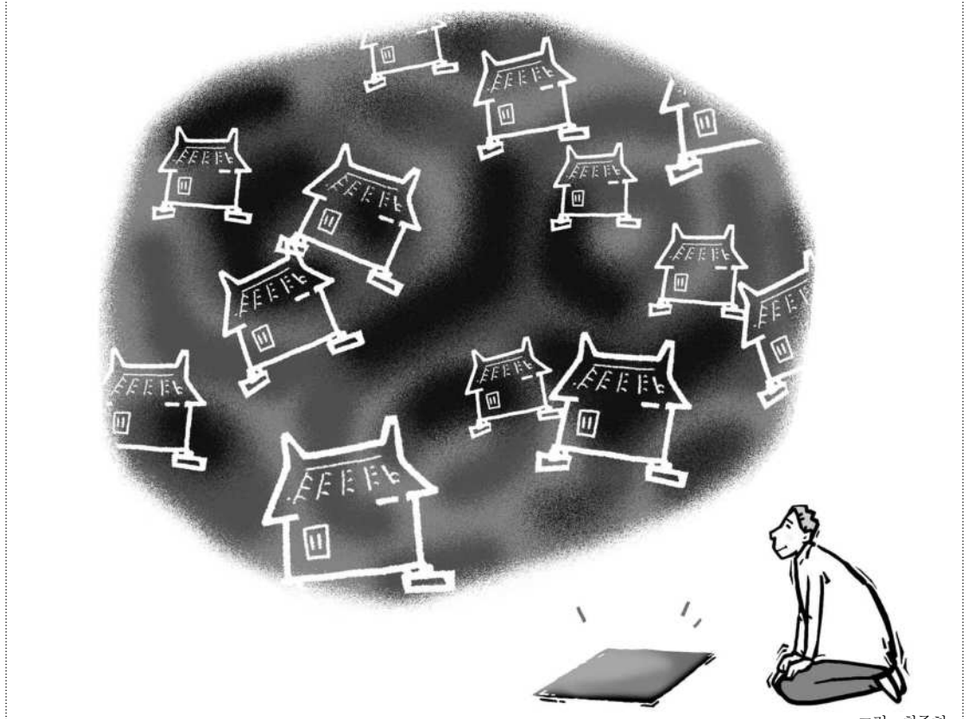
> "제 뿌리는 제 나무를 도와서 푸르게 살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날더러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하하…. '나는 죽든지 말든지…,' 저 자식들을 길러 내야 하니까 죽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하라 이거야. 허허허…. 자기는 죽든지 말든지 자식을 꼭 길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는 "스님, 내가 '주인공!' 할 땐 스님과 더불어 같이 생각하고 부릅니다. 나는 그 빽 밖엔 없습니다." 아, 그러고는 쓱쓱 닦고 그냥 나가고, 뭐 오래 앉아 있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턱 오더니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울어? 애들 길러 내지 못하게 생겼어?" 이러니까, "길러 내게 생겼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다 나았어요! 이제 다 나았는데요, 병원에 가 볼 돈도 없으니까 근근이 조금씩 모아서 한번 어떤가 하고, 그것도 내가 못 믿어서 그렇죠. 가보니까 아무 지장이 없대요." 아, 이러는 거야. 그러니 세상에 또, 나았으면 가 볼 필요는 뭐 있어 글쎄? 그것도 놀란 가슴에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이겠죠.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천차만별로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나았어!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서 잘됐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은 내가 혼자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는 사람이 없다면 나도 없고, 내가 없다면 올 사람도 없죠. 그런데 내가 혼자 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 말 자체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수십만의 의식들이 같이 동원해서 작용한 겁니다. 내 몸의 모든 생명들이 같이 해 주고, 그 몸의 생명들이 같이 해 주고, 동일하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불하기 이전에 우리가 소박한 마음,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으로 자기는 반드시 자기 뿌리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고, 제 뿌리는 제 나무를 도와서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대중 박수) 그리고 질문할 사람은 질문하세요.

▲질문자2: 3년 전에요, 아이를 낳고 5개월쯤 있다가 안면마비가 와서 병원에도 가고 약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스님께 상의해서 천도재도 여러 번 했는데, 천도재 다 지내고 나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리가 터져야 그 병이 나을 텐데!" 하셨어요. 그래서 한 1년쯤은 약도 먹고 침도 맞고 급하게 다니고 그랬지만, 그 후로 한 2년간은 아예 다니지를 않았거든요. 내가 물리가 터지면 낫는다고 하셨으니까 나으리라 믿고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못해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벌어야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울먹이면서) 그런데….

▲스님: 그런데 말이야, 말끝에 내가 먼저 말하는 건 안됐지만 나가서 벌어먹여 살리게 한 놈도 그놈이고, 가난하게 사는 놈도 그놈이고, 믿는 놈도 그놈이고 안 믿는 놈도 그놈이야, 다! 모든 것이 걸어온 발자취를 짊어지고 애를 써, 그렇게? 응? 아! 그냥 걸어올 뿐이지, 그 발자취를 마음으로 왜 또 뭉쳐 들고 다녀?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 살림살이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가 걸음 걸어오듯이 살고 가는 거야, 지금. 발자취를 놔 버린 채 걸어 다니는 것과 같은 거야. 내일 살 걱정 하지 말어, 하루살이로 살라고. 그냥 하루살이로 살란다고 또 다 갖다 팔아먹고, (대중 웃음) 끓여 먹고 이러지 말고, 하하하…. 다 말기고, 내가 가진 게 뭐 있어! 내 몸뚱이도 가진 게 없어!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니야!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냥 그걸 부여잡고 쩔쩔매? 좀 그렇게 놔 봐! 오늘 중으로라도 그렇게 놔 봐! 가 봐. (대중 웃음)


그림 · 최주현

▲질문자3: 저는 우리 선원에서 나온 여러 권의 책과 녹음테이프를 통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부처님의 도를 그렇게도 깊고 지극하게 가르쳐 주시는 큰스님의 법문에 너무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이 감사한 마음을 어찌 표현할 수가 없어 때로는 오직 눈물방울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질문을 수차례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되나 여러 대중들과 저를 생각하시어 다시 한 번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어디를 가거나, 혹 절 앞을 지날 때에는 불전에 참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에 참배하면서 우리 불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내어야 합니까? 부처님도 내 한마음에 계시며 나와 다르지 않으며, 바로 나의 실상이니 주인공에 감사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부처님께 '원력을 주십시오.' 하는지요. 부처님께 참배를 하면서도 주인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요.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그게 간단해요. 만 개의 사찰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만 개가 단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참배를 올릴 때, 내가 그랬죠? 이 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당에서 참배를 올릴 때 왜, '일체제불의 마음'이라는 노래 있죠? 그와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저 형상이 내 형상이요, 저 마음이 내 마음이요, 저 생명이 내 생명이니 둘 아니게 '주인공' 하면 전체가 모두 하나로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디를 가셔서 참배를 올리든지 주인공하면 그냥 부처와 나, 일체가 다 하나가 돼 버리니까요. 주인공에 감사히 생각하고 하면 그대로 부처님 마음도 거기에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죠.

▲질문자3: 식사를 할 적에는 합장을 하는데 이러할 때는 주인공과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지요.

▲스님: 예. '주인공' 하면 나와 더불어 주인공이지 개별적인 주인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한 그릇 먹을 때에 혼자 먹습니까?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러 생명들이 같이 먹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몸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공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밥 한 그릇이 또 뭡니까? 농사지은 사람, 밥 지은 사람, 뭐 뭐, 전부 거기 손길이 갔으니 모두 한데 합치면 전부 공식이에요. 그러니 공식했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공양(供養)입니다. 공양! 그래서 공양을 올려라, 이럽니다.

어느 한 부처님에게 올리는 게 아니고 우주 삼라만상 전체에 한 그릇으로 공양을 올리고도 그 한 그릇은 되 남더라 하는 겁니다. 되 남아서 또 올리고, 먹어도 또 남고, 또 먹어도 또 남고 이렇게 되풀이 되는 끊어지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혼자 먹어도 공양입니다. 그래서 공양! "공양하셨어요?" 이러죠, 절에서. "밥 먹었소?" 이러지 않고 "공양하셨어요?" 이러죠?

▲질문자3: 공부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끌고 다니는 것도 바로 주인공! 당신이 끌고 다니는 것이지. 이 고통 주는 것도 다 당신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믿고 해도….

▲스님: 당신이 하는 것이지 해 놓고 뒷마무리가 없으면 안 되죠. 당신이 한 거니까 당신이 해결해야지! 당신이 구정물이 나오게 했으니까 당신이 새 물이 나오게 해서 쓸 수 있게 해야지! 하는 그 대치가 있어야죠. 똥을 다 누고 밑을 씻어야만 개운하고 깨끗하죠? 그와 같은 겁니다.

▲질문자3: 잘 알겠습니다.

▲스님: 형제 법우님들이 공부가 부진해 가지고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죠. 나는요, 사실은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그대로 자는 게 없고, 낮에도 여러분 못지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쉬는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깊이 좀 하세요.

▲질문자4: 감사합니다. 강릉지원에서 왔습니다. 빨리 왔다고 왔는데 또 제일 마지막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강릉지원이 이룩되게 되었습니다. 큰스님의 큰 원력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온 한마음선원 신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님: 감사해요.

▲질문자4: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문의 편지로 스님께 올렸습니다. 단, 제 마음자리가 아직 부족해서 뭔가 좀 부족하고, 요새 말로 좀 튀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되면 그걸 진득이 잡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보다 몸이 앞서고 몸보다도 마음이 앞서고 그래서 좀….

▲스님: 아니요! 이런 묘법이 있어요. 말을 해도 함이 없이 하고 또 행을 하되 함이 없이 행을 한다면 그 비밀이 아무 데도 누설되지 않아요. 사람이 내놓는 것만 알지 들이는 것을 모른다면 아니 되듯, 내놓고 들이는 것이 모두가 첨두첨미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파라는 것은 여기에서 달나라를 가도 그냥 요기서 저 문 밖에 통신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두루.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면 그건 누설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함이 없어! 그렇게 알고 있다면요.

> "모든 것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확고하게 믿어야"

▲질문자5: 스님, 제가 6월경에 뵙고 한 5개월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6월경에 스님을 뵐 때는 아주 저 자신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집사람에게 끌려오다시피 해서 뵙게 되었고 그 당시에 '저를 다 죽이고 왔습니다.' 하고 스님께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때 스님께서는 "믿고 맡겨라, 공부해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스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저에게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부부간에 갈등도 없어지고, 가족간의 화합도 생기고 사업도 상당히 번창해서, 이제 연간 매출액이 몇 십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적 기반도 다졌습니다. 그래서 주인공과 큰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후일,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깨우침이 부족한 분들을 위하여 사례로 발표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면서도 "그러면 주인공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오늘 설법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그간에 의심스러웠던 것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인간은 우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찾고 그 능력을 활용하

☞30면으로 계속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인의롭고 부드럽게 대해야

☞29면에서 계속

기 위해서는, 우주와 인간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큰스님께서 우주와의 관계를 여러 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 또 힘이 있다면 그 에너지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이 점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스님: 이렇게 비유를 해 봅시다. 발전소를 우주라고 한다면 인간의 능력은 바로 그것을 용도에 따라서 꺼내 쓸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소비자가 없어도 아니 되고, 그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 능력 자체가 없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기 위해 에너지라는 이름이 생긴 거지, 용도에 따라서 꺼내 쓸 수 없다면 어떻게 에너지라는 이름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이 발전소라면 거기에서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꺼내 쓰는 그 전력이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사람의 능력과, 그 발전소와 돌이 아니게 같이 직결이 돼 있으니까 자유자재로이 꺼내 쓸 수 있다, 작으면 작은 대로 꺼내 쓰고 크면 큰 대로 꺼내 쓸 수 있다, 그 꺼내 쓸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 한계가 없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도 가지고 있고요.

▲질문자6: 오늘 하늘 아래 물도 없는 바보가 여기 나와서 큰스님을 뵙습니다. 오늘 질문에 좋은 가르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은 4일 전에 열반에 드신 해인사 큰스님께서 81년 1월 종정 취임의 제 일성으로 하신 법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체 삼라만상이 모두 다 법신체(法身體)인데 이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중생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에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법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스님께서도 인연이 다하시어 이제 열반의 길에 드셨습니다. 그렇게 큰스님께서 인연이 다해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저는 불현듯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큰스님의 깊고 지극하신 자비 밑에서 20년을 선원의 수위로서 지내 왔습니다만, 어른스님의 열반을 보고서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큰스님의 밑을 떠나서 인연이 다되어 갈 때는 틀림없이 나는 지옥행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가 20년 만에 용기를 내서 오늘 처음으로 스님께 큰 가르침 주십사 하고 여쭙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거짓 나를 참나로 알고 현실 속에서 물질에, 허상에 매달려서 쫓기고 찾고 갈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큰스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이 바깥에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으뜸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에게 참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 선지식을 만나는 것과 그리고 그 계기를 뚜렷이 가지는 것이 공부의 으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계기를 용케도 잡았습니다.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이런 인생의 무상함을 하나의 계기로 찾았고, 또 오늘 여기 나와서는 스님께서 '이 무지 중생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진리를 한마디로 요리를 해서 딱 깨우쳐 줄 수 있는가, 맛을 내게 넣어 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 계기를 잡았습니다.

소박한 마음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으로
자기는 반드시
자기 뿌리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여기 20여 년을 큰스님 밑에서 지내 오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큰스님을 뵈옵고 좋은 가르침을 받곤 했는데 5년 전에 온 아우님이나 6개월 전에 온 아우님이 벌써 주인공 맛을 보았다 하니 전 그만 걱정이 태산 같고 이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대중 웃음) 큰스님께서는 항상 한마음 법으로써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절대 생명이요, 그리고 공존의 생명이요,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무한하고, 인간을 초월해서 신령하다. 너무 크기 때문에 허공과 같고 무(無)다. 항상 주인공 자리에 되돌려 놔라. 여여하게 되돌려 놓고 그리고 공부를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다.' 하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년간 들어 왔습니다만 그것이 항상 큰스님의 말씀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내 도반들의 말로 들리지 제 말로는 하나도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나왔느냐 하면, 이 세 가지 계기를 잡은 김에 큰스님께서는 '너는 인연 없는 자식이니 이제 수위 자리도 그만두고 나가서 죽든지 떠나든지….' 이 말씀을 오늘 한마디 해 주시면 아무래도 제가 죽기 싫고 달아나기 싫으면 공부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왔습니다. 좀 크게 꾸지람 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본래 말입니다. 본래 인생은 온 게 없기 때문에 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말마따나 서까래는 서까래대로 쓸 수 있고, 기둥은 기둥대로 쓸 수 있고, 포함해서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없으면 불구이듯이 우리 전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한생각을 잘 하셨다면 그대로 해 나가시면 되겠죠. 뭐 길게 생각하고 짧게 생각하고, 또 오래 됐고 오래 되지 않았고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니까 그저…,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한자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하하하…. (대중 웃음)

▲질문자6: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무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다 이익되게끔, 지어서 할 필요도 없고…. (삼배를 올리는 질문자에게) 한 번만 하십시오.

▲질문자7: 큰스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불교를 믿고 수십 년간 다녔지마는 불교의 진수를 모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 와가지고 용광로보다 더 확실한, 놓고 갈 수 있는 주인공 자리를 배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 마음 편안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가족이 지금 손녀까지 여섯 명입니다마는 저는 마음자리를 놓고 잘 돌아가는데 딴 식구들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때에 걸리는 점이 보일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할 때 한 번씩 가솔들 한테 얘기를 해 줍니다마는 아직 제가 도량이 부족해서 마음을 가족들한테 못 내는 것 같아서 오늘 큰스님께, 어떻게 하면은 제 그릇을 좀 키울 수 있을까 하고 여쭤 보고 싶습니다.

▲스님: 식구들이 잘못하든가 빗나간다든가 하더라도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다 놓으세요. 즉 말하자면, 그쪽의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 같거든요. 그런데 식구들은 벌써 식구라는 가설이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에 가설이 돼 있죠. 그런데 그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에다가 놔도 그 쪽의 주인공까지 다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한테 '저 사람이 저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모든 것을 놓고 인의롭고 부드럽게,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해 준다면 거기도 아주 밝아질 겁니다.

▲질문자7: 그리고 제가 스님 앞에서야 뭐 나이라 할 것도 없지만 일 갑자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과거는 한생각에 다 놓았습니다. 현재는 스님 앞에 와서 이 질문까지 하게 됐는데 이 편안한 마음을 내세에도 가지고 갈 수 있을는지요?

▲스님: 오늘 만약에 남을 도와서 좋은 일을 하고 내 마음이 즐거웠다면 내일까지도 즐겁죠. 그런 인연을 맺었다면 더불어 같이 보이지 않는 데서 모두 빈손으로 돌봐 주게 되고, 없는 손이 와서 돌봐 주게 되고, 또 없는 손이 있는 손으로 들이 아니게 포함이 돼서 귀인이 돼 가지고 다 돌봐 주고, 가는 족족 이렇게 돌봐 주게 되죠.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모두 모르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체가 다 음파가 통해서 나를 도와주게끔 되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러고도 내 마음의 다스림이 이 육체 안의 모든 생명의 의식들에게 통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통하게 하지 마세요. 모두가 인의롭고, 자유스럽고, 슬기롭게 대치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용기와 그 믿음을 가지고 해 나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병고가, 죽을 병고가 온다 하더라도 그건 대치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사회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1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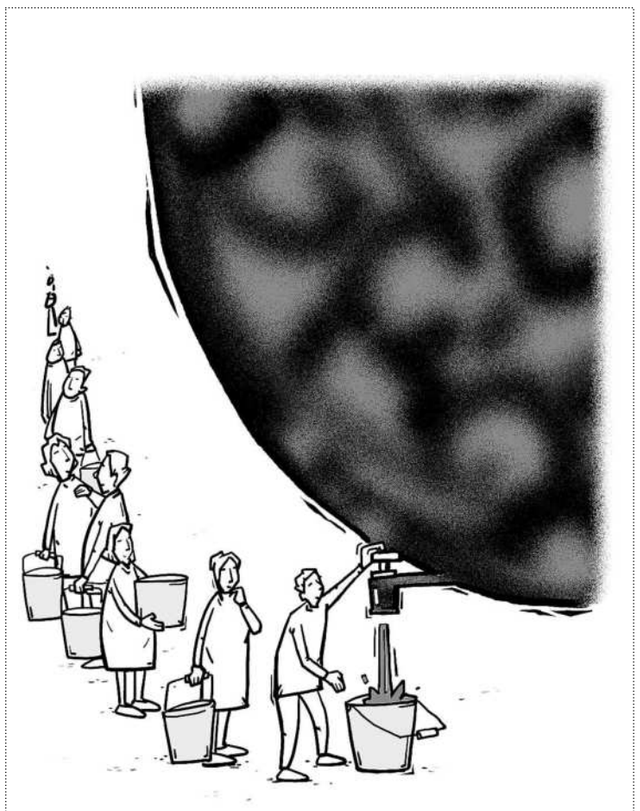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특강) 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전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5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5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5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제4기 영남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본 연구 보존회에서는 영남 범음 · 범패에 뜻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 기본과정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및 축원 송주 등.
- 중급과정 : 신중작법 ,대령관욕, 각단 청, 상주권공, 각종 시식, 다비식,점안의식 등.
- 작 법 반 : 바라 작법, 승무 작법 등.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수시접수함.
제4기 개강일 2005년 11월 28일 (목) 오후 3시 강의일 : 매주 월 · 목(오후 3시)
제출서류 입학원서(본 회 소정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 보존회는 초 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 사찰 창건 및 운영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교육원 위치 : 경남 진주시 평거동 주공아파트 상가지하

● 문의전화 : 055)745-8419, 011-867-8419

영남 범음 · 범패 연구 보존회
원장 한 파 강사 원 명 합장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천도재 비디오 3개 (대령, 관욕, 시식, 배송) 완벽한 방송용 자막 커리. 할인가 6만원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침대 · 황토손 · 황토불판

황토는 오랜 세월동안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규소성 광물로서 흔히 '태양에너지 저장고'라고 불립니다. 표면이 넓은 벌집구조로 수많은 공간이 복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구멍안에는 원적외선이 다량 흡수, 저장되어 있어 열을 받으면 발산하여 다른 물체의 분자활동을 자극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황토손 · 황토불판은 살아있는 생명체라 하여 엄청난 약성을 가진 무병장수의 흙으로 사용되어온 황토의 정점을 고스란히 담은 우리집 건강 지킴이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황토방을 시공해 드립니다.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 위에 올려놓은 모습

황토손의 탁월한 효능
1. 정화작용 및 해독제 역할
2. 인체의 순환작용
3. 통증의 완화작용
4. 신진대사 촉진

황토침대에서 숙면을 취하면 기운이 되살아나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황토불판에서 육품 요리의 맛을 느껴 보십시오.


황토불판에서 고기를 굽는 모습

● 제품 가격 : · 황 토 침 대 (1인용) : 1,500,000원 · 황토손 + 황토수건 : 20,000원 · 황토불판 + 황토쇠판 : 25,000원 · 황토손 + 황토불판 셋트 : 45,000원
● 입금 계좌번호 : · 농 협 : 178990-56-003521 (이점숙) · 대구은행 : 023-07-473126-001 (이점숙)
● 구입 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543-1 중앙시장 108호 대구 · 경북지사장
011-817-9364 · 017-804-0215 · 053-585-9364 이노사나 합장

목이 뻣뻣하고 눈이 침침해요



목디스크! 아는 만큼 고칠 수 있다

직장인 김윤정씨(29). 고개를 뒤로 젖히기가 어렵고 심할 경우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들며 눈이 침침해지기도 한다.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김씨의 병은 바로 '목디스크'. 요즘 직장인을 비롯한 젊은층의 목디스크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디스크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 전체 내원 환자의 3%에 그쳤던 경추질환자 비중이 2005년에는 14%로 약 5배 증가했다. 이처럼 젊은층에서 경추질환자가 늘고 있는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시간이 증가하는데 따른 불량 자세의 고착화, 운동부족, 과격한 레포츠로 인한 부상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목디스크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다.

컴퓨터 작업 등에 따른 불량 자세 고착화
장기화되면 근육 · 인대 손상 목디스크로

 # 발병 원인과 증상은?

목 디스크는 목뼈 사이의 디스크(물렁뼈)가 튀어나와 척수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뒤틀리거나 구부정한 목 상태로 오랫동안 고정돼 있는 자세는 목 근육과 뼈에 스트레스를 주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근육과 인대의 손상을 초래해 목디스크로 발전하게 된다.

목디스크 증상은 목덜미의 통증과 뻣뻣함이 대부분이다. 고개를 뒤로 젖히기가 어렵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 우두둑 소리가 난다. 심할 경우 머리를 움직이기 어렵고 시력이 저하되며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목디스크는 약 10%가 낙상, 교통사고, 머리에 입은 충격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나머지 90%는 생활 속의 나쁜 자세들 때문에 일어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추가시(C) 자형의 정상 상태를 벗어나 일자목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심대모 원광대학병원 정형외과장은 "내원 환자 중 젊은층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경추 신경증' "이라며 "이 질환은 목 자체로는 단순히 뻣뻣한 정도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방사선) 등의 검사를 해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목디스크 치료법에는 목뼈의 배열을 교정하는 추나요법, 뼈와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약물요법,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침구요법 등이 있다.



사진 ①



사진 ②

■ 생활 속 자세교정

나쁜자세	바른자세
컴퓨터나 인터넷 작업을 할 때 모니터 앞으로 목을 길게 빼는 자세인 '거북형'	컴퓨터를 할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은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듯 반듯한 자세(PC 모니터는 눈 높이보다 10~15° 정도 아래를 내려다보도록 조정)
고개를 숙여 머리를 어깨 앞으로 내민 '인사형'(고개 푹 숙여 책을 읽는 자세와 버스 질 등)	머리와 몸통이 직선이 되도록 고개가 바로 세워진 자세
엎드려 자는 등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는 '측면형' 자세	목과 등이 일자로 된 상태로 바르게 눕는자세
공연 감상 및 강연이나 설교를 들을 때 위를 보듯이 고개를 올린 '관객형' 자세	공연 등의 감상 시 5° 정도 내려 보는 자세
운전시 등받이를 30° 이상 젖히고 앉는 자세	운전시에는 등받이를 10° 정도 젖혀 허리와 목이 바로 세워지도록 한 자세

사진 ③

스트레칭은 자세교정 · 통증 완화에 도움
지압베개, 냉 · 온 팩 이용한 치료도 효과

 # 효과적인 치료법은?

추나요법은 비뚤어진 뼈를 반듯하게 맞춰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통증을 가라앉힌다. 치료 후 2시간 정도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도록 하고 갑자기 목을 돌리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추나요법과 병행하는 약물요법은 통증을 가라 앉혀 주면서 인대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약물은 부어있는 디스크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감소시키고, 약해진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며, 뼈에 칼슘을 보충해주어 뼈가 퇴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골 효과를 발휘한다.

침구요법은 목 주변의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등 치료효과가 다양하다. 일반적인 침뿐만 아니라 봉약침(벌침), 다양한 종류의 약침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용한다.

그때그때 간단한 체조를 하는 것도 좋다. 엉덩이를 의자 뒤쪽 깊숙이 앉은 자세에서 척추를 곧추세우고 양손은 무릎에 대고 고개를 뒤로 젖히기를 10회 반복한다. (사진 ①)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바르게 선 자세로 왼 팔을 수직으로 들어 올려 오른 팔로 머리를 지지하고 머리를 좌우, 앞뒤로 돌려주기를 20회 반복한다. (사진 ②) 깍지를 끼고 손바닥은 정면을 향하게 한 다음 팔꿈치를 곧게 펴고 기지개를 켜듯 수직으로 들어 올리기를 10회 이상 반복해도 효과가 있다.

목디스크에 효과적인 자가물리치료법으로는 지압판 역할을 하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다. 베개를 벨 때는 머리끝에서 어깨까지 넓게 베어야 치료 효과가 크다. 지압베개는 전문 지압법을 몰라도 시중에 판매되는 지압베개를 배고 잠자는 동안 사용하면 된다는 편리성이 있다.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자가물리치료로 자연요법의 하나인 저압요법이 있다. 저압요법은 적당한 압력으로 압박을 주는 방법으로 경추내의 연골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지압법이다. 저압요법을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1.5리터 용량의 둥근 플라스틱 팩에 따뜻한 물을 가득 채우고 바닥에 누운 후 무릎을 세우고 목 뒤에 음료수 팩을 넣는다. 그런 다음 발바닥의 힘을 이용하여 상하로 몸을 움직여 목을 마사지 하듯이 약 10분간 실행한다. 2개의 빈 팩을 준비해 냉 · 온찜질을 병행해도 좋다. (사진 ③)

글=노병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39)

오줌 투명하고 담황색 띠면 건강

오줌을 검사하기에 가장 좋은 요진 시점은 아침 해가 뜰 무렵이다. 이때의 자연광 상태에서 오줌의 여러 미묘한 특성들을 세세히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환자를 봐야하는 우리의 현실로는 지키기 어려운 하나의 원칙이다. 자연광이나 그에 가까운 적절한 조명아래서 너무 깊거나 얕지 않는 하얀 약사발에 받아 나무젓가락으로 저어가며 관찰하면 될 것이다. 요진 전날부터의 지켜야할 금기사항이나 검사에 쓰일 적합한 시뇨받기 그리고 관찰 시기나 조건 등이 고루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진은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요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티베트의학에서 설명하는 오줌의 생성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물은 위로 들어가 소화 흡수된다. 남은 노폐물은 소장을 통과해 대장에 이르고 거기서 된 노폐물과 묽은 노폐물로 분리된다. 묽은 노폐물은 곧바로 콩팥을 통과해 요도를 타고 방광에 고인다. 한편, 음식물의 정수(精髓) 부분은 간으로 가 피가 되고 피의 정수성분은 인체의 살이 되는 기육으로 불순성분은 쓸개로 들어가 쓸개즙이 되며 쓸개즙은 다시 정수성분은 혈청으로 온몸에 퍼지고 불순성분은 오줌에 뜨는 찌끼와 앙금으로 변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섭취한 음식이 색과 같은 오줌의 성질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티베트의학에서 말하는 요액의 형성과정을 보면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설명하는 오줌의 생성과정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오줌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오줌을 담은 사발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깨끗하고 투명하며 담황색을 띤다. 특별한 냄새는 없고 지닌내만 조금 날 뿐이다. 냄새가 역하거나 어떤 과일냄새가 나면 몸에 이상이 있다는 표시이다. 오줌 표면에서 이는 김(증기)의 양은 많지도 적지도 않게 일었다가 10분정도 지나 완전히 사라진다. 식은 후 표면에 뜨는 찌끼도 아주 엷고 가운데로 몰리게 된다.

거품은 중간 크기이나 거의 없는 편이다. 식은 후 가라앉는 앙금은 바닥에 고루 깔리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 편이다.

요진에서 중요한 점은 오줌을 오래 두고 색이며 냄새며 김이며 거품 등이 생멸하는 과정과 그 속도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일이다. 티베트의학에서는 요진을 보통 세 단계로 실시한다. 즉, 시뇨를 방금 받아 따뜻할 때 조금 지나 미지근히 식었을 때 그리고 완전히 다 식었을 때 총 세 번에 걸쳐 관찰한다. 따뜻할 때는 나무젓가락으로 휘저으며 색깔 증기(김) 냄새 그리고 거품의 크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미지근하게 조금 식었을 때는 냄새 겉에 뜬 찌끼 그리고 바닥에 남은 앙금을 다시 관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오줌이 완전히 식은 후에는 거품이 사라지는 양상과 걸리는 시간 오줌색의 변화여부와 양상 그리고 다시 한 번 표면에 뜬 찌끼와 바닥에 깔린 앙금을 더 조사해본다.

먼저 따뜻할 때의 오줌은 금방 받은 신선한 오줌이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변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색이 푸른빛을 띠면 룽(氣)병 노란색이면 티빠(膽)병 그리고 멀건 우유빛이면 베껜(痰)병 병증이다. 요색에 붉은 빛을 띠면 혈액병이고 보라나 자줏빛을 띠면 혈청병 병증이다.

요진은 색 냄새 거품 등 생멸 과정 지켜봐야
푸른빛-룽(氣) · 노란색-티빠(膽) · 우유빛-베껜(痰)병 징후

또 요색이 갈색이면 궤양이 있다는 징후이고 기름 같아 보이면 황달이 있기 때문이다. 요색에 검은 빛이 돌거나 무지개 같은 색이면 중독으로 인한 병증이다. 이런 빛깔들 외에도 병에 따라 더 다양한 색들이 서로 섞여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전날 먹은 음식의 영향으로 오줌의 색깔이 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요진 전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금기와 숙지 사항은 잘 지켰는지 꼭 확인하지 않으면 오진할 우려가 크다.

오줌에서 나는 김도 따뜻하고 신선할 때 관찰하여야 한다. 조금만 지나도 금방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김이 후끈 넘쳐나면 미만성열병이라는 의미여서 티빠병 병증이다. 김이 별로 없고 금방 사라져버리면 룽병 베껜병 혹은 한병(寒病) 병증으로 해석된다. 김의 양은 적지만 좀 더디 사라지면 만성열이나 잠열(潛熱) 병증으로 본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깨달음(토통)과 불치병 난치병 각종암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神치유명상가**

● **참선공(參善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 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 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자비의 손 치유법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 참선공 협회장
現卍 치유명상 협회장

특별전수과정
토요반
15:00 ~ 18:30 (12회 과정)
● 전수비: 3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자비손 치유법
음성 내공법
빙의 · 해리 치유법
칠차원 생명법
전생 치유법
내생 치유법

◆ 교육후 神치유명상사 자격증 참선공 자격증 발급
◆ 지도자 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신선암 참선공협회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50) 월악산 덕주사

건강한 계곡에 '토종생태' 다양


산세가 험준하고 바위가 많은 월악산은 남한을 대표하는 암산(巖山) 가운데 하나이다.


덕주사 대나무는 기온이 낮아 잘 자라지는 못했다.


덕주사 마애불은 높이 13m의 화강암벽에 새겼다.

월악산(月岳山)은 설악산, 북한산, 속리산, 월출산 등 남한을 대표하는 암산(巖山) 가운데 하나이다. 산세가 험준하고 기암단애로 이루어진 월악산은 백두대간이 소백산(1440m)~도솔봉(1314m)~문수봉(1161m)~조령산(1017m)~속리산(1058m)으로 연결되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덕주사는 월악의 정상인 영봉에서 흘러내린 덕주골에 자리하고 있다. 해마다 10월말이면 월악산 덕주골은 단풍으로 산불이 난다. 꽃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면 단풍도 십일홍이긴 마찬가지다. 서리 찬바람 단풍이 질세라, 관광객을 실은 버스들의 행렬이 꼬리를 물고 월악산으로 향한다.

월악의 소나무들은 같은 백두대간의 소나무이지만, 지리상 중부내륙형에 속해 있어서 금강송처럼 쭉쭉 곧은 것은 흔하지 않다.

남문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덕주골이 시작된다. 덕주골은 덕주봉(890m)과 960봉이 만들어 내는 길이 3km의 골짜기이다. 갈수기라 수량은 많지 않으나, 곳곳에 작은 폭포와 소(沼, 땅바닥이 둘러 빠지고 물이 깊게 된 곳)들이 생태아지트로 자리하고 있다.

소폭의 물속에 드리워진 단풍 그림자 사이로는 물고기들이 왔다갔다 한다. 2005년도 조사에서 한국특산종인 쉬리, 새코미꾸리, 참종개, 퉁가리, 꺽지, 미유기를 비롯하여 무려 22종의 어류가 송계계곡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광객들의 불법어획으로 개체수는 매우 빈약하다. 국립공원측에서 곳곳에다 어류포획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내걸지만, 근절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 특산종인 참종개는 덕주골에서도 관찰된다. 참종개는 미꾸라지를 닮은 체형에 몸통의 무늬가 미학적이다. 몸의 길이는 10㎝ 미만, 입가에 짧은 수염이 세 쌍 나 있다. 미꾸라지와는 달리 물이 맑고 자갈과 굵은 모래가 깔린 곳을 좋아해서 덕주골의 환경지표종이 될 만하다.

덕주사까지는 1km 거리. 계곡을 따라 덕주사로 오르다보면 계곡과 산자락에서 화강암과 변성퇴적암층이 드러나 있다. 한반도의 대표적 암석인 화강암은 중생대 한반도 전역에서 연이어 일어난 화산 폭발과 지각 변동의 결과물이다. 즉, 당시 불덩어리인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올라와 냉각되어 굳어진 것이 화강암이다.

월악산과 속리산으로 대표되는 제천~충주~문경~보은 지역의 바위산들은 모두 같은 시기에 형성된 불국사화강암에 속하는 산들이다. 그리고 멀리 월출산까지도 불국사화강암에 속한다.

덕주사가 덕주골에 처음 자리한 것은 신라 진평왕 때 일이다. 진흥왕에 이어 왕권을 강화하고 어렵게 확보한 영토를 보전하기 위해 국방에 심혈을 쏟던 무렵이다.

덕주사의 좌향은 양명(陽明)하지만, 큰 절이 들어설만한 형국은 아니다. 골짜기와 산기슭을 따라 길쭉하게 난 경사지에 석축을 쌓고 전각을 앉히다 보니 가람배치가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대웅보전 마당을 평지사찰처럼 넓히는 과정에서 석축이 성벽처럼 가팔라졌다.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돌계단이 숨 가쁘고 부담스럽다. 욕심을 조금만 덜어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석축은 눈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생태적이다.

전화(戰禍)를 입은 탓인지, 덕주사 주변엔 역사를 느끼게 하는 노거수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수령 1백년 미만의 느티나무 몇 그루와 늙은 감나무가 고작이다.

산국과 쑥부쟁이와 금불초 등이 군데군데 흩어져 남은 가을시간을 불태우고 있다. 이들은 늦게까지 가을을 장식하는 들국화들이다. 손으로 심은 흰 구절초도 한 켠에 보인다.

산국은 키가 1m에 가깝지만, 꽃은 지름이 겨우 1㎝ 남짓하다. 꽃과 잎에서 나는 향기는 들국화 가운데 가장 진하지만, 독성이 있어서 국화차로 적당하지 않다.

다만, 번식력이 좋아서 사찰 주변에 손쉽게 심어서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초본이다.

쑥부쟁이는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퍼져나가는데 봄에 어린 순을 뜯어 나물로 먹는다. 처음 나오는 잎에는 붉은 빛이 돈다. 꽃은 7~10월에 걸쳐 피는데 꽃 가운데의 통상화는 노랗고 가장자리 설상화는 자주색이다. 꽃지름은 산국보다 커서 3㎝ 정도나 된다.

작은주홍부전나비 한 마리가 늦가을을 힘겨워하며 양지 기슭에 앉아있다. 부전나비 종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은주홍부전나비는 평지에서 산지에 이르기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제비나비와 줄흰나비처럼 한해에 3~4세대를 거치는 나비이다. 단풍철에 만난 것이 올해 마지막 세대가 된다. 덕주사에서 마애불까지는 나무다리를 건너 1.7km 거리이다. 숲길 왼쪽으로 덕주골 계곡이 함께 하지만, 갈수기라서 몇 군데의 소를 제외하고는 물이 보이지 않는다.

숲은 키가 서로 다른 나무들이 어울려 있는데, 이를 '층위구조'라고 말한다. 층위구조가 발달할수록 건강한 숲이다.

덕주골의 층위구조는 잘 발달되어 있다. 식생조사란, 숲속에 사방 10m 간격으로 줄을 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식물들의 이름과 개체수 그리고 층위구조를 알아보는 일이다.

덕주골의 나무들은 거의가 일반사람들에게도 눈에 익은 것들이다. 덕주골 주변의 식생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계곡 주변엔 비교적 활엽수가 우점하고, 계곡에서 먼 암석지대에는 소나무들이 포진하고 있다.

덕주골 입구에서 마애불에 이르는 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키 큰 활엽수들로는 참나무류를 비롯하여 박달나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북쪽 기슭의 보덕암 주변에 모감주나무 군락이 있다. 열매를 '금강자(金剛子)'라 하며, 그것으로 염주를 만든다고 해서 '염주나무'라 부르고 있다.

월악산 8부 능선 위로는 험준한 암릉지대이다. 정상인 영봉에 오르면 첩첩한 바위봉우리들이 월악산의 암골미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높고 낮은 산봉우리마다 희뿌연 화강암을 머리에 이고 있다.

덕주사 마애불도 높이 13m의 화강암벽이다. 지하에 있던 화강암은 지표로 올라오면서 팽창에 의해 수직 또는 수평으로 틈이 생기게 된다. 그 틈에 물과 흙이 침투하여 화학적 풍화작용을 일으켜 화강암이 붕괴되거나 갈라진다. 그 절벽에다 새긴 것이 마애불이다.

한국특산어류 미유기 · 쉬리 · 퉁가리 등 22종 서식
몸통 무늬 아름다운 참종개는 환경지표종이 될만
산기슭 경사지에 세워진 전각들 전통 양식 벗어나
보덕암 주변 염주 재료인 모감주나무 군락 형성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산국은 키가 1m에 가깝지만, 꽃의 지름은 겨우 1㎝ 남짓하다.


작은 주홍부전나비는 부전나비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


참종개는 미꾸라지를 닮은 체형에 몸통의 무늬가 미학적이다.



사회와 불교계에서 발생하는 최신 시사를
공정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시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와 함께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월 5일! 개편과 함께 <무명을 밝히고>가 확 달라집니다.

방송시간 : 매주 월-토요일 / 오후 5:10-6:00 · 제작진 : 박용호 PD · 진행 : 김상영 교수

Coming soon!

www.bsfm.co.kr 서울 FM 101.9 Mhz

BBS 불교방송

부산 89.9 Mhz/광주 89.7 Mhz/청주 96.7 Mhz/춘천 100.1 Mhz/안동97.7 Mhz /포항 105.5 Mhz